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이 몸건 본시부터 오솜 없으나
두드리면 그 영검 분명하구나
어떻게 이 몸건을 바라볼 것가
이리 재고 저리 재보는 분별 마친 평계처라.
-홍유스님-

#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석탑불상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 06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8월 23일 수요일 (주간) 제 283 호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시대 박차라도 타자

###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다한불교법사회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사이버 카페'(cafe.daum.net/bupsa)를 개설했다. 법사회보를 한 달마다 펴내기는 하지만 공지사항이나 활동을 공유하기에는 아무래도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에서다. 이 사이트에서는 다음달 법사회보에 실릴 내용을 미리 볼 수도 있고, 기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올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회원들끼리 현장포교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나누고 새로운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볼 수도 있다. 또 서로 필요한 자료를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교환하기도 한다. 운영을 맡고 있는 정충모(법사회보 편집장) 법사는 "아직은 초기단계라 전체 회원수 600여명에 비해 참여 회원의 수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글을 올리는 회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선 및 수행에 관한 글모음 홈페이지인 '선객'(http://sungag.buddhism.org)을 방문하면 선사들의 법문과 선 수행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볼 수 있다.

### '사이버 지대방' 클릭 도반과 이메일 대화

특히 이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어 및 교리 문답'과 '선객 게시판'에는 불자뿐 아니라 학인스님들이 들러 선수행과 교리에 대한 의견을 올리기도 한다. 가끔은 가벼운 논쟁이 오가기도 한다.

인터넷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상공간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불교대학 동기생끼리 사이버 동창회를 만들어 졸업 후에도 서로 메일을 교환하며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같이 수계를 받은 불자들이 사이버 동호회를 만드는 일은 자연스런 하나의 현실이 돼버렸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운동은 아직 젊은 불자네티즌 중심이다. 포교와 수행을 담당하는 스님이나 법사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아직은 생경하다. 한때 학인스님들이 인터넷 지대방을 만들어 수행에 대한 글을 올리며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지만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 고금선원, 삼원선원, 우곡선원 등 사이버 선원이 10여곳 있지만 주요 방문객은 불자다.인터넷 시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다고 손 놓고 있기보다 이제 '사이버 지대방'에 모여 메일을 주고받으며 도반을 만날 때가 됐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 종교대표 연내 방북

## 박지원 문화장관 "북측과 합의"

### 29일 남북 장관급 회담서 일정논의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7대 종교대표들이 연내에 북한을 방문한다. 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내금강 사찰 복원 뜻을 밝힘에 따라 그 동안 인도 지원, 법회 봉행이 주였던 남북불교교류가 문화유산 복원 협력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지난 5~12일 7박8일의 일정으로 언론사 사장단과 함께 북한에 다녀온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14일 "이번 방북에서 국내 7대종교 대표의 북한 방문을 추진하기로 북측과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하고 "문광부 종무실에서 7대 종단과 방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북측과 접촉해서 연내에 방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방북 기간중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 강능수 문화상과 별도로 만났으며, 종교대표의 방북 합의는 박 장관과 김 아·태 위원장과의 의견조율 후 김정일 위원장이 받아들이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광부 종무실은 17일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 등 7대종교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가졌다. 종무실 박광무 과장은 "이날 회의에서 방북 시기, 규모,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북측과의 협의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논의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측과의 협의는 이달 29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교대표들의 방북과 함께 북한의 최고권력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금강 내 사찰 복원 뜻을 밝혀 남북불교교류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김위원장은 12일 평양 목란관에서 가진 남측 언론사 사장단과의 대화에서 "금강산에 있는 절들이 다 부서졌다. 정몽헌이가 내금강 관광권을 달라고 요구를 해와서 절을 다시 잘 지어주면 내금강까지 연장해준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남북 해빙 가속화"

### 정대스님, 방북 환영 논평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8일 남측 종교대표 북한 방문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금강산 사찰 복원 언급에 대해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대스님은 "자비와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인들의 만남과 교류는 반세기 동안 얼어붙었던 남북의 해빙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대스님은 '금강산 사찰 복원'과 관련, "우리 불교계는 남북의 정부당국과 상호 협력을 통해 금강산 사찰 복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또 "우리 불교계는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민족의 경화와 화해,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아들아!…어머니!** 16일 워커힐호텔 상봉장에서 북한의 김일성대 교수 조주경씨(66)에게 어머니 신재순씨(88)가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뺨을 부비며 50년 한을 삭이고 있다. 어머니 신재순(법명 수도화)보살은 부산 내원정사에서 살며 20년간 아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왔다.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이 만나는 날 북한의 계관시인 오영재는 노래했다. "만나니 눈물입니다… 아, 혈육입니다… 피눈물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맙시다… 우리 다시 헤여지지 맙시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 남-북 불자들 8·15 동시법회

## "통일보살 되겠습니다" 서원

남과 북의 불자들이 8·15 동시법회를 봉행하고 "조국과 후세 앞에 부끄럼없는 통일보살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남측의 불자들은 광복 55주년을 맞아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민족의 자주와 단합, 조국통일 기원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25개 종단 대표와 신도, 민주당 연등회장 김기재 의원, 자민련 김종호 부총재, 박준영 청와대공보수석 등 정·관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통일기원 타종, 헌등·헌화, 북녘·남녘 불자들에게 보내는 통일메시지, 법어, 김대중대통령 축하메시지, 민족화합 선언문, 남북공동발원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이 대독한 '북녘의 불자들에게 보내는 통일메시지'를 통해 "민족의 화합과 상생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위해 쉼없이 정진해 마침내 통일된 정토에서 민족화합의 대법회를 봉행하자"고 말했다.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도 남녘불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북녘의 불교도들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을 위해 신명을 다 할 것"이라며 "오늘과 같은 선업을 쌓아나간다면 겨레의 숙원인 통일대업은 기필코 성취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대회사와 민족화합선언에서 "통일불사는 남북한 불교도들에게 부여된 절대절명의 사명"이라며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한마음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대정사가 낭독한 남북불교 공동발원문을 통해 "민족의 자주와 동포애, 신뢰로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해 굴함없이 용맹정진하겠으며, 조국과 후세 앞에 부끄럼없는 통일보살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축하메시지를 보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후속조치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며 "남북 불교도의 노력과 정성이 모여 앞으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촉진되고 평화가 정착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묘향산 보현사와 평양 광법사를 비롯 60여 사찰에서 8·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봉행했다. 일본에서도 11일 조총련계 사찰인 오사카 통국사에서 만단과 조총련 진영의 승려와 신도 50여명이 모여 8·15 경축법회를 봉행했다. 정성운 기자

8·15 이산가족 상봉에 부쳐

## 겨레의 포옹, 못다 부른 통일의 노래

저레여! 지난 며칠, 이 땅에서 무슨 일 있었는가
상처의 깊목아래 돌꽃을 숨연하고
오가는 얼굴마다 근시경이 끊었으니
저레여! 지난 며칠, 이 땅에서
어떤 일 있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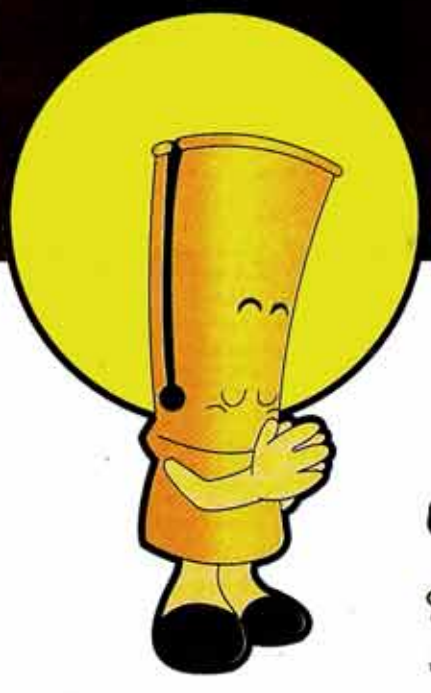
아아 우리는 보았다. 어떠하여 우리가 배달민족인가를
어떠다 힘센 이웃들에게 속아
돌은 땅 돌로 갈라 반백년을 살았어도
천상 두 손에 눈물 꼭 쥔 동선화 한족인 것을
우리는 또 보았다. 끊 속 같은 3박 4일
서랑어를 짚고 휠체어를 끌며
남북 하늘 오가는 서러운 기러기 떼
어떠하여 이 산하에 억새꽃이 피는가를

하늘이여 땅이여 이 날을 주목하소서
피 눈물 그칠새 없고도 못 다 부른 통일의 노래
다시 또 입아를 가야 통곡의 마침표를 찍으려는가
무등을 사신도도 그때 눈물 머금었거니

인연이 차는구나, 세월 자꾸 넘치는구나
반주에서 한라까지 굿지란 이념의 줄기
민족으로 화해로 통신의 열일 맺기느니
오천년 입술이 보이는구나, 새 하늘이 열비치는구나

저레여! 정녕,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으려는가
안수해 언덕아래도 광화문 길모퉁이에도
이 지란 가로수들 손잦히며 밤돌을하나니
혼잡의 술집에도 혹천선 철조망 앞에도
산질승, 길잡승을 놓을 자주 비비거니.

장 지 현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국장)



"깨침이 인사드려요"

만다라패밀리- 딸(진이), 아들(각이)

진각종을 상징할 죽비캐릭터 공식명칭(기본형)이 '깨침이'로 결정되었습니다.
또 가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만다라 패밀리'를 선정하고 아들은 '각이', 딸은 '진이'로 죽비캐릭터 가족구성원의 이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죽비캐릭터 공식명칭으로 결정된 '깨침이'는 "누구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 만다라 세계로 나아가기를 서원 한다"는 뜻입니다.

당선자 명단
· 깨침이-효명정사(화천심인당 주교), 수혜정사(길상심인당 주교), 김유승(강원도 춘천시 춘천우체국 사서함 69-444), 정수행(서울 동작구 상도2동)
· 각이(아들), 진이(딸)-지법인(LA 불광심인당 신교도)
· 만다라패밀리-김상인(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덕현(남도심인당 신교도)

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 세계종교지도자 1200명 28일 뉴욕서 모인다

## 유엔 '종교인 평화회의'…한국 13명 참가

종교인 세계평화회의가 28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다. '밀레니엄 종교 및 영성지도자 세계평화회의'로 이름 붙여진 이번 회의는 97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발의, 유엔 차원에서 마련돼 1,200여명의 세계 종교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대규모 종교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인들의 사명, 국제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교의 역할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 이 대회 기간 중에는 유엔사무총장을 지원하는 '종교지도자 국제자문기구'가 구성되는데 이어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들의 평화 정착 의지를 담은 '유엔평화선언'도 채택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한국의 종교지도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감사원장 정산스님, 교육부장 도원스님, 강원용 크리스찬아카데미 명예이사장, 최창규 성균관장,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이유종 대순진리회종무원장, 만월 불광도원 도전, 변진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등 10명이다. 또 이승헌 새천년평화재단 이사장, 고은 시인, 김관태 새천년평화재단 사무총장 등 3명은 영성지도자로 참가한다. 이중에서 강원용 목사는 세계평화를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조언하는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고은 시인은 유엔총회장에서 축시로 '평화의 노래'를 낭송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 "21세기 상담법 '수행'서 찾자"

## 불교상담개발원 '불교와 상담' 수련회

21세기 상담환경이 깊은 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 불교적 수행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이근후, 이대의대 교수)이 16일부터 18일까지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성 용주사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한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수련회'에서 제기됐다.

> "통일이후 충격완화 문화 이질감 극복 종교적 상담 개발"

이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인간성에 대한 목마름과 허전함, 그리고 깊은 고독감 등으로 종교적인 힘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찰들이 상담실을 개설해 상담을 통한 포교와 사회참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규미실장(서울시 청소년종합상담실)은 '2000년대 상담의 방향' 주제 발표에서 "21세기 인간들은 소외감과 고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찾아나서거나 만들어야 하며, 자신의 통제원리를 찾느냐 못찾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며 "이런 의미에서 종교의 역할은 증대되며 특히 서양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해답을 불교적 수행방법에서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할 것이다"고 밝혔다.

장현갑(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도 "괴로움에서 벗어나 안락한 세계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명상이라는 마음 수련방법을 탄생시켰다"며 "현재 병원환자 80%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인 만큼 21세기에는 명상수련을 통한 자기치유방법이 가장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상담의 한계극복을 불교적 수행에서 찾았다.

윤호균(가톨릭대 상담대학원)원장은 상담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바람직한 상담을 위해서는 수행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개발하여 이론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박경석(리더쉽카운셀링센터)소장은 "앞으로 종교계에서 통일에 대비한 문화적 충격의 완화와 이질감에 따른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상담방법을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근후원장은 "21세기 상담계의 대안으로 떠오른 불교적 수행이 현실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교상담개발원은 16일부터 18일까지 용주사에서 상담수련회를 개최했다.

# 동국학원 이사장 소환 결의

## 종립학교관리위, '탈종단화 보도' 등 따지기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학담)는 16일 중앙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27차 회의를 열고 동국학원 책임자인 이사장을 불러 대학 당국의 '탈종단화' 언론 보도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단이 직접적으로 대학운영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행사하는 일은 적절치 않다'는 중앙일보 반론 보도를 탈종단화 선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대학당국에 대한 관리부실로 탈종단화 발언이 나온 것이므로 재단 책임자를 불러 보고를 듣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종립학교관리위는 LA로얄대, 전산원, 수영장, 일산병원 등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과 자료제출에 대한 보고도 동국학원 책임자에게 듣기로 했다. 이사장 소환 일자는 위원장이 정하기로 했으며, 9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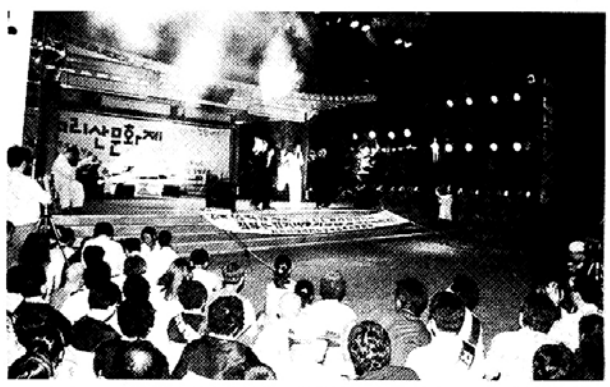
이에 대해 동국학원 법인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반박보도를 '탈종 행위'라고 하는데, 너무 앞서간 듯하다. 이사장 스님이 종단의 호출을 받을 수 있으나, 호출 이유가 '동국대 운영'에 관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단은 학교 경영을, 총장 등 교직원은 학교 행정을 맡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또 동국학원 소속 교역직 종무원(스님교수)의 종헌 9조3항(사설사암의 종단 재산등록 의무) 위배 여부를 총무원에서 조사해 종립학교관리위 다음 회의 때까지 보고토록 총무원에 요청키로 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교수 채용과 관련해 학교당국자의 비리 내용을 밝혀달라는 2건의 탄원서가 최근 접수됨에 따라 동국학원 감사가 감사를 실시해 종립학교관리위에 보고토록 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 14명중 8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또 종립학교의 자료제출 정례화, 동국학원 임원(이사, 감사)의 추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립학교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종립학교관리위는 10월중 동국학원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11일 함양에서 열린 지리산문화제에서 부다팝스 '도리도리'가 공연하고 있다.

# "지리산 푸르게 낙동강 맑게"

## 지리산문화제 성황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 및 지리산 살리기를 위한 지리산 문화제가 11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상림숲 공원에서 열렸다. 함양·산청·남원·불교연대, 함양댐·덕천강댐백지화대책위, 진주환경연합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전국 30여개 단체 회원과 시민 등 7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함양초등학교 6년 임진희(13)양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마을이 사라져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는 아쉬움은 물론 먼 훗날 고향이 없어졌다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범불교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은 "이번 행사는 지리산은 푸르게 낙동강은 맑게 이 강산을 청정국토로 만들자는 염원을 성취하기 위해 뜻을 모은 자리"라면서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 불교학과 교수 왜 안뽑나

## 16일 동국대이사회 상정조차 안해
## 유식학 등 3개 분야 4년째 결원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학과 결원 교수 임용이 또다시 좌초됐다. 동국대는 올해 '유식학' '한국불교사' 부문의 신규 교수를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16일 열린 제172차 동국학원 이사회에 '임용 대상자' 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유식학' '한국불교사' '중관학' 부문의 교수 결원을 4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교계는 한국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연구하는 '한국불교사'와 심리학과 물리학 등의 자연과학과 다각적인 접목을 시도하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 '유식학·중관학'의 전공 교수를 충원하지 못하는 이유에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사실 97년 이후 불교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따라 동국학원 이사와 교수 스님간의 반목이 심했다. 〈본지 278호 2면 참조〉

동국대 교수 임용 절차는 '공고→접수→교원초빙위원회 자격검토→학과 교수 심사→교원초빙위원회 재심사→총장 면접 후 임용 적격자 선발→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는데, 이중 '학과 교수 심사' '임용 적격자 선발' '이사회 의결' 등 세 과정에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학과 교수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질적(質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교수 '재량' 말고는 뚜렷한 평가 기준이 없는 탓에 학맥에 연연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임용 적격자 선발 및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는 평가에 따른 성적 순위보다는 특정신분과 힘의 논리에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이사회에 서울캠퍼스 불교학과의 '임용 적격자'를 선발·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것도, 이 같은 불협화음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교대의 현직 교수 절반 정도가 수 년 내 정년퇴임할 것으로 예상돼, 동국대의 경우 임용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종욱 기자

## 달라이라마 방한 준비위 내달 19일 '공식 출범'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는 9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연강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는다.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을 상임대표로 선출하는 한편 종교·시민단체 지도자들을 공동대표로 구성, 범국민적인 조직을 발족시킬 계획이다. 준비위 참가자는 공동대표, 지도위원, 자문위원, 집행위원 등 모두 500~600명선이 될 전망이다.

준비위는 이날 로튼 남링(Lottn Nam Ling) 초청 티베트 전통음악회도 가질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 조계종 5급 승가고시 내달 6일 직지사서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무비)는 9월 6일 오후 12시 20분 직지사 행자교육원에서 '제19기 행자교육원 5급 승가고시'를 실시한다.

시험과목은 사미(사미니)율의, 부처님 생애, 초발심 자경문, 위의문, 기초교리, 조계종사, 고승전, 예식의궤, 작법, 습의 등 10개 과목이다.

대상은 16일 개원한 19기 행자교육원 입교자 230명(사미 121, 사미니 109명) 전원이며, 행자교육원을 수료한 승가고시 불합격자도 포함된다. 김원우 기자

## 현대만평 박구원



오래사셔야…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733-3900 6263-3900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古都의 땅을 찾아…

日本 佛教 文化探訪 5일 ₩1,050,000
· 일 정 : 서울 - 오사카 - 고야 - 나라 - 교토 - 사가 - 오사카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료, 비자 비용, 공항세, 보험, 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전일정 식사
· 출 발 일 : 9/1, 13, 22

우리의 멋스러움이 녹아 스며있는 일본 불교문화
그 곳을 찾아 떠나는 일본 성지 순례…
■ 오사카 : 일본 제2의 도시, 한국인의 恨이 서린 땅
■ 교 토 : 일본 문화의 보고로 지금까지도 남아 숨쉬는 옛 古都의 자태
■ 나 라 : 백제의 불교가 전파된 고대문화의 중심지

동남아 불교예술의 보고를 찾아 떠나는
미얀마 성지순례 7일 ₩1,550,000
· 일 정 : 서울-방콕-양곤-파간-만달레이-민군-혜호-양곤-방콕-서울
· 출 발 일 : 9/20일
■ 미얀마 천년 고도인 파간 : 쉐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야파고다, 남파야, 쉐산도등
■ 공파웅 왕조의 역사 유적지 : 730개의 석장경이 모셔진 쿠도도파고다 차욱퉷지파고다, 만달레이힐파고다
■ 민군 종, 민군 대탑
■ 소수민족의 풍속 여행지 혜호 : 형태와 모양이 다른 수천 불상을 모신 핀다야 동굴사원, 인레호수
■ 미얀마의 수도 양곤 : 와불이 모셔진 차욱탓지파고다, 보타타웅파고다, 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친견대법회) 미얀마의 상징 쉐다곤파고다, 위빠사나 명상센타 마하시 수도원, 아웅산묘지등.

Tibet 인기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를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땅임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아!
時호을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 출 발 일 :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예조에서 선보이는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탄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 일 정 :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샬리(대림정사,아쇼카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윗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 출 발 일 : 15명이상 수시 출발

불교 최대의 석굴 "막고굴" 탐방 4박 5일 ₩1,090,000
'진' 시황제의 병마총…비림, 대안탑 등 탐방
· 일 정 : 서울-서안-돈황-양관-서안-서울
· 포함사항 : 항공료, 숙식, 중국비자, 입장료, 전용차량
· 출 발 일 : 9/18, 9/25, 10/2, 10/9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

## 목어

### '장군님'과 '하나님'

이산가족들의 애절한 만남과 또 한번의 뼈아픈 이별은 민족의 비애를 융변으로 보여주었다. 36년 망국의 세월, 그리고 55년 분단의 세월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인가. 1세기 가까운 우리 민족의 이 비운과 통한은 왜 찾아왔던가. 전범국 일본은 제쳐두고 왜 식민지지배를 받은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갈라져야만 했던가.

외세들의 자국이익을 위한 야합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산물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게 분열되었다. 분단조국은 결국 민족의 이름 아래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던 우리 겨레 모두의 업보였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왜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가를 다시금 되새기고 아울러 우리의 민족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너나없이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특히 이념의 문제는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간에 민족의 이름 앞에서는 우선할 수 없다는 교훈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이번 만남에서도 우리를 어색하게 만들었던 것은 반세기의 이별보다는 오히려 이념적 장벽이었다.

남북이 모두 통일을 말했지만 북에서 온 방문단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장군님께 감사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남쪽에서 무슨 시상식 때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을 쉽게 연상시켰다. 이번 보도에서도 일부 매스컴 종사자들은 공인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종교적 이념을 내세우려는 의지를 곳곳에서 연출시켰다.

이념의 굳은 벽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민족적 화두가 될 것이다. 이념, 지역, 종교, 계급적 갈등과 분단을 슬기롭게 극복해내지 못하는 한 우리 민족의 통일은 또 다른 분단의 씨앗을 안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번 해후의 눈물을 민족의 눈물로 읽어내고 이를 다시 민족적 각오로 재생산 해내야 한다. 거기에는 이념에 스스로 함몰되지 않고 민족적 웅비를 위해 다양성과 이질성을 조화시키고 협력해 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다시는 타민족의 지배나 분단의 역사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 설 고 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 남북 종교교류 '가속도 붙는다'

### 종교대표 빠르면 10월초 방북

## 문화유산 복원도 전망 밝아

남측 7대종교 대표의 방북 시기는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한다는 발표 후 40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방북했음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초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북단 규모는 7대종교 대표 1명 또는 2명씩과 수행원, 지원요원 등 많으면 30명 안팎으로 언론사 사장단보다는 적게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연구자들은 북한 당국이 종교대표들을 초청한 것은 그 동안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에서 어느 부분보다 종교교류가 활발했던 점으로 미루어보면 당연한 귀결로 보고 있다. 89년 6월부터 99년 10월까지의 사회 · 문화분야 남북간 교류 가운데 종교교류는 111건(867명)으로 교육 · 학술 교류(149건, 1941명) 다음으로 많았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의 종교대표 초청에 대해 "그동안 대북지원이 활발했던 점을 고려한 측면이 많다. 남한 상층부 차원의 대북 인식의 개선, 대북지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남측에서는 평화비용을 지불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북한은 사찰 복원 등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종교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교계 등은 이를 통해 북한의 사찰 및 폐사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일 언론사 사장단과의 대화에서 밝힌 '내금강 사찰 복원' 발언은 남북불교교류가 문화유산 복원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박지원 장관은 김 국방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김 정일 위원장은 사찰 복원에 대해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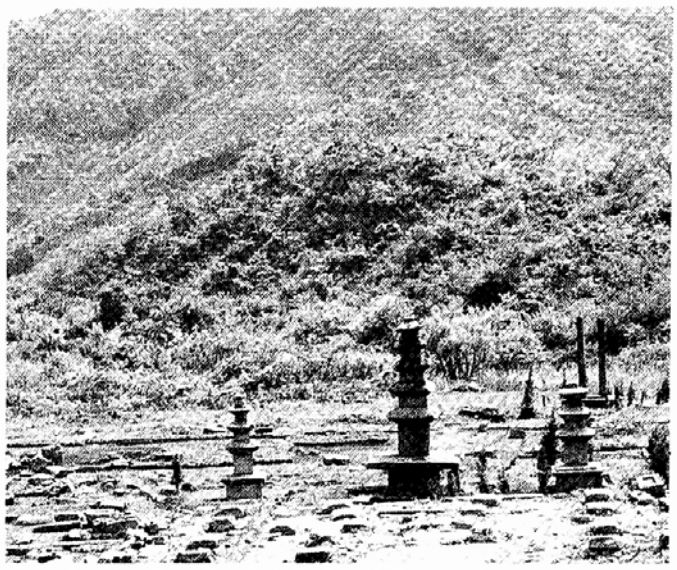
그러나 북한이 사찰 복원을 희망하는 것은 불교의 신앙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화유산 복원-관광자원'이라는 차원에서 사찰을 본다는 것이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금강산 문화유적 복원 의지를 확실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문화유적 복원과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사업으로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법타스님(평불협 공동회장)은 저서 〈북한불교연구〉에서 "순수한 사찰의 기능에서는 이탈 변질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찰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곤란하므로 긍정적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내금강 사찰 복원과 관련, 현대 아산은 "아직 복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불교계가 앞장서면 도움이 되는 입장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일철스님은 "복원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으나 자료조사를 통해 불교사적 · 문화적 가치가 높은 사찰부터 복원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후 조선불교도연맹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올해 초 발굴조사를 마친 영통사터. 대각국사비와 5층석탑, 서3층석탑, 동3층석탑 등이 남아 있다.

# 영통사 복원 곧 가시화

### 내년 의천스님 열반 900돌…가능성 높아

### 북, 발굴조사 끝내고 복원계획 수립

한국 천태종을 연 의천스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영통사 복원이 곧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사장단과 함께 지난 5~12일 방북해 북한의 강능수 문화상과 만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북한의 강능수 문화상이 천태종의 발상지가 북한이라고 하면서, 한중일 불교계가 한국 천태종 발상지 사찰을 복원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천태종 발상지를 의천스님의 출가 · 열반지인 개성 영통사로 여기고 있으며, 북한의 고고학연구소와 일본의 천태종 종립학교인 대정대학 발굴팀이 98년 5월부터 2년 동안 4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15.8㎞에 이르는 영통사 순환도로도 이미 개설했으며, 북한의 고고학연구소와 평양건설건재대학 건축사 연구실 등 북한과 일본의 연구기관들이 영통사 복원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65호 11면 시방세계 참조〉

이에 대해 천태종 총무부장 덕수스님은 "아직 복원 계획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17일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이 박지원 장관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영통사 복원과 관련한 천태종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이 의천스님 열반 900주년이 되는 해이고, 북한이 개성을 관광 · 공업이 결합된 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어 영통사 복원 움직임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기획

# 禪과 21세기

## 시어로 '깨달음의 지혜' 읽으며 간접경험

### ㉓선시 읽기(2)



김형중
명성여고 교법사
문학박사

溪聲便是廣長舌 시냇소리는 부처님의 설법이요
山色豈非淸淨身 산빛은 깨끗한 법신일세.
夜來八萬四千偈 밤 새 쏟아내는 팔만사천 게송
他日如何擧示人 다음 날 어떻게 내보여 줄 수 있을까.
〈증동림총장로(贈東林總長老)〉

소동파의 이 시는 산하대지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진리요, 선의 세계인 무처불시선(無處不是禪)의 경계를 읊은 오도시이다. 벽암록에 견색명심 문성오도(見色明心 聞聲悟道)라는 선어가 있다. 사물의 색상에 응하여 심성을 밝히고, 자연의 소리로 본성을 깨친다는 뜻이다.

선시에서 기승구는 색채와 소리, 시간과 공간이 각각 대구를 이루고, 전결구에서는 나타내고자 하는 의경(意境)을 내보인다. 한시의 선경후정(先景後情)에 조응하는 표현이다. 참선자는 오선경(悟禪境)을 추구하고, 시인은 오시경(悟詩境)을 추구한다. 참선자와 선시의 공통점은 깨달음 추구이며, 묘경(妙境)에 이르기 위해 무아지경(無我之境), 주객일여(主客一如)의 상태에서 사유(참구)하는 대상과 삼매(三昧)의 경지에 다달아야함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선과 시가 다른 점은 선에서는 깨달은 뒤에 언설(言說)에 집착하지 않지만, 시는 문자에 의탁하여 자신의 의경을 표출해 낸다는 점이다.

선과 시의 처음 만남은 신수(神秀)의 무상게(無相偈)와 혜능(慧能)의 자성게(自省偈)로부터이다.

身是菩提樹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心如明鏡臺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네.
時時勤拂拭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莫使有塵埃 번뇌의 때가 끼지 않도록 하세.
〈신수 무상게〉

菩提本無樹 깨달음은 본시 나무가 아니며
明鏡亦無臺 밝은 마음 역시 받침이 없네.
佛性常淸淨 불성은 늘 깨끗하거늘
何處有塵埃 어디에 번뇌 티끌 있으리오.
〈혜능 자성게〉

이 두 게송은 신수의 북종점수선(北宗漸修禪), 혜능의 남종돈오선(南宗頓悟禪)의 종지(宗旨)와 교의를 천명한 시법시(示法詩)가 되었고, 육조단경의 '전법 계승 발우싸움'에서 선문학의 점정(點睛)이 되었으며, 선종사(禪宗史)에 미친 영향은 사뭇 크다.

선시는 선맥을 사자상승(師資相承)하는 증거가 되었고, 깨달음의 경계를 내보이는 수단이 되었기에 우리는 선시를 통해서 선사(禪師)의 인고적 선의 체험과 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선시는 선사상이나 문학사적 측면에서 고승들의 고차원적 정신활동과 깊은 사유를 통한 심오한 철리를 담는 역할을 했다.

예술사적 측면이나 미학에서도 선적 체험을 통한 물아일체(物我一體) 주객일여(主客一如)의 몰입(삼매)은 작품에서 하나가 되어 일체관과 초월성을 드러내는 미적 창조성과 직관적 심미성이 높은 차원으로 승화하게 되었다.

직관과 돈오(頓悟)에 의한 깨달음은 기존의 고정 관념을 타파하여 창조적 사유방식과 단도직입적(單刀直入的)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각고(刻苦)의 구도심(求道心)과 자유무애(自由無碍)한 시심(詩心)은 깨달음을 통한 자유, 해방, 한가, 여유로 드러나 작품을 통해 여백미와 정밀미(靜謐美), 미외미(味外味)의 미학으로 나타난다.

불교회화, 건축, 조각 등에서 동방미학의 특성인 고요와 여백미가 그 한가함을 보여 주고 있다. 참선을 통하여 얻는 무아심(無我心)과 직관적 사고는 통찰의 혜안(慧眼)을 뜨게 했고, 선의 천진면목(天眞面目)과 우주심은 작품 속에서 순수 자연과 청정심(淸淨心)으로 나타난다. 이는 현대사회의 이분법적 흑백논리에서 생기는 대립적 갈등이나 대립을 종합적이고 원융적(圓融的)인 사유를 갖도록 유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통일적 사유 방식은 유불선(儒佛仙) 삼교합일론(三敎合一論)과 선교일치론(禪敎一致論)으로 나타나 한국사상사의 한 특징이 되었다.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악간명 모집

| 학 과 | 수업연한 | 모집과정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특별전형30% |
|---|---|---|---|---|
| 불교학과 | 2년 | ■주간20명 ■야간20명 ■통신50명 | · 고등학교 및 수학능력이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br>·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br>· 본교소정입학원서 1통<br>· 주민등록등본 1통<br>· 반명함판 사진 5매 | · 조계종 승려 · 포교사 (타종단승려, 포교사도 가능)<br>· 30세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
| | 4년 | ■통신50명 | | |
| 불교미술 (문화재)과 | 2년 | ■주간20명 ■야간10명 | | |
| 중국어과 | 2년 | | | |
|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 2년 | | | |
|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 2년 | | | |

2. 학원연혁

1989.7.3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취득
1991.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199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취득
1994.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본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2000.2 제9회 졸업생 배출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가능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 입학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9월 8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교학과 : TEL.02)511-2026~8 FAX. 511-1080
일본동경분교 : TEL.055-233-184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 : WWW.Buddhapia.Com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 교육부 학력 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악간명 모집

| 학 과 | 수업연한 | 모집과정 |
|---|---|---|
|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 3년 | 주간 · 야간 |
| 중학교 과정 | 3년 | 주간 · 야간 |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9월 8일까지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2026~8 FAX : 02) 511-1080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 중국최고 국립한의과 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1.모집학과
■석사 · 박사과정 악간명 모집

| 학 과 | 학제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 한의학과 | 5년 |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br>◇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br>◇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br>◇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br>◇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br>◇ 건강 진단서 1통<br>◇ 보증서 1통<br>◇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br>◇ 여권용 사진 3매 |
| 중의외과 | 5년 | |
| 중약학과 | 5년 | |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등 완비
▶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군입대 연기기능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 25-6798171 팩스 : 25-6798168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 02-511-2026~8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 "불우 노인·어린이·미혼모 지원"

### 동화사 자원봉사단장 성묵 스님



"조계종 교구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발족되는 자원봉사단인 만큼 젊은 불심을 한데 모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체계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8일 발족한 조계종 제9교구 자원봉사단 단장을 맡은 성묵 스님(동화사 사회국장)은 "이제까지 불교가 타종교에 비해 사회봉사 분야에 관심을 덜 쏟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IMF 관리체제 이후 빈부격차의 심화로 도움이 필요한 곳이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더 이상 불교계도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었다"고 창립배경을 밝혔다.

"처음에는 단원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봉사단 구성에 회의적이었으나 많은 신도들이 참가해 고마울 뿐"이라는 스님은 "청도, 칠곡, 고령, 성주 등 교구 산하 21개 말사를 중심으로 400여명이 봉사단에 참가했으며, 앞으로도 단원을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우선 봉사단을 지역별로 21개 지회로 나누고, 활동영역별로 33개 팀을 구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여러 말사에서 하고 있는 무의탁노인 무료급식, 결식아동돕기 및 미혼모 지원 등의 복지사업을 계속 하는 한편 10월10일로 예정된 동화사 개산대제 행사에서도 이들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또 10월경 미술품전시회나 바자회 등을 열어 수익금을 마련하는 한편 매달 각 말사에서 보내오는 700여만원 복지기금과 보시금을 적립, 연말쯤 대대적인 경로잔치나 이웃돕기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성묵 스님은 9세때 충무 미래사에서 출가, 칠곡 보덕암 주지를 거쳐 지난 1월부터 동화사 사회국장을 맡아오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보현사서 예불…감개무량"

### 북한 다녀온 불교방송 김규칠 사장



◇김규칠 불교방송 사장(사진 오른쪽)의 제안으로 방북단은 일정에 없던 보현사를 참배했다.

불교방송 김규칠 사장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초청한 언론사 사장단의 일원으로 동행, 7박 8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12일 귀국했다. 김 사장은 이번 방북기간 중에 묘향산 보현사와 평양 정릉사 등 불교유적 참배를 통해 북한불교의 현주소를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보현사 참배는 방문 일정에 없던 것으로 김 사장의 제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김사장은 보현사에서 불자인 충청일보 서정욱 사장과 함께 예불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예불이 끝난 뒤에는 최형민 보현사 주지 스님에게 불교방송에서 제작한 예불문 녹음 테잎과 시계를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통일을 기원하며 올렸던 보현사에서의 예불은 정말로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주지 스님 말에 의하면 보현사에서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법회를 연다고 하더군요. 사찰 보존 상태도 비교적 좋았습니다. 특히 새로 단장한 팔만대장경 보존고에 보관돼 있는 영인본과 해제본이 인상 깊었습니다."

김 사장은 12일 목란관 만찬 석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팔만대장경이 잘 보존돼 있는 것에 대해 불교인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 일주문

### 대구 신행단체련 법회서 법문



철웅 팔공산 성전암 조실은 대구시 불교신행단체연합회가 17일 대구구도회 법당에서 개최한 합동대법회에서 법문했다.

### 어린이집 운영 주지 연수



일면 조계종 교육원장은 18일 부산 내원정사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 주지 연수'를 개최했다.

### 한빛은행 불자회서 설법



정관 부산 영주암 조실(전 범어사 주지)는 19일 영주암에서 열린 한빛은행부산불자회 정기법회에서 법문했다.

### 하반기 장학금 지급



성관 수원포교당 주지는 27일 정토수행관에서 2000년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수원포교당은 매년 2회에 걸쳐 학인, 대학생, 중고생 25명에게 총 30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 '마음집중법의 실제' 강연



김열권 법사(위빠사나 수행자)는 24일 오후 6시 30분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마음집중법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한다. (02)725-623

### 생노병사 주제로 포교연수

관효 제주 홍법정사 주지는 28일 제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한·중·일 국제문화예술교류 공연에 특별출연, 생노병사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시연한다.

### 부산불교지도자 하계수련

강선태 부산불교신도회장은 19~20일 지리산 구례 화엄사에서 '제15회 부산불교계 지도자 하계 수련회'를 개최했다.

### 인 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학생상담실장=고진호 △학사지원실장 하정윤 △인사관리팀장 오광진 △취업지원팀장겸 총무팀장=황주환 △시설관리팀장 이천종 △가상대학 교학과장=차선구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장=윤병식 △인문과학대학장=정갑동 △법정대학장=김희오 △상경대학장=채대석 △한의과대학장=최달영 △야간강좌교학처장=최상영 △여학생실장=이영경 △금장생활관장=박상신 △교육방송국장=이봉춘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김영재 △연구교류실장=장해룡 △학생상담실장=김종진

**조계종** △총무원 총무과장=유지호 △총무원 기획과장=박희승 △총무원 재정과장=이석심 △교육원 교육과장=고명석 △포교원 포교과장=황찬익



## 부천 석왕사 백중맞이 경로잔치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14일 지역 어르신 1,000여명을 모시고 제13회 백중맞이 경로대잔치를 열었다. 고산 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과 주지 영담 스님, 김정부 부천시 원미구청장 등이 참석한 이날 잔치는 효행상 시상을 비롯해 예선을 거쳐 올라온 어르신 8팀의 장기자랑, 국악인 등 연예인 초청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 좋은벗들 비무장지대 통일기행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은 12~13일 '우리는 철원으로 간다'는 주제로 철원 비무장지대 통일문화기행을 다녀왔다.

77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이번 통일문화기행은 철의 삼각전망대, 제2 땅굴, 월정리역, 백마고지 전승기념지, 노동당사, 도피안사 답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월정리역 앞에서 경의선 복원을 시작으로 평화 통일이 이뤄지길 발원했다.



## 진각복지재단 도봉서원복지관 개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사장 성초)은 18일 서울 도봉구에 자리한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개관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개관불사에는 성초 통리원장을 비롯해 일정 교육원장, 임익근 도봉구청장, 이철수 도봉구의회 의장, 설훈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 "남북시인 함께 통일문학 열자"

### 남북 대표시인 고은·오영재씨 첫 상봉



남북한 이산가족 교환방문 사흘째인 17일 남북한의 대표적인 두 시인도 '감격적 상봉'을 가졌다.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산가족 방문단 환송 만찬장에서 만난 민족작가회의 상임고문 시인 고은(67·본지 논설고문) 씨와 북한의 계관시인 오영재(64·사진 오른쪽) 씨는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모국어의 육친이요, 말의 핏줄"이라며 첫만남의 감격을 포옹으로 달랬다.

오 씨가 먼저 "6·15 남북 정상회담 때 '대동강 앞에서'라는 시를 읽는 고 선생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만나고 싶었다"고 감격을 전하자, 고 씨 역시 "12년 전 무산된 남북작가회담때 오 선생이 쓴 '자리가 비었구나'라는 시를 액자로 만들어 사무실에 걸어놓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남북 시인이 함께 문학잡지를 만들어 통일시대 문학을 열어 나가자"고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통일이 되면 서로를 집에 초대하자고 약속했다.

고은 시인은 최근 자신이 펴낸 시집 〈남과 북〉 등과 녹차를 선물로 건네며 짧은 만남을 아쉬워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 '깐수' 정수일씨 "통일 위해 노력"



Focus

15일 8·15특사로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무하마드 깐수' 정수일씨(전 단국대 교수)가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과 가족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정씨는 "남북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조국통일의 성운이 꿈틀거리고 있다"며 "북한을 잘 아는 불자로서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씨의 목에 108 염주를 걸어준 법산 스님은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열려있다. 열려있는 미래에 좋은 인연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며 정씨의 두 손을 꼭 잡았다.

한편 출소 당일 정씨는 40년만에 중국 용정에 거주하는 동생 정승길씨(48)를 만났다.

대전=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 백혈병 두살바기·여중생 수술비 없어

호소

경남 진해여중 2년 이지건 양은 지난 4월 등교준비중 갑자기 쏟아진 코피가 멈추질 않아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언니와 골수조직이 맞아 이식수술이 가능한데도 1억원이나 드는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 형편.

백혈병의 일종인 악성 조직구 증식증을 앓고 있는 생후 16개월된 이윤영 유아는 지난 5월부터 전남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윤영이네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현재 월세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치료비는 물론 7천만원이나 하는 골수이식 수술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도움주실 분은 (02)784-1592(이지건) (02)734-8050(생명나눔실천회) (062)234-6602(이윤영)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 팔리어 대장경 번역 사무소 현판식

민족문화의 최대 보물인 팔만대장경과
국내외 불전들을 번역출간하며 불전을 정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저희 연구원은 '93년 9월 부터 역경인재를 양성
키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본 연구원은 팔리어대장경 번역의 大願을 發하고
팔리어 대장경 번역사무소 현판식을 갖고자 합니다.

부디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44년 (2000년) 8월 28일 월요일 오후 7시
■장 소 : 개운사 법당
■연락처 : 02)929-9991

아울러 제4회 연구과정 및 제6회 연수과정 졸업식이
있겠사오니 졸업생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 12기 연수과정 및 제 8기 연구과정 모집요강**

■ 불전 번역 및 연구에 뜻을 두고 있거나 불교를 깊이 있게 연구코자 하는 비구 비구니 및 재가불자

**응시자격**

■ 연수과정 (2년)
· 경전을 배우고 싶은 스님 및 재가불자
· 각 사찰 교양대학 수료자
· 불교 기초공부를 경전을 통해 배우고 싶은 재가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자

■ 연구과정 (2년)
· 본 연구원 연수과정 수료자
· 일반대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전문강원 중강 이상 자격자
· 불전번역에 경험이 있는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자

※가을학기 연구과정 및 연수과정 개설강좌

|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
| 개설 강좌 교재 및 담당교수 | 화엄학특강 (화엄경현담) 혜남스님 | 능엄경연구 혜정스님 | 외전연구 권영대교수님 | 범어기초 김령교수님 |
| | 팔리어 백도수교수님 | | | 육조단경 종범스님 |

중앙승가대학교 부설 불전국역연구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56번지
☎ 02)929-9991 FAX : 02)953-2876

# 佛教儀式(범음·범패) 학인모집

본대학 불교의식(범음·범패)교육원에서는 권위있는 연구, 교수진을 모시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 |
|---|---|
| 기본과정 | 도량석,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괭세)다루는 법 |
|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권공, 영반 지장청 각 시식 다비식 화청등, 사물(천수북, 법성게북, 장엄염불 요잡 진언쇠줄) |
| 연구반 | 신중작법 다게작법 도량게 천수바라, 나비춤, 사다라니바라, 오고양작법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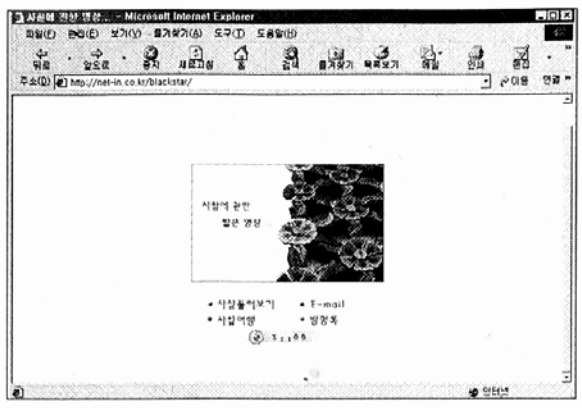
◆원서접수 : 2000년 8월 10일 ~ 2000년 8월 23일 까지
◆개강일시 : 2000년 8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1통, 주민등록등본1통
※ 본대학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후 수료증 수여,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 승녀, 재가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 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성심껏 지도함.
※ 본교 휴학생은 이번학기에 수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843번지
대한불교 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대학사무국
☎ (051) 442-5952, 467-3316

海東元曉佛教魚山儀式大學

# 인터넷에 가면 불교가 보여요

◇ '사찰에 관한 짧은 명상'에는 당간지주, 일주문, 천왕문 등 사찰건축에 대한 설명이 쉽게 풀어져 있어 초심자들의 눈길을 끈다.




청 학 사
유한택의…
서재영의…

## 절·공양하는 법 등 사찰예절 소개
## 법당·불상·탱화 의미 이해 도움
## 기초교리·경전 등 가르침 쏙쏙

*자칭 초보불자 박소진씨(28, 회사원). 지난 7월초 불교가 좋아 절에 무턱대고 찾아갔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절 마당 만을 배회하다 쑥쓰러움만 잔뜩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회사 일로 바쁜 박씨는 사찰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좀 더 불교에 대해 알기 위해 시간 틈틈히 이리저리 인터넷 서핑을 시작했다.*

박씨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바로 '청학사 홈페이지'(http://soback.kornet.net/~hyunbup). 이곳에서 일주문에 들어서는 순간 시작되는 경건한 마음가짐에서부터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절에 가서 제일 먼저 가야하는 곳은 어디인지, 스님이나 불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법당 출입법, 향 꽂는 법, 촛불 이용법, 합장하는 법도 알 수 있었다. 절에서 하는 합장, 반배, 삼배의 의미, 오체투지 등의 생소한 용어도 접할 수 있어 절에 대한 사전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유권준의 인터넷으로 만나는 불교미술'(http://galaxy.channeli.net/ahnyou)을 들어가자 절에 올 때의 몸가짐에서부터 불전에서의 몸가짐, 법당에서 주의할 점, 법회에 동참하는 자세, 도량에서의 몸가짐, 스님을 대할 때의 예의, 경전을 대할 때 등으로 세분화된 사찰예절을 접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지식을 얻고 난 박씨는 일요일 절에 가서 법당을 참배했다. 서툴게 삼배를 드리고 향 공양도 올리니 가슴이 뿌듯했다. 조금 여유가 생긴 박씨는 대웅전을 비롯해 절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건물마다 대웅전이니 명부전이니 하는 이름이 따로 있었고 불상 보살상의 손모양도 각양각색인 점이 궁금증을 일으켰다. 부처님 뒤에 그려진 그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 호기심이 일었다.

박씨의 이러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준 곳은 바로 '사찰에 관한 짧은 명상'(http://net-in.co.kr/blackstar). 당간지주, 일주문, 천왕문, 법당, 탑 등 사찰내의 각 건축물의 기능과 의미를 간략하게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서울인근에서부터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의 유명사찰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코너 덕에 웬만한 유명사찰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었다. '유한택의 아름다운 삶'(http://galaxy.channeli.net/hansera)을 방문해서는 대웅전, 대적광전, 극락전, 미륵전, 관음전, 명부전, 삼성각 등 다양한 법당의 이름과 모시는 부처님의 종류, 탱화의 종류 등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어 사찰의 구조 및 법당 구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어느정도 예절 및 사찰 구조에 대한 상식을 쌓은 박씨가 최근 인터넷 서핑에 몰두하는 분야는 바로 불교기초교리.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 싶은 마음에 '서재영의 불교기초교리강좌'(http://www.buruna.org)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불경에 대한 기초지식도 쌓을 수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불교에 대해 조금씩 눈을 떠가고 있는 박소진씨는 앞으로 불교NGO에 관한 자료들과 수행법 등에도 도전해볼 생각이다. 평소 참선에 관심이 많았지만 수련회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은 못하고 책으로 그 궁금증을 달래왔던 것. 인터넷으로 좀더 많은 수행법을 접해보고 실천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겠다는 것이 박소진씨의 인터넷 서핑 목표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박 경 수
〈한국전력 해외사업처 부장〉

나는 '초담'이라는 나의 법명이 아주 좋다. 대학교 1학년 때 조계사 청년회의 수계법회를 좇아갔다가 얼떨결에 받은 법명이다. 불편한 몸으로 소요산 자재암에 계시던 추담(秋潭)스님께서 자신과 동류의 법명을 지어주셨는데,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시사철 변화가 춘하추동으로 흘러가는데 추담이란 노스님께서 새내기인 나에게 초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데는 무슨 큰 뜻이 있다고 내 나름대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기초 교리는 물론 반야심경조차 제대로 외지도 못하면서 수계를 받는 것이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고 회장에게 물었더니, 일단 수계를 받고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면서 한사코 권유를 해 못이기는 척하며 수계를 받게 된 것이다. 당시 말술을 먹으며 술내기를 다니던 나의 상황이 마치 수호전의 노지심과 같아서 가끔 고소(苦笑)를 금치 못한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되었는가 보다. 불교는 타종교와는 달리 불·법·승을 삼보로 하는, 스님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므로, 스스로 신성(神聖)을 갖추어야 할 스님들이 시정잡배와 똑같은 추태를 부렸다는 것은 부처님과 신도들에 대한 배신 행위로 그 누구에게도 용서될 수 없다.

게다가 군법사 수급에 6년씩이나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니 불교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가슴이 아프다. 올해는 예년의 10명보다 갑절이 많은 24명이 응시했지만 합격자는 오히려 줄어 할당된 20명보다 16명이나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는데, 종단에서의 불교계 후진 관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낼만한 인근의 불교 유치원 등 불교계 교육기관이 적다는 것, 역시 나의 마음을 씁쓰레하게 한다.

이렇듯 우수한 인재를 손쉽게 확보하지도 못하는 불교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만 힘있는 종교로서 우리 신도들이 마음껏 기댈 수 있는 불교가 제대로 존립된다고 본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즈음 '전국 직장인 불교신행단체' 일로 포교원을 드나들면서 많은 것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분위기가 쇄신된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몇 년 전부터 틈나는 대로 관세음보살을 찾다보니 이제는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세상이 온통 연두색으로 변하며 따뜻한 관세음보살의 미소가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큰스님께서 내 법명을 초담이라고 주신 것인지도 모르겠다.

## "우수한 불교인재 널리 확보"



◇농림부 불자회가 16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청월스님 초청법회. 중앙부처 불자회원은 물론 불교와 참선에 관심있는 공무원들이 참석해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공무원불자련 결성 가시화

### 29일 실무자회의 열어

정부부처 공무원불자들이 연합회 구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불자회 등 중앙 부처 공무원 불자회 임원들은 농림부 불자회가 1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송광사 청월스님 초청법회에 참석해 전국공무원불자결성을 위해 8월 29일 실무자회의를 갖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실무자회의를 통해 10월 7~8일 예정된 전국공무원불자회 합동성지순례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공무원불자회보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 구성 등 연합회 구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내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 결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림부가 주최한 청월스님 초청법회는 과천정부종합청사 불자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해 공무원불자 상호간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향후 연합 활동의 토대를 다졌다.

농림부 나승렬 불자회장은 "공무원불자 상호간의 정보공유와 인적교류를 위해 이같은 법회를 마련했다"며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친목을 다진다면 연합회 구성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 PC통신 오프라인 법회 붐

### 하이텔 불국사 수계
### 유니텔 청화스님 친견

PC통신 불교동우회 회원들이 수련대회, 수계법회, 전국모임법회를 통해 직접 만남의 장을 만들어 불심을 다진다.

하이텔 불교동호회(대표시샵 이승덕)는 26, 27 양일간 경주 불국사에서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100여명이 참석할 이번 행사는 탑돌이, 1080배 철야정진, 석굴암 참배를 비롯해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을 계사로 한 수계법회도 함께 봉행한다.

유니텔 불교동호회(대표시샵 이태경)도 26, 27일 전남 곡성 성륜사에서 청화 큰스님 초청 전국모임법회를 갖는다. 130여명이 참석할 이날 법회에서 청화스님과 불교동호회 회원간의 문답식 법문이 결쳐질 예정이다. 출발은 하이텔 및 유니텔 불자회 모두 26일 오후 3시 양재동 서초구민회관에서 한다.

천리안 불교동호회(대표시샵 이경재)는 18일~20일까지 남원실상사에서 수련대회를 가졌다.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수련회는 도법스님의 불교와 환경에 대한 강의, 실상사 귀농학교 교감 이해경씨의 환경농업과 농장체험, 영화 '브라드 오브 슬립' 상영, 수계법회 등으로 진행됐다.

### 클릭! 새 홈 페이지

■ 에밀리사운드(www.emilesound.com)-국내에서 유일하게 종소리 사운드 모듈을 직접 제조생산하고 있는 에밀레 사운드의 사이트.

■ 불승종청년회(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bulseung)-7월28일 개설. 불승종 청년회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위한 연락기구. 정기적인 정팅, 불승종의 각종 행사 소식과 전국 청년회의 사이버 회의를 주관할 계획이다.

■ 호국사 학생회(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hokuksa)-8월6일 개설. 호국사 학생회 회원들의 모임터. 불교학생회 연합페이지를 준비하고 있다.

### 우리 모임에선

### 교사불자련 여름 수련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남지부(회장 김형춘)는 18~20일까지 경남 고성군 옥천사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대승불교와 선'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대승불교의 발흥, 대승불교와 보살행, 보살의 신행, 불교학생회의 운영 등 주제강의와 참선 실수, 산내암자순례로 진행됐다. 이날 수련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교사불자 100여명이 참석해 산사생활을 통해 신심을 돈독히 했다.

### 영등포교도소 정기법회

영등포교도소 불심회(회장 최춘백)는 18일 신촌 봉은사에서 정기법회를 개최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만철스님이 설법했다.

### 금강메아리 간월암 순례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이진홍) 회원 45명은 20일 서산 팔봉산 간월암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에는 팔봉산 등반과 안면도 휴양림도 방문했다.

### MBC 증권거래소 합동법회

MBC불교연구회(회장 장영효)와 증권거래소 불자회(회장 김인건)는 17일 여의도불교문화원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원일스님(원각사 부주지)이 설법한 이날 법회에는 3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신심을 키웠다.


# 공 고

## 제29차 운문 총동문회 소집

알밤이 영글어 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각처에서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시는 동문스님 한해동안 청안 하셨습니까?
바쁘신일 잠시 놓고 모교 운문에서 오랜만에 선후배 도반들이 함께 만날날이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했던 학인시절, 그래서 오늘이 있게 한 옛 도량에 모여 의미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의 동문회는 고희를 맞으신 우리들의 스승님 강주스님 고희기념 논문집 봉정식과 겸하여 스님 작품 전시회도 조촐하게 갖게 됩니다.
형편상 개별통지 생략하더라도 양지하시고 무루 참석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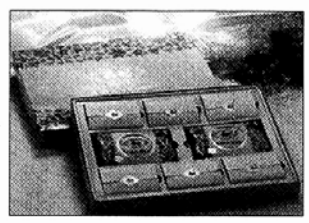
■일 시 : 2000년 9월 17일 일요일(음 8월 20일) 오전11시
■장 소 : 청도 운문사 만세루
■연락처 : 054)372-8800 (운문사 종무소)
064)782-2564 (동문회장)

운 문 승 가 대 학 동 문 회
회장 대영 합장

#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제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괴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 사 설

# 한민족 모두 통일보살

남과 북의 이산가족 상봉으로 우리 민족의 질곡을 해방시키는 새로운 흐름을 연 8·15. 그 날 남과 북의 사찰에서 '민족의 자주와 단합, 조국통일 기원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가 봉행되었다. 이 법회를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통일의 원동력이 되고, 이 땅의 불자들이 통일의 보살이 되어, 하루 빨리 이 땅에 불국토를 실현하는 큰 흐름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냉전의 어둠이 걷히고 화해와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움터오는 이 시대를 맞는 불교의 큰 사명이 바로 여기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 전체를 괴로움 속에 몰아넣고 있는 가장 큰 어두움은 국토의 분단으로 말미암은 민족의 분단이다. 그렇다면 중생의 고를 없애서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승 정신에서 가장 서둘러야 할 불사는 원만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통일 뒤의 세계가 민족의 염원대로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도록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통일을 향한 움직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이해를 초월하여 통일 문제에 가장 앞장서야 할 종교계가 오히려 뒷전에 서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다. 경제계가 제일 앞장을 서고, 그 다음 정치가 따라가며, 종교계가 가장 뒤늦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종교계의 뒤진 걸음 속에서도 불교계는 앞장을 서지 못하고 있지 않았던가 하는 아픈 반성이 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통일을 위한 걸음이 정치적인 흥정이나 일시적 바람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불국토 건설의 과정으로 삼는 우리 불자들의 불퇴전의 정진에 의해 중단없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 선과 악을 극단적 대립관계로 놓고, 상대방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냉전 논리를 불교의 중도 연기 사상에 의해 극복해야 한다. 너 속에서 나를 보고, 나 속에서 너를 보는 혜안이 민족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관점으로 서야 하는 것이다.

이제 불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부처님의 지혜를 몸으로 실천하는 그 첫걸음이 바로 통일 불사에 나서는 것이다. 우리 개개인의 고통, 정신적인 황폐화의 뿌리에 분단과 냉전의 어둠이 놓여 있음을 바로 본다면, 바로 통일 불사는 우리 자신의 괴로움을 뿌리 뽑기 위한 정진에 다름 아닌 것이다. 통일이 단순한 국토의 통일에 그치지 않고, 남북한의 합쳐진 힘이 열 배 백배가 되어 복된 민족의 미래를 이루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잇고 있는 우리 불자들의 사명이며 또 영광임을 깨닫고, 모두 통일보살의 길에 나서야 한다.

# 훼불, 치외법권 안된다

인류 문명의 장구한 세월을 주도해 온 농업사회는 이른바 면접사회였다. 땅을 중심으로 협동하여 일해야 생존이 가능했으므로, 자연히 혈연이나 지연으로 가깝게 맺어진 '낯익은'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삶이었다. 그런 환경에서는 인간의 그 강렬한 본능적 이기심이나 사사로운 욕망들이 멋대로 돌출되기가 어렵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요구하는 관행과 규범을 성실하게 따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열리면서 도시로 몰려든 '이방인'들은 억제되었던 이기심과 욕망들을 자유롭게 드러낸다. 그러다 보니 '이기심들의 충돌'이 빚어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법이 사회계약으로 마련된다. 각자의 이기심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한 '욕망의 규제'요 '이기심의 합리화'였다. 근대 이후 산업사회는, 사회 운영의 전제로서 법의 성실한 준수와 그 엄정한 집행에 합의한 것이다.

또 다시 훼불 행위가 교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달 경남 산청군 소재 3곳의 사찰의 불상과 탱화, 산신각이 연이어 훼손되었고,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봉고차의 차적 조회를 통해 용의자를 체포하여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에 임하는 경찰의 납득하기 어려운 미온적 태도가 불교계를 더욱 불편하게 하고 있다. 명백한 범법 행위를 민감한 종교적 사안이라 하여 흐지부지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가 이번에도 반복된다.

법 집행 주체들의 난처한 입장도 충분히 헤아려진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합리적 종교 열정과 그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지형도의 미묘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런 식의 정치적인 배려로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훼불 재발의 원인을 제공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이익들이 충돌하는 근대 산업사회의 최소 운영 원리에 원칙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 특히 특정 종교의 강한 독선과 배타성을 고려한다면, 빈발하는 종교적 범법 행위는 오히려 더욱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다종교사회이다. 종교 이기심들의 충돌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민족정신 배우는 공간

남한산성에 만해기념관이 개관된 지 2년 반이 됐다. 기념관에는 조국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 굳세게 살았던 만해 한용운의 정신이 살아있다. 그러나 아직도 남한산성에 웬 만해기념관이냐는 관람자가 많다. 만해기념관에서 산성의 역사와 만해의 정신을 떠올린다면 민족의 얼, 민족의 정신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그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보삼〈간해기념관 관장〉

### 가독교계 대학 직원채용 목사추천서 요구 당연시

숭실대학과 같이 기독교 재단인 대학에선 종교적 차별이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아니면 교수나 직원으로 절대 안 뽑는다.

Y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공공연한 일은 아니지만 지원자에게 개인적으로 목사 추천서를 요구한다. 이는 인간의 평등의식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엄연한 종교적 차별정책이다.

국가의 세금을 전혀 받지 않는 순수 종교재단의 대학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게 교육계 현실 아닌가? 종교적으로 편파성을 나타내고 학생들에게 채플 수강을 강제하는 대학에 국가의 세금을 쏟아 부을 수는 없다.

국가에 이상과 같은 사실이 헌법 위반임을 알리는 헌법소원을 제출하자. 그렇지 않다면 동국대학부터 불교 신자가 아닌 교수들을 모두 없애던가.

〈붓다뉴스 닷컴 ID:선장〉

### 조계사 신협 횡령사건 원인규명 철저 재발방지

최근 교계 신문에서 조계사 신협 사건을 접하고 도대체 사찰이 운영하는 곳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까지 되도록 몰랐다는 사실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예전의 사건들을 다시 철저히 조사해 근원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건이 나면 수습하기에만 바쁠 뿐, 그런 일을 미리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불자들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장윤석〈경기 군포시 산본동〉

### 지리산은 민족의 성산 식수댐건설 절대 안된다

지리산은 1967년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될 만큼 빼어난 경관과 함께 민족의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민족의 성산이다. 그리고 불교문화의 보고요, 생태계의 보고다. 그런 곳이 식수댐 건설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니 안타깝다.

오염이 심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생각은 않고 단순히 또다른 댐을 건설해 물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가 한심하고, 그런 정책들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데 화가 난다.

정부는 땜질식 대안보다 환경부(수질 관리), 수자원공사(수량 관리), 기초자치단체(상·하수도 관리)가 따로 맡고 있는 수자원관리를 일원화해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수량확보 위주의 공급확대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충식〈경남 함양군 병곡면〉

### 독자의 詩

## 산사의 비

산돌림으로
산사에 비 온다.
해거름녘
후두둑 후두둑
초록 생명들의 움찔거림
하늘은 흑갈색 투성이로
동장 난 먹장 구름이
꼭 잿빛 하늘소 무리로 모여든다.

요사채 툇마루에서는
스님네들 차 달이기 바쁘고
눅눅한 곰팡내가 절 간에 번져도

뜨거운 녹차에 꼬리를 감춘다.
툇마루 밑에도 빗방울 듣고
암코양이가 눈도 안 뜬 제 새끼들
핥고 씻기는 정성 알뜰하다.

산사에 비 온다.
탐등에 불 밝히고
예불 목탁소리
똑또르르 똑또르르
제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
향…
스님 염불자락 빗소리에 젖어도

본시 마음자리 젖는 법 없다.

뒷방 구들장 뜨뜻해 오고
아궁이 속 벌겋게 타는 장작불
탁타닥 탁타닥 탁 탁
그 타는 열정 한번 허망타.
늙은 노승 허리쑤심 아랑곳 없이
그저 풍경만 뎅그렁 뎅그렁
밤새
저만 깨어 세상을 재운다.

김혜명〈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 독자기고

# 禪은 배우는 것이 아닌 경험하고 느끼는 것

지식과 상식은 생각 속에 있고, 과거의 것이다. 선은 느끼는 것이며, 생각 너머에 있다. 지식과 상식으로 선에 접근하지 말라. 생각으로 선을 더듬지 말라. 그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빛을 노래하는 장님들이 너무 많다. 그 목소리가 너무 크고 아름다워(?) 빛을 갈망하는, 빛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자가 빛으로 왜곡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실로 염려스럽다.

선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다. 선에서도 오직 두 가지는 배워야 한다. 첫째는 선은 배우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둘째는 그 동안 연구하여 얻은 모든 지식과 상식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배울 것이 없다. 어떤 이는 선의 과정을 연구하여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의 과정은 처음도 놓아야 하고 마지막도 놓아야 한다.

선은 무아(無我)가 되는 법이다. 내가 있고, 나의 지식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으면 선은 없다. "나는 없으면서 있는 존재다", 이것이 선이다. 〈금강경〉에서도 "모든 것을 다 놓아라"고 거듭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너와 내가, 원수와 사랑이, 먼 곳과 가까운 곳이, 이것과 저것이,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절 하는 자와 절 받는 자가, 생과 사가 '하나'임을 어떻게 설명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몰록 놓아서' 스스로 '하나'의 경지를 체험하고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다.

물론 선의 방법론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방법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선을 자신의 상식 속으로, 자신의 관점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것이다. 도는, 내가 도를 얻는 것이 아니다. 나를 도 속으로 버리는 것이다.



서울을 구경도 못해보고 듣기만 한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보다 서울 이야기를 더 잘 하니까, 서울 사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지켜보고 빙긋이 웃는다. 우리 모두 좀 더 겸허함을 갖자.

남영호〈대구 이화선원 원장〉

### 목탁소리

## 불교 도메인 관리 절실

오 종 욱 〈취재2부 기자〉

불교 도메인을 선점한 사람이 불교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고가(高價)에 도메인을 매매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교계의 적절한 대응이 없어 안타깝게 하고 있다.

상용 통신망 네티앙에서 '죠계중'이라는 홈페이지가 버젓이 개설되는가 하면 야후 코리아의 경매 사이트에서 불교 유사 도메인(bulko.co.kr)이 9백 만원에 공시돼, 교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경우는 '홈페이지 해킹' '게시판 비방' 등과는 달리, 상용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불교의 청정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4월 '불교계 도메인 등록·관리 및 웹싸이트'라는 문건을 통해 개인이나 일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불교 도메인을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의 우려가 가상 공간에서 불교의 '상업화'와 '왜곡'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구현된 가상 세계는 이제 현재 사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공간의 '주소'인 도메인이 악용될 경우, 결과적으로 현실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네티앙에 개설된 '죠계중'이라는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보자. 우선 홈페이지 이름이 '저것이 중'이라는 뉘앙스를 풍길 뿐만 아니라, 조악한 디자인의 홈페이지가 한국 불교의 수석 종단인 '조계종'의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사이버 훼불의 심각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간간이 발견되는 사이버 훼불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다만 더 많은 사례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교계'지만, 별다른 제재 방안을 강구하지 못할 뿐이다.

교계 인터넷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훼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교 위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종단 차원의 관리 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00학년도 법사과정 경전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 요일 | 과목 | 교 수 | 내 용 |
|---|---|---|---|
| 월요일 | 법화경(II) | 박종교수 (동산대) | 대승경전의 꽃 법화경! 화엄귀일사상 강의 |
| 화요일 | 밀교의세계(II) | 허일범교수(진각대) | 밀교개론과 대일경·금강정경의 핵심사상강의 |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중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정경

2. 모집방법 및 전형

| 모집인원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원서교부·접수 | 강의일시 및 장소 |
|---|---|---|---|---|
| 정규반(30명) 통신반(30명) |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 2000년 8월 1일~2000년 9월 2일(토) (서류전형) |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

3. 개강일시 · 2000년 9월 4일(월), 5일(화) 오후 7시
4.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매주 2경전)을 이수한 분에게 전법사를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02)732-1206~8 / FAX 02)732-1207

법사양성 전문도량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주부·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연2회(매년 2월,8월)
■ 모집인원 : 200명

1.교과목

1학년 교과목 :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2학년 교과목 : 법화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2.정규반, 주간반, 통신반

3. 문 의 처
☎ 02)732-1206~8 / FAX 02)732-1207

4. 특전사항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추천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2000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2000년 9월 2일 (토) 오후1시 30분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
|---|---|
|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br>·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br>·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br>· 송주 …… 장엄염불 |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br>· 장례의식 (1) …… 일반의식<br>· 장례의식 (2) …… 임종·매장·화장의식<br>·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

2. 모집방법 및 전형

| 모집인원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원서교부·접수 | 강의일시 및 장소 |
|---|---|---|---|---|
| 정규반 50명 | ① 한국불교의식 희망자 ② 포교당 운영자 |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 2000년 8월 1일(화)~9월 2일(토)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3시 (동산법당) |
| 연구반 20명 | ① 한글의식교육 이수자 (1년과정 연수교육) | | | |

3. 입 학 금 · 일십만원
4.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5. 원서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732-1206~8/FAX 732-1207 (10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 천년전 신라로의 시간여행

KYONGJU WORLD CULTURE EXPO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

## 9월1일 개막…71일간 문화잔치

### 첨단과학기술-전통문화 '만남'
### 연극 '도솔가' 오페라 '무영탑' 볼거리

'새 천년의 숨결'을 부처님의 땅 경주에서 만나보자.

지구촌 문화의 큰잔치 '2000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9월 1일~11월 10일까지 71일간 신라의 고도(古都) 서라벌에서 열린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문화의 접목을 통해 새 천년 문화의 향방을 가늠할 이번 엑스포에서는 특히 불교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서라벌의 면모를 알리는 갖가지 주제 행사들이 준비되었다.

특히 이번 엑스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제 영상 '서라벌의 숨결 속으로'는 가상현실(Virtuaul Reality)기법을 활용해 천년 전 경주의 모습을 현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재현해 관심을 모은다. 사이버 영상관에서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가상현실을 통해 '신라의 문화만남(왕경대로, 안압지)', '신라의 자부심(황룡사 9층 목탑)', '신라불교와의 만남(석굴암1)', '신라의 정신세계(석굴암2)', '우리 문화의 황금기 신라' 등으로 구성해 당시 신라로의 생생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영상체험과 함께 입체음향, 꽃향기와 밥내음 등 냄새까지 느낄 수 있는 진일보한 최첨단 기술들이 우리문화 재현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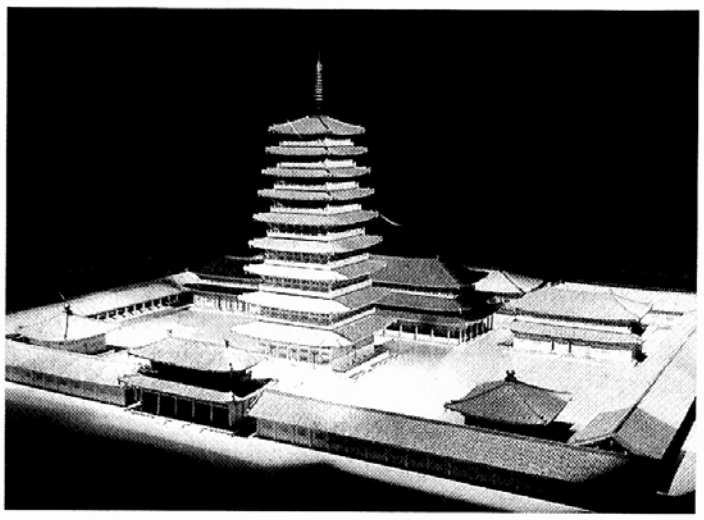
주제 전시 '동방의 빛을 따라서'는 천년 전 동북아의 국제도시로서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대륙과 해양의 앞선 문화를 거침없이 수용해 보다 새롭고 뛰어난 문화를 창조한 조상들의 비결을 배우는 장으로 구성했다. 이번 엑스포의 주제인 '새 천년의 숨결'에 걸맞게 고대 동서교역로를 따라 교류된 유라시아 대륙 각지의 진품 유품은 물론 그래픽, 레이저빔, 사진, 조형물 등을 비교 전시, 연출했다. '도입부', '실크로드와 신라'(돈황석굴, 간다라 미술품, 장보고, 중국속의 신라), '국제도시 경주(불국사, 석굴암, 황룡사)', '새천년의 문화' 등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주제 공연 '도솔가-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연출 이윤택)는 엑스포 공원내 백결공연장에서 매일 2차례(오전 11시, 오후 3시) 60분간 공연된다. 이 작품은 신라의 시인 월명(月明)대사의 사상을 차용해 동서양의 이분법적 구도속에서 상호 이질적으로 인식된 20세기 문화를 극복하고, 동서양의 충돌과 공존이란 새로운 문화적 지평을 탐색하는 총체극이다. 엑스포에 앞서 서울과 밀양에서 공연돼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 특별행사로 9월 29일부터 10월 8일 경주시내 문화유적지에서는 지역 정상급 성악가 등 271명이 출연하는 창작 오페라 '무영탑'이 공연되며, 혜초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을 토대로 그 여행길을 미로로 구성한 '천축국 대탐험전'은 외나무다리 건너기, 페타이어 통과하기, 암벽등반, 퀴즈광장 등을 통해 파미르 고원을 넘어 귀환하던 혜초스님의 의지와 용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엑스포기간 동안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는 '신라기와, 그 천년의 숨결'전도 눈여겨 볼 만하다. 얼굴무늬수막새(人面文瓦當) 등 국내 12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4백여점의 기와와 동물문, 반와당 등 중국 일본의 5개 기관이 본관중인 기와 50여점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사원에서 출토된 기와 70여점을 시대순으로 분류해 사원의 품격변화와 특징을 보여주고, 제작기법과 문양의 변화를 통해 신라기와의 변천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4차원 입체영상 '황룡사 9층탑'**

'2000경주문화엑스포' 사이버 영상관에서 선보일 주제 영상 '서라벌의 숨결 속으로'는 기존의 3차원세계를 구현하는 3D기술에서 한발짝 나아가 4차원을 구현하는 입체영상 기술이다. 정부로부터 80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간 제작된 '서라벌의 숨결속으로'는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김동현교수의 사학적 고증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가상현실기술이 만나 일구어 냈다. 가상현실 시스템 속에 편광안경을 쓰고 들어가면 높이 80m의 황룡사 9층 목탑은 물론, 유리로 가려져 볼 수 없었던 석굴암 안의 11면 관음보살상 등 장엄하고 아름다운 우리 불교문화를 손에 잡힐 듯한 거리에서 볼 수 있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은 전국 7개 도시 순회 자선공연에서 두 손 모아 남북의 통일을 기원했다.

## 불교 소년소녀 합창·무용단
## 통일기원 전국순회공연 '회향'

대한불교소년소녀 합창·무용단이 2일부터 15일까지 북한어린이 의료 장비 및 기초 의약품 지원을 위한 '전국 순회 자선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통일, 그날을 위해'란 주제로 제주, 광주, 서울 등 7개 도시에서 열린 이번 공연에서는 '반야심경' '절에 갔었네' 등 찬불가와 국내외 민요 20여곡이 연주됐다. 특히 15일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열린 마지막 공연에서는 무대위의 어린이합창단과 1천여명의 관객들이 '우리의 소원'을 함께 부르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되새기는 감동적인 무대가 연출됐다.

이 공연을 기획한 불교교육연구원 황학현원장은 "이번 공연의 성원에 힘입어 내년 1월 일본, 대만 등 동남아 순회공연이 계획돼 있다"며 "한국민요와 찬불가를 중심으로 해외 불을 포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국악 FM 방송국 12월 개국

### 불음포교에도 한 몫

빠르면 10월부터는 공연장을 찾지 않더라도 라디오만 틀면 흥겹고 신명나는 국악과 불교음악을 마음껏 감상할수 있게 된다.

국악만 전문적으로 내보내는 '국악FM방송국(99.1Mhz)'이 10월 시험방송을 거쳐, 12월 개국돼 불음 포교에도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국악원은 7일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국악FM방송국이 2개월간의 시험방송을 거쳐 12월 정식 개국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악FM 방송국의 개국은 98년 4월 문화관광부가 국악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방송국 설립 계획을 발표한 지 2년 5개월 만의 성과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에 들어설 70평 규모의 국악FM방송국은 10월부터 하루 6시간 시험방송을 하며, 12월 정식 개국 후에는 하루 12시간씩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방송을 내보낸다. 또 남원국립민속국악원과 케이블을 연결, 남원시 등 전북 6개 시·군에도 2001년 6월부터 전파를 송출할 계획이다. 방송은 정악, 판소리 등 국악이 주가 되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소개와 다락(茶樂), 국악교성곡 등 불교 음악도 곁들여진다.

국악원의 한 관계자는 "불교음악은 우리 민족음악의 정신적 근원"이라면서 "불교음악 가운데 특히 국악적 요소가 강한 현대의 교성곡과 찬불합창곡 등 다양한 장르의 불교음악을 전파를 통해 청취자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 한국 인쇄문화 우수성 '체험'

원주한지문화제 2000

### 9월 2~6일 치악예술관 등서
### '전통종이전' '한지의상전' 등

세계최고의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은 우리가 자랑하는 인쇄문화유산이다. 여기에 전통 한지 제작기술이 어우러져 우리나라 종이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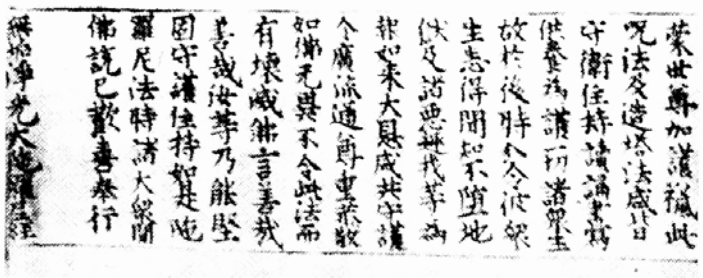
'원주한지문화제 2000'이 9월2일부터 6일까지 원주 치악예술관 일원에서 열리는 것.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전통종이전, 한지의상전, 한지공예전 등의 전시행사와 15세기 대동여지도 제작, 전통한지 및 오색한지뜨기 등 한국인쇄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특히 원주한지문화제위원회와 대장경문화학교가 함께 마련하는 특별체험행사 '원주 한지와 한국목판 인쇄문화의 만남전'은 원주한지에 세계최고의 목판인쇄문화를 결합시킴으로써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행사에는 대장경문화학교 이산각연구소가 재현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목판과 〈신라향가〉, 〈고려가요〉, 〈팔만대장경〉 탁본이 선보이며, 민화, 고지도 축쇄본 등도 전시된다. 또한 관람객들이 현장에 마련된 전시목판으로 전통방식에 따라 〈반야심경〉, 〈화엄경변상도〉, 〈부모은중경〉, 〈제망매가〉, 〈처용가〉 등을 직접 인쇄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마련되며, 인쇄작품은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

행사에 앞서 원주한지문화제위원회 자전거 홍보도우미단은 23일부터 서울 시청앞과 대학로, 인사동, 탑골공원 등에서 '한지사랑 서울시민 자전거 대장정'을 개최하고, 26일부터 전야제가 열리는 9월 1일까지 한지사랑 강원도 자전거 대장정을 갖는다.

원주한지문화제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립한지박물관 유치와 한지테마파크 조성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 원주를 세계적인 한지문화의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033)748-1366



◇이번 행사기간중 '원주 한지와 한국목판 인쇄문화의 만남전'에서는 이산각연구소가 재현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목판을 한지에 인쇄하는 등 체험의 장이 펼쳐진다.

## 전주박물관 '남원 역사문물전' 9월3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은 전북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남원의 역사문물전'을 9월 3일까지 연다.

이 전시회에는 보물 제420호인 실상사 백장암 청동은입사향로를 비롯, 보물 제1198호 기묘제현수첩(己卯諸賢手帖) 등 기존 문화재와 개인 소장품 300여점이 선보인다. 또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 집자리 등을 통해 남원의 생성과 발전을 조명하는 고고분야 전시와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로 이어진 찬란한 불교문화를 실상사와 만복사지 등에서 발굴된 유적을 통해 소개한다. (063)223-5652


두통, 신경통, 관절염, 위장병, 고혈압, 수족냉증, 사십견…

기적처럼 낫는다!



'자기의 병 자기가 고치는' 기적의 대체의학

심천 사혈요법

죽은 피(어혈)만 빼주면 모든 병이 물러간다!

인체의 각 장기와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병원균이 들어오면 싸워 물리치는 '피'가 건강하기만 하면 우리 몸은 늙을 이유도, 아플 이유도 없다. 그러나 신장이나 간기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중금속이 누적되면 생기는 어혈(죽은 피) 때문에 사람은 병들게 되는 것이다.

'심천 사혈요법'은 바로 이 어혈을 직접적으로 빼내어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안전하고도 가장 확실한 자연요법이다.

각종 만성병, 난치병까지도 낫게 하는 '심천 사혈요법'의 그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탈모 변비 근육통 무좀 감기 요실금 생리통 간질 안과 질환 피부과 질환 협심증 당뇨병 우울증 간염 지방간 통풍 저혈압

심천 박남희 지음 | 값 8,000원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심천 박남희 선생
15년 전 입신수양하면서 인체에 대한 탐구 끝에 심천사혈요법을 창안했으며, 10여년 간의 임상경험을 통해 그 놀라운 치료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정신세계사 733-3135 www.mindvision.org



철학박사 慧江 朴永玉 지음

지금은 지장보살시대

지장기도의 영험




지장기도 영험록

영가천도는 왜 해 주어야 하는가?
영가의 장애를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장기도를 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지장기도의 위력에 대한 능력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과 능력을 되새겨 본다.

— 박 혜강 —

우리 대부분의 불자들은 영가왕생발원인 천도재를 올릴 때만 지장기도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십지보살이며 지옥 중생을 모두 제도하시고 현세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까지도 대자대비로 인도하고 구제하시는 보살입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늘과 땅이 울리고 뼛속 깊은 곳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음성!
지장보살님이시여! 현세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액과 고난이 어디에서 올까요? 흔히 말하는 전생의 업장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불자님들은 이 세상의 힘든 모든 일들이 나의 업이려니 하고 체념할 뿐,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현세에서 받는 고통 가운데 50%는 자신도 모르게 지은 전생의 업이고, 나머지 50%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연을 맺은 수많은 인연법과 수많은 조상님의 영향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불자님들의 답답함에 속시원히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많은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의 위신력이야말로 어떠한 글과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두서없는 글로 인하여 부처님이 욕되지 않기를 빌고 또 빌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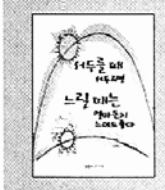
■저서/초발심자의 기초교리 지금은 지장보살시대

대한불교 관음사 관음불교 교양대학 주지 박 영옥(혜강) 합장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16의 1호
TEL : 02)917-3854, 917-0408 FAX : 02)3675-3854

## 여름 막바지 교법사들이 권하는 '읽을 만한 불서'



여름이 막바지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여행이나 놀이 등으로 일관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때다. 불교종립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가르치고 있는 교법사들을 통해 심신함양에 도움이 될만한 불서를 추천 받아 소개한다.

교법사들이 추천한 불서들은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부처님 말씀들이 주종을 이룬다. 〈우리도 부처님같이〉(불일 퍼, 김재영 지음, 값 2천5백원), 〈서두를 때 서두르면 느릴 때 얼마든지 느려도 좋다〉(시공사 퍼, 유동호 외 지음, 값 6천원), 〈윤회의 비밀〉(장경각 퍼, 값 6천5백원), 〈인간붓다〉(박수일 지음, 값 8천원), 〈자기를 바로봅시다〉(장경각 퍼, 성철 지음, 8천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몇몇 교법사들은 민족사의 작은 경전시리즈 처럼 불법 세계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경전류들도 권한다. 이러한 불서를 선택한 교법사들은 학생들에게 다소 어렵지만 정독하다 보면 자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추천의의를 설명했다.

사찰관련 불서들도 적지 않다. 〈명찰순례 1·2·3〉(대원사 퍼, 최완수 지음, 값 8천5백원),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해들누리 퍼, 정찬주 지음, 값 8천원)를 비롯 사찰문화연구원의 전통사찰총서시리즈 등이다. 이 불서들은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교법사들은 이런류의 책들은 처음부터 읽지 말라고 조언한다. 인연 닿는 사찰이나 관심 있는 부문만을 골라 읽으면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교법사들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범우사 퍼, 값 6천원), 광식의 〈한국불교 100년〉(민족사, 5천8백원), 프레데릭 렌즈의 〈히말라야에서 만난 성자〉(황금가지 퍼, 값 9천원), 현각 스님의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1·2〉(열림원 퍼, 값 7천원) 등을 꼽았다.

김중근 기자

# '불교는 무엇인가' 궁금증 풀린다

## '쉽게 깊이 읽는 불교입문' 주민황 옮김

### 스리랑카 나라다 스님의 역작
### '불교 본질' 이해쉽게 소개



부처님 일대기나 불교의 기초교리를 한번 정도 읽어보지 않은 불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큰 대수인 양 가볍게 여기는 불자들도 만만치 않다. 불자들의 인식이 이렇다보니 '부처님은 누구인가', '불교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은 몇몇 불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의외로 폭이 크다는 것이 스님들의 중론이다. 부처님의 사상과 불법을 일별한 〈쉽게 깊이 읽는 불교입문〉(숨)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나에게 부처님 일대기나 기초교리는 필요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은 곱씹어볼 만하다. 부처님의 일생에서부터 불교의 근본진리, 그리고 주요 경전까지 깊이 있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자들이 불교의 사상과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펴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불교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불교에 대해 공부했지만 확실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불교의 참 의미를 일깨워 주는데 부족함이 없다.

또한 불교의 개요를 명료하게 다루고 있어 배우는 사람들뿐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교본으로 삼을 만하다.

이 책은 우선 부처님의 일대기를 간략히 살피면서 그 특징적인 사건들을 적고 있다. 불교 가르침의 근원인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위대한 성자로서 부처님이 가슴속에 각인될 것이다. 업과 윤회, 사성제 등의 핵심교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행운경〉, 〈자비경〉 등 짧은 경전도 실려 있어, 불교의 가르침이 설해진 형식을 맛볼 수 있다. 이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뇌했던 인간적인 모습과 그가 깨우쳤던 불법의 정수, 그리고 경전들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적고 있는 점은 돋보이는 미덕이다.

글쓴이는 스리랑카의 고승이자 세계적인 포교사 나라다 스님. 그가 일생을 바쳐 집필한 역작을 빠알리를 공부한 주민황(동국대 인도철학) 강사가 옮겼다. 나라다 스님은 빠알리 경전을 저본으로 이 책을 저술했기 때문에 빠알리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에게 낯설은 단어들이 자주 등장한다. 닙바나(니르바나), 깜마(까르마), 담마(다르마) 등이 바로 그것. 하지만 불교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이런 빠알리나 불교용어를 접어두고 읽더라도 불교의 본질 이해를 방해하지 않는다. 옮긴이가 빠알리어를 쓴 것은 사실증명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불교가 초기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그 당시의 언어인 빠알리를 접하면서 읽는다면, 불교가 역사적인 사실로서 더욱 실감나게 다가 올 것이다. 값 8천9백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물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다 한다'

## 산문과 시로 만나는 인도의 성자 까비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베짜는 하층민으로 살았던 인도의 성자 까비르(1440~1518). 그의 노래는 지금도 수행자나 인력거꾼, 그리고 농부나 상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다.

까비르의 시와 산문 101편을 엮은 〈물 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다 한다〉(지혜의 나무)가 우리말로 출간됐다. 이 시편들은 단순하게 읽히면서도 '삶이란 이것이다'고 각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지고한 영혼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창조되는가,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까비르는 이 책에서 답하고 있다. "진리는 자기 속에 잘 숨겨져 있으므로 자신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결코 찾을 수 없다고."

이 책의 또 다른 가치는 서정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도의 명상적인 자연을 묘사해 아름다우며 그 안에 깊은 종교와 철학성이 함축돼 있다. 즉 까비르의 삶과 노래는 인도의 자연풍토와 종교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표현들이다. 그 초월적인 세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시와 산문들은 인도의 경전인 베다, 우파니샤드 등의 여러 경전을 압축시켜 표현한 것들이다. 그의 아름답고 초월적인 노래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현대인들의 지식과 감성을 고루 살찌울 것 같다. 값 6천5백원. 김중근 기자

## 혜경 스님 산문집 '약간 삐딱하게 사는 것도 바로 사는 것이다'



혜경 스님(제주 법장사 주지)이 산문집 〈약간 삐딱하게 사는 것도 바로 사는 것이다〉(하남)를 내놓았다. 언뜻 보면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는 제목의 책. 하지만 이 책에는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빼곡이 담겨 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은 때로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잦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란 비합리적인 것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올바르게'만을 강요받는다. 그런 모범답안을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가는 경우가 탈선이다. 이 책은 글쓴이가 산문 안에서, 또는 산문 밖에서 '삐딱하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홀어머니슬하에서 착하게 자라다 건달 청년이 불쌍해 그와 동거했지만 실패한 한 여대생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글쓴이는 만약 그 여학생이 친구도 많이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면 대처방법은 분명히 달랐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이 책에서는 우리가 소홀히 지나치는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문제들이 담담하게 펼쳐지고 있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부처님이 들려주는 효이야기'

## 불교학자 7명 효사상 집중조명



"불교의 효 윤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한다는 보편적 지은(知恩)·보은(報恩)의 사상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상·하 종속의 수직적 윤리가 아니라 호혜평등의 수평적 윤리이며,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윤리이다."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학)는 '현대사회와 불교의 효사상'을 통해 이렇게 정의한다.

신간 〈부처님이 들려주는 효 이야기〉(조계종 출판사)는 월운(동국대 역경원장) 스님 등 동국대학교에서 강의와 역경에 참여하고 있는 7명의 학자들이 〈부모은중경〉을 중심으로 불교의 효사상을 조명한 책이다.

이 책에는 월운 스님의 '부모은중경 강화', 신성현 연구교수의 '불교경전에 나타난 효', 김상현 교수의 '〈삼국유사〉 효선편의 불교적 의미', 김상환(고려대 강사) 역경위원의 '성덕산 관음사 연기설화', 김용표 교수의 '불교적 가정교육의 방향' 등 7편이 수록됐다. 값 6천원.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 새로나온 책



▲사랑과 바람의 시(현호 지음, 정화사)= 승려시인 현호 스님의 6번째 시집. 발심부터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여정이 녹아 있다. '생명의 길', '행복의 문', '기다림', '깨어나라' 등 60여 편의 시가 수록된 이 시집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간적 갈애를 묘사하고, 그 속에서 원초적 고뇌를 딛고 다시 태어나는 진실한 삶의 길을 잔잔하게 보여주고 있다. 값 4천5백원.



▲태산풍류와 섬진강(송수권 지음, 토우)= 소월·지용 문학상을 수상한 송수권 시인의 풍류문화 답사기. 섬진강 발원지에서 530여리 흘러흘러 남해에 이르는 길을 따라 풍류의 원류와 장강 속에 남은 역사 흔적들을 찾아낸다. 풍류의 계보와 남도의 강줄기를 모직시켜 실제로 강물을 따라가며 풍류정신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한 이책은, 태산풍류와 섬진강, 안땅의 정신 모악산 금산사를 찾아서, 동학혁명의 전승지를 찾아서 등 모두 11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계산풍류와 영산강〉, 〈천관풍류와 탐진강〉도 출간할 계획이다. 값 9천8백원.



▲환단고기 1(문재현 역음, 바로보인)= 안함로의 '삼성기전' 상편, 원동중의 '삼성기전' 하편, 이암의 '단군세기', 범장의 '북부여기', 이백의 '태백일사' 등 다섯권으로 이루어진 〈환단고기〉가 새롭게 출간된다. 이 책은 그 첫번째 권으로 삼신일체사상을 총정리하고 있다. 2권은 태초부터 단군조선에 이르는 역사를, 3권은 북부여부터 고구려, 발해, 고려의 역사를, 4권은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연구, 규명해 놓을 글들을 수록할 예정이다. 값 1만2천원.



▲직장인을 위한 그림치료(장성철 지음, 북하우스)= 동양의 오행사상에 근거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그림 치료책. '동양인의 체질에 맞는 멀티테라피 새 그림치료 두 번째 권으로 감기, 관절염, 소화불량, 두통 등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을 위한 색채치료그림 및 효과와 자가치료그림(도형방식 치료법·선을 이용한 체조법), 그리고 그림치료 실제 사례를 담고 있다. 글쓴이는 장성철 교수(중앙대 예술대학원 멀티테라피학회장). 값 1만원.

▲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김형효 지음, 청계)= 하이데거의 철학과 불교사상에 대해 비교철학적으로 접근. 전기 하이데거는 유식학적으로, 후기 하이데거는 화엄학과 선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값 1만5천원.

▲우리 나라 다시 본다(김덕형 지음, 창작시대)= 사회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체제를 마련하지 못해 멸망한 고구려, 대외 정세에 대한 폐쇄성 때문에 망국의 길을 걸은 백제…, 역대 왕조 흥망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값 9천원.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 서 명 | 저·편자 | 출 판 사 |
|---|---|---|---|
| 1 | 선방일기 | 지 허 | 여시아문 |
| 2 | 법구경(작은경전1) | 지 현 | 민 족 사 |
| 3 |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 달라이 라마 | 문 이 당 |
| 4 | 영가천도 | 우 룡 | 효 림 |
| 5 | 전통사찰음식 | 적 문 | 우 리 |
| 6 | 지대방 이야기 | 승광사 강원 | 법 공 양 |
| 7 | 5박6일 명상체험기 | 김 남 선 | 불 광 |
| 8 |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 일 타 | 불교시대사 |
| 9 | 부처님 말씀 | 성 열 | 현 암 사 |
| 10 | 물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다 한다 | 까 비 르 | 지혜의 나무 |

도서 안내:(02)737-0695


신간
설 교수가 안내하면 혼자서도
전생 가기 참 쉽다
설기문 지음 / 값 8,500원 •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전생 다녀오는 시간
45분
전생 유도 테이프 포함

국내 최초의 전생 매뉴얼북
• 전생 유도 테이프에 의한 최면으로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방법.
45분짜리 테이프를 한 번 또는 두 번 듣기만 하면……
• 펜듈럼 · 점막대 · 손가락 · 거울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마술과도 같지만 분명한 사실. 거울 속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 꿈과 상상을 통해서
내가 말을 건네면 꿈은 반드시 응답한다.
• 현재의 나와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나는 전생의 가장 완벽한 증거. 주의 깊게 주위를 다시 보면……



설기문
동아대 교수 · 미국 공인 최면 전생 치료사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미국 인터내셔널 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객원 교수 역임.
KBS TV 〈미스터리 추적〉을 포함한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
• 전생 유도 테이프에 보호령이 설치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생을 알고 나면 ➡ • 몸과 마음, 대인 관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풀린다. • 세상이 전과 다르게 보인다. 02)738-0931

교보, 영풍, 을지, 서울, 영광, 동보서적 베스트셀러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방해했다
지금의 처지가 다음과 같다면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해 왔다.



• 평생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다면
세상은 낙낙지 않아 살아남으려면 고생해야 돼.
• 이제껏 제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었다면
난 안 돼. 나에겐 문제가 많아.
• 만나는 사람마다 좋지 않게 헤어졌다면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야. 믿을 수 없어.
• 사귀는 남자(여자)마다 어느 선 이상 친해지지 못했다면
사랑은 위험해. 이 사람도 결국 나에게 상처만 남길 거야.

생각은 보이지 않는 씨앗. 그렇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나와 세상을 뿌리부터 바꾸고 싶다면 나,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씨앗은 때와 조건을 만나면 싹트게 마련이니까.

세계 26개국 베스트셀러. 영어책만 300만 부 판매!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
삭티 거웨인 박윤정 옮김 값 6,900원

# "한국 밀교연구 세계적 공유"

## 벨기에 폴 교수 '불교문화硏 초청강연회'서 주장

"한국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융합되어 있는 밀교에 대한 연구를 빼놓을 수 없지만, 정작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국 밀교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

10여 년간 밀교를 연구해 온 반든부르크 폴(겐트대 · 벨기에 · 사진) 교수는 16일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세미나실에서 열린 불교문화연구원의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에서의 밀교 연구와 그 성과물의 세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이날 '한국불교문화의 세계적 조명-서구학자가 본 한국의 밀교'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폴 교수는 "인도 · 중국 · 일본 · 티베트 등과 교류하며 발전한 한국의 밀교는 아시아의 밀교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창구이지만, 서구에서는 아직까지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의 밀교 연구가 부족하고, 그 성과들이 해외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학자간 교류 부족 연구성과물 외국어 번역 필요"

폴 교수에 따르면, 그 동안의 연구 과정에서 접할 수 있었던 한국 밀교 관련 저술들은 〈Die Religionen Koreas(한국의 종교)〉(프리츠 포스 · 1977), 〈Korea:A Religious History(한국: 종교역사)〉(제임스 헌틀리 그레이슨 · 1989),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to Korea(한국불교의 소개)〉(차이신 유 · 1989), 〈The Assimilation of Buddhism in Korea(한국에서의 불교의 동화)〉(루이스 랭카스터 · 1991), 〈Esoteric Buddhism in Korea(한국의 밀교)〉(헨릭 서렌센 · 1993) 등 5권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밀교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90년대 초, 동국대 · 위덕대 · 중앙승가대 · 진각종을 중심으로 한국 밀교에 대한 연구 성과를 쌓아가고 있지만, 일본 · 독일 · 티베트 등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국내 · 외 학자간 교류 역시 부족해 연구 성과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 · 출간하는 후속 작업이 없어, 외국인 학자들에게 한국 밀교의 가치를 알리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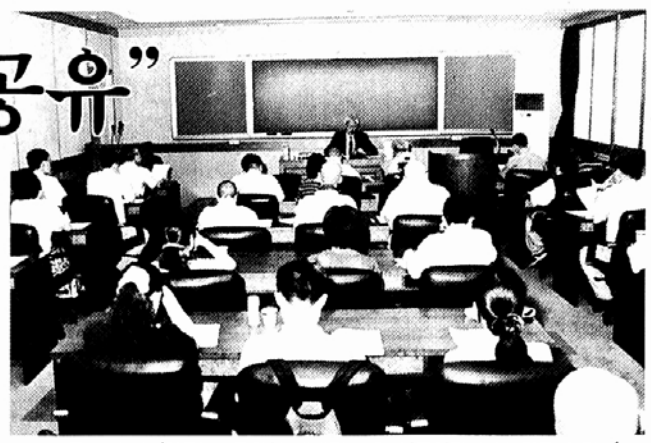
이에 대해 폴 교수는 "'밀교문헌연구 부족' '밀교학파 해체' '밀교예술 전통 단절' 등이 한국에서 밀교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며 "따라서 문헌과 의례집 그리고 예술품에 대한 목록을 정리하고 밀교경전에 대해 해제 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한국 샤머니즘과 선불교에 녹아있는 밀교적 요소를 찾아 분석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며 한국에서의 밀교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

불상이나 탱화를 조성하면 그 복장으로 다라니를 끼워 넣고, 조석예불에서 '대신주, 대명주, 무상주, 무등주'라는 진언을 읊는다든지, 천도재를 올리는 법주는 여러 가지의 수인(手印)을 짓는 것과 같이, 한국불교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밀교적 요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폴 교수는 결론에서 "한국 밀교는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한국불교의 현 모습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며 "이러한 한국 밀교가 세계에 알려진다면, 외국인 학자들이 한국불교, 나아가 아시아 밀교까지도 바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든부르크 폴 교수는 일본, 중국, 티베트에서 10여 년간 밀교를 연구했고, 현재 벨기에 겐트대학 남 · 동아시아 문화와 언어학 학과장을 맡으며, 한국문화교류재단의 후원으로 한국밀교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폴 교수의 '한국불교문화의 세계적 조명-서구학자가 본 한국의 밀교' 주제 강연을 40여 명의 국내 학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 "한국불교 정체성 탐구 학자·스님 사견 치우쳐 혼란"

## 길희성 교수 주장



"지금까지의 한국불교 정체성에 대한 주장이나 조계종의 성격과 정체성을 둘러싼 여러 주장들은 객관적인 역사적 고찰에 입각한 것이기보다는 학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했다"

길희성(서강대 종교학 · 사진) 교수가 〈한국종교연구〉 제2집에 '한국불교 정체성의 탐구'을 게재하고, "'조계종 종조는 누구인가' '한국불교를 통불교로 보아야 하는가' '한국불교의 종파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등과 같은 한국불교 정체성을 묻는 제 연구들이 학자들의 이념에 치우쳐 혼란스럽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길 교수에 따르면 한국불교의 최대 종파인 조계종의 정체성 문제는 곧 한국불교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인 데 반해, 학계에서는 추상적인 논의로 일관해 한국불교의 실제 모습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불교학계는 조계종 법통을 놓고 '지눌 혹은 보우' 스님이라고 주장하는 두 진영으로 서로 양분되어 있는데, 서산대사 이후 선가의 전통을 따른 임제선에 얽매인 일부 스님과 학자들이 선교(禪敎) 융합이라는 한국불교의 역사적 특성에 주목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쟁'에 말려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길 교수는 "그들의 주장을 학설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일부 스님과 학자들의 개인적인 신념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지 애매한 면이 없지 않다"며 "법통과 같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역사적 연구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제선에만 주목해, 보우 스님 법통설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불교의 전통과 현실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길 교수는 "현 조계종이 자신의 성격을 순수 선종만으로 편협하게 정의하지 않는다면, 선을 위주로 하면서도 동아시아 불교 전통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위치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오종욱 기자

# 제주 월정사 불상 2기 도문화재 신청



◇제주시 월정사가 11일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신청한 목조보살입장(고려말 제작).

고려말과 조선후기에 각각 제작된 불상 2기가 한꺼번에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신청됐다.

제주시 오라동 월정사(주지 지문)는 11일 고려말~조선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보살입상과 조선후기 것으로 보이는 흙으로 빚어 만든 니조여래좌상에 대해 각각 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향나무로 만들어진 길이 78.5cm, 폭 20.5cm 크기의 목조보살입상은 머리에 화려한 금속제 보관을 썼으며, 상호는 원만하고 목에는 삼도를 두르고 있어 전체적으로 인자하면서도 근엄한 인상을 풍긴다.

또한 높이 59cm, 폭 24.5cm의 흙으로 조성된 니조(泥造)여래좌상은 머리 위에 높직한 육계가 있고 상호는 원만하나 경직되어 있다. 제일 겉에 입은 옷은 양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이며 수인은 왼손의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고, 오른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걸쳐놓았다.

정영호 문화재위원(한국교원대 명예교수)은 "목조보살입상은 화려한 보관과 유려한 의문(衣紋), 목과 가슴 등에 늘어뜨린 장신구가 뛰어나다. 또 제주에서는 보기 드물게 진흙으로 빚어진 니조여래좌상은 상호 각 부분의 표현이 섬세하고, 단정하고 안정감 있는 자세 등을 볼 때 조선 후기에 조성된 불상으로는 수작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 두 불상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제주도 내 불상으로는 17세기에 조성된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제주도유형문화재 제16호)에 이어 두번째다. 제주도에는 이밖에 불탑사 오층석탑(보물 제1187호 · 고려말)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학술단신

### 해방당시 제주 교적부 발견

해방당시부터 4 · 3 제주항쟁까지 제주도에서 활동했던 스님들의 행적과 사찰연혁 등이 기록된 문헌자료가 발견됐다. 태고종 제주종무원(원장 수암)은 최근 문서보관실에서 해방당시 제주도에서 활동했던 스님들의 행적, 수행이력 등이 기록된 교적부와 이력서 등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모두 5권으로 각각 A4용지 60-70장 분량이며 당시 사찰의 규모와 역사를 비롯해 재산관리 내역 등을 보여주는 문헌도 함께 들어있다.

### '우란분재와 목련전승…' 발간

우란분재와 목련전승에 대하여 그 실상과 문화사적 위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우란분재와 목련전승의 문화사적 조명〉이 발간됐다. 중앙인문연구원(원장 사재동)이 2000년도 우란분재를 맞아 펴낸 이 학술지에는 '경전에 나타난 사후세계'(조용길), '업과 윤회설의 재조명'(김성환), '지장보살과 한국의 구원사상'(이인혜), '장례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영혼관'(김태곤) 등 한 · 중 불교학자들의 30여 편을 수록했다. (042)624-2626

##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 티베트 여성회 친구

## 여성 지위와 역할 소개 다양

티베트 여성의 지위와 그 역할을 엿보고 싶다면 티베트 여성회 친구(Friends of Tibetan Women's Association) 사이트를 '클릭'하면 된다. 티베트 여성회가 개설한 이 사이트는, 현재 일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무려 5천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회는 1959년 4월 12일 티베트 라사에서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무력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수천 명의 티베트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결성되었다. 당시 포탈라궁 밖에서 평화적인 항의 시위를 벌이던 수많은 여성들은 중국 군인들에 의해 야만적인 수모를 겪었으며 또한 상당수의 여성들은 재판도 없이 투옥되어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 뒤 1984년 해외에 망명중인 수많은 티베트 여성들에 의해 정식으로 재조직되었으며, 인도 및 네팔 등 해외에 36개 지원 · 지회를 두고 있다.

티베트 여성 불자들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여성회가 개설한 이 사이트에는 '유명한 여성 불자' '여성불자 캠페인' '경전 속의 여성' '여성불자 수계식' '부처님의 여성성' 등의 메뉴가 개설되어 있다.

'유명한 여성불자'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자의 이름과 작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불자 캠페인'은 학술 · 문화계의 여성불자를 소개하고 있다. 또 '경전 속이 여성'은 담마디나 등 부처님의 여성 제자들 삶과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성 제자들이 경전에서 보인 성격과 행동 등을 현대로 옮겨 놓고 소설처럼 새롭게 구성한 인물 평전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여성불자 수계식'은 티베트 경전을 토대로 사미니계와 비구니계를 설명해 놓고 있으며, '부처님의 여성성'은 티베트 불교계의 여러 불상과 탱화에 나타난 여성성을 조명하고 부처님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닝마파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부처님으로 추앙받고 있는 에카자티를 비롯해 루루쿨라 등 28종의 불상이 소개된다. 에티카는 하나의 머리, 눈, 입, 가슴 등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다. 또한 '메일보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불자 네티즌들이 이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구니로서의 삶' '티베트여성 보고서'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서도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는 티베트 · 인도 및 해외 망명지에 있는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과 연대해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중에서 최근 티베트에서 해외로 망명한 비구니 스님들이 티베트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위를 벌이는 과정을 소개한 것이며,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교육 · 복지 프로그램 등이 열람할만한 정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http://www.fotwa.org/




담원 석혜경 스님의 들풀 내음 물씬한 사색과 수행이야기!

화제의 신간 절찬리 판매중

약간 삐딱하게 사는 것도 바로 사는 것이다



담원 석혜경 스님의 들풀 내음 물씬한 사색과 수행이야기!

올바름, 또는 선(善)하다는 관념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자유롭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절대적이라 믿고 의지하는 신념마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그 눈이 삶의 깨달음을 주는 지혜의 눈인 것이다.

한세상 후회 없이 살면서 부처님 같이 크게 깨달아 달 그림자 뜨락을 쓸 듯, 자취 없이 적멸(寂滅)에 들 수 있다면 내 인생도 또한 정말 행복한 매무새라 할 것이다.
– 본문 中에서



값 7,000원 / 신국판 / 240쪽

경인방송 화제의 프로그램
『아침을 여는 선체조』 모음

마음으로 따라하는
무심행 禪체조



값 9,000원/신국판/304쪽
배규원 지음

선체조는 몸과 마음이 질병과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방법을 수련자에게 가르쳐주는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운동법이요 치료법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 있을 정도의 힘만 있다면 자신의 체력에 알맞은 만큼의 운동량을 받아들여 몸과 마음을 진실되게 만들 수 있다.
선체조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아나가는 수련법이다.

화제의 책 절찬리 판매중

하남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02호 / 전화 02)720-3211 · 팩스 02)720-0312 / 홈페이지 · http://www.hnp.co.kr

#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나

박태원 교수가 쓰는

## 불교로 보는 인생

### 프롤로그

얼마 전 미국 도시 한 호텔에서 젊은 청년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술에 만취하여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이 청년의 시신을 부검해 보니 간은 알콜 중독으로 망가져 있었고, 가방에는 쓰다 남은 약간의 돈과 갖가지 성 기구들로 가득하였다. 술과 관능에 찌들어 휘청거리다 횡사한 부랑아쯤으로 간주했던 경찰은 신원 조회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다. 그는 컴퓨터 파일을 압축하여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숨에 부와 명예를 움켜쥐었던 천재였던 것이다. 뛰어난 지능, 돈 되는 지식 하나로 일약 거부가 된 이 시대 지식 정보사회의 대표적 스타였다. 그런 그가 불과 몇 년 안에 심신이 망가져 비명 횡사한 모습으로 다시 세인들의 시선을 모은 것이다. 그의 모친의 증언인 즉, 벼락부자가 된 이후 부모에게는 연락 한 번 없었다고.

지식 정보사회의 황금 어장에 의기양양하게 출범하는 우리와 이 비극의 스타는 상관없는 것일까? 벤처와 신지식인의 영웅담에 가슴 설레는 우리들의 삶과 그 스타의 허무한 인생과는 무관한 일일까? 부처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과 이 일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느 덧 40대 중반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신 지 벌써 10년을 지냈고, 공자님은 '내가 걷는 길에 비틀거림이나 헷갈림이 없는 나이(不惑)'였음을 자신 있게 회고했던 시기이던가. 걷는 걸음걸음의 그 당당함, 긍지와 확신, 보람과 만족으로 환한 얼굴, 목적지에 대한 탄탄한 확신과 흔들림 없는 힘찬 행보. 만고(萬古)의 사표(師表)들이 펼치는 늠름한 위용이다. 그런데 시선을 지금 우리의 발 밑으로 던지면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들이 펼쳐진다.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 속내를 듣다보면 2000년 한국의 성실한 40대 중반들의 공허한 마음들을 절감하게 된다. 그들은 활력과 경륜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갖추어 화려하다.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여 한국 사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역량과 성취의 외관은 실로 빛난다. 그러나 요란한 갈채를 뒤로하고 면벽(面壁)하여 자기를 대면하는 때, 이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짙은 허탈과 허무의 념(念)은 황량하기만 하다. 인정받는 중견 간부, 자리 잡힌 경제와 가정, 구제 금융 시대의 그 험난한 파도에도 침몰하지 않고 헤쳐 나온 굳센 의지와 성취는 분명 빛나는 전공(戰功)이 아니던가? 자부심과 긍지, 보람과 만족으로 든든해야 할 그들의 마음이 어째서 짙은 허무의 그늘 아래 헛헛해야 하나?

### 길 한번 잘못들면 나와 남 모두 망쳐

### 공허감 없는 인생항로 불교서 모색

그들은 이렇게 속내를 토로한다. "분명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했다. 그런데 무언가 잘못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헛걸음하고 있다는 생각이 커져간다. 도대체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것, 내 성취라는 것들, 직장, 예금, 가족, 명예 그 어느 것도, 결국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들처럼 일순간 나를 떠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아무리 그것들에 그럴듯한 의미를 부여해도 허전함을 떨쳐버릴 수는 없다. 내게 남는 견실한 성취라고 할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흔히들 인생관을 말한다. 쉽게 말해, 걸어가는 인생 길에 대한 안목이나 선택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인생관의 의미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헤아려 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열심히 걷는 일이 능사가 아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곳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어디로 가는 길인가 곰곰이 따져 보지 않고, 목적지에 대한 깊은 사려 없이 남들이 몰려가는 길 위에 떠밀리다시피 올라선 후, 남들에 뒤쳐질세라 기를 쓰고 한참을 달린다. 그리하여 그런 대로 선두 그룹에 속하여 우쭐거리는 순간 퍼뜩 떠올리는 생각. "어,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어디로 걷고 있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가?"

노력이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낭떠러지로 연결된 길을 열심히 달리는 것은 명백히 자기 파멸적이다. 길 한번 잘못 들면 자기 망치고 남도 해친다. 천재 스타의 비극, 허무감에 한숨짓는 이 땅의 성실한 노력인들의 문제 역시 그 기본은 길의 선택에 있다. 지금 걷는 길이 공허하고 불안하다면, 우리는 또 어떤 길에 눈길을 두어야 하나? 오랜 세월 검증 받은 해답은 있다. 이제부터 그 실마리를 더듬어 보자.



약 력 박 태 원(45) 교수는 한양대 법학과를 거쳐, 고려대 철학과 대학원에서 불교철학으로 석·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울산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사람은 어디서 와서 죽어 어디로 가는가"

## 법회중계

### 거사림회 정기법회

〈2000년 8월 20일〉



혜안 스님
〈유가사 주지〉

### 욕심대로 행동하면 미물
### 자비마음 쓰면 전륜성왕
### 세상사 마음따라 달라져

옛 성현이 이르기를 "이 몸이 나기 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이며, 이 세상에 태어난 뒤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한세상 살면서 사람노릇 하는 것이 나라고 하더니 눈 감은 뒤에 나는 또한 누구인가.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 세상에 왔으며 또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가? 누가 이 모든 진리를 말하여 주겠는가!"

성현이라야 능히 성현을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허공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은 이 우주 법계를 다 내 집이라 여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은 허공같이 마음이 넓고 크신 분입니다.

대롱으로 허공을 보면 대롱만큼만 보입니다. 그것을 관경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치로 우물 안에서 허공을 보면 우물만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허공을 바라보면 광대무변한 본래의 허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커지고 작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자리를 가지시겠습니까?

내 자신만 생각하는 야비한 욕심으로 처신한다면 미물이 될 것이고, 중생(衆生)을 붙쌍히 여기고 보살피는 대자대비의 광대무변한 생각으로 마음을 크게 쓰면 온 천하를 통치하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될 것입니다. 삼천 대천 세계를 손바닥에 구슬 굴리듯 하시는 석가세존과 같은 성현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사(우주만물)는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주를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법기(法器)라 하셨습니다. 삿됨과 욕심과 어리석음을 비워 버린 청정본래의 법기를 준비하고 잘 닦아(修道)놓아야 합니다.

중생들은 각자의 법기에 따라 그 이익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의 법기는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스로 마음의 작용에 의해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하고 현명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삼국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 말 경순왕이 덕망 높은 고승을 청하여 국가에서 재를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유명한 사찰에 고승대덕을 추천하라고 명을 내렸는데 추천하는 고승이 없었습니다. 입제할 시간은 다 되어가고 법사는 없고 애타게 기다리는데 남루하고 형색이 초췌한 대풍창(나병)이 걸린 스님 한 분이 자원하여 들어왔습니다. 마침 재는 준비되어 있고, 스님은 없는지라 그에게 하는 수 없이 국가의 재를 주재(主宰)하게 허락하였습니다.

재는 끝나고 왕은 스님을 불러 "차후에 어디를 가시던지 스님께서 국재를 주재했었더란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마세요" 라고 당부하자 그 스님은 "대왕께서는 누가 묻더라도 문수보살이 국재를 주재했었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하고는 동자로 변하여 홀연히 가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대왕은 깜짝 놀라 행장도 갖출 새 없이 뒤따라갔지만 스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처럼 잠시 잠깐이라도 어리석은 마음을 내면 부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수승한 위신력을 미처 깨닫지 못함에서 오는 중생심이 원인입니다. 작금의 우리는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만 앞세우는 우둔한 행동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주인공인 우리들에게 "사람 몸 받기도 어렵고 사람 몸 받아도 올바른 법 만나기 어렵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널리 우주를 포용할만한 마음씀씀이로 한 세상 살아갑시다.

정리=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 환경 등 사회참여 강화 '90년대 흐름'

## 세계의 불교학 〈23〉 미 국 ⑤

90년대 이후 미국불교의 현황을 살피는 데 있어, '뉴욕 타임스'의 1996년 6월 26일자 기사는 시사하는 바도 크다. 이 기사는 20여 년간의 신축 공사를 마무리 짓고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티베트계 사찰 오디안을 다루고 있는데, "고대 불교의 새로운 장이 미국을 통하여 펼쳐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어서 2천 5백여 년 전 인도에서 시작하여 남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월남, 티베트 등에서 발전해 온 불교가 미국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으며, 1996년 뉴욕 주립대 조사에서 미국의 불자 수는 약 80만여 명으로 파악되었지만, 그 수의 두 배 내지 세 배는 될 것이라는 다른 불교 조사 기관의 주장도 전하며, 불교 센터 수의 빠른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과거 엄숙하고 소박한 형태의 선불교를 선호했던 미국인 불자들이 흥미롭고 화려한 티베트 전통의 불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불교의 종교 및 철학적 측면 외에 문화적 관심과 활동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정토진종의 미국식 이름인 'Buddhist Churches of America(미국의 불교 교회)'로 이름 지어진 사찰 수는 하와이만 해도 수 십여 개며, 여기에서 십만 여명의 불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본토에는 동일한 이름의 사찰이 캘리포니아에 44개, 워싱톤에 5개 등 여러 주에 걸쳐 60여 개나 개설되어 있는데, 이를 선종·상좌부·티베트계 사찰 수와 합치고, 이 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국인 불자 수를 추론한다면 2백여 만 명은 넘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 티베트불교 관심…불자 200만 '급증'

### 사이버 신행·종교간 대화도 활발

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미국 불교계 특징은 기존 불교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승단(Cyber Sangha)의 형성과, 이에 따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불교인 공동체의 출현을 꼽을 수 있다. 즉, 급속히 진보하고 있는 '인터넷' 기술문명이 불교의 포교에 새로운 방편이 되고 있으며, 인터넷 포교에 참여하고 있는 불자 가운데 미국인 불자들이 70~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기독교 등 타 종교와의 대화와 경제 및 환경 문제 등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대응 역시 적극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이를테면 1996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켄터키주의 게세마니 수도원에서 열린 '수도자들의 종교간 대화(Monastic Interreligious Dialogue)'는, 기독교인과 동반자 관계를 시도하는 불교인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게세마니 수도원은 세계적인 문필가로 주목받던 트라피스트 수도사 토마스 머튼이 살았던 곳으로, 친불교적이었던 그의 정신세계를 되새겨 보게 하는 곳이다. 이 대회에는 달라이 라마와 캄보디아 경화 지도자 마하 고사난다, 미국 불교의회 공동 의장 라타나사라 스님, 일본 하나조노대 선학연구소장 니시무라 스님 등 불교계 대표 25명과 바뷰 신부, 베통 신부, 미국의 주교인 게리 신부 등 가톨릭계 대표 25명을 비롯해 홉킨스, 브라운, 에크, 커신, 미첼 교수 등 불교·가톨릭계의 저명한 학자들도 참석해, 두 종교간의 이해와 협조를 논의했다.

또한 4년마다 '불교·기독교학회 국제회의'가 하와이·버클리·보스톤·시카고 등지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회의는 학회 이름이 시사하듯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종교가 지구촌 문제에 어떻게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감대 형성에 나선 학자적인 노력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약 600여 명의 학자와 활동가들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다양한 연구 발표와 그룹 토론을 통해 사회 현안들을 분석·검토했고, 진정한 사회 발전을 위한 종교인들의 역할과 사명을 논의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미국 불교계는 지성적 활동은 물론 사회 현실 문제에 적극 대처하면서, 미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현안 해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대중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미국인 불자들.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진행자 혜거스님의 『대승기신론』강좌 개강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1:30 4개월간
교육장소 : 금강선원
개강일시 : 2000년 9월 5일(화) 오후 1:30
회 비 : 4개월에 10만원(교재비 포함)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진행자 혜거스님의 『불교교리』강좌 개강

강의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3개월간
교육장소 : 금강선원
개강일시 : 2000년 9월 6일(수) 오전 10:30
회 비 : 3개월에 6만원(교재비 별도)

☎ 02) 445-8484
서울 강남구 개포동 5단지 186-3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선원

학점은행제 시행교육기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 2000학년도 가을학기 원생모집 】

모집과정

| 과정명 | 분야 | 세부과정명 | 교육기간 | 주/야 구분 | 비고 |
|---|---|---|---|---|---|
| 교양교육과정 | 불교 | 불교란 무엇인가 | 1학기 | 주간 | |
| | | 참선수행 | 1학기 | 주간 | |
| | 동양학 | 생활풍수 | 2학기 | 주간/야간 | |
| | | 생활역학 | 3학기 | 주간/야간 | |
| | 문화 | 사군자 | 2학기 | 주간/야간 | |
| | | 서 예 | 2학기 | 주간 | |
| | | 보석디자인 | 2학기 | 주간 | |
| | | 테스스포츠 | 2학기 | 야간 | |
| | | 전통생활지수 | 2학기 | 주간 | |
| | | 한지그림공예 | 2학기 | 주간 | |
| | | 전통인형실기 | 2학기 | 주간 | |
| | | 고전(전통)무용 | 2학기 | 주간 | |
| | 외국어 | 영어회화교실 | 1학기 | 야간 | |
| | | 중국어회화교실 | 1학기 | 야간 | |
| | | 일본어회화교실 | 1학기 | 야간 | |
| | 건강 | 산기공(초급·중급/고급 시험) | 4학기 | 주간/야간 | |
| | | 수지침 | 2학기 | 주간/야간 | |
| | | 스포츠마사지 | 1학기 | 주간/야간 | |
| | | 홈카이로프락틱과 운동치료요법 | 1학기 | 주간/야간 | |
| | | 카이로프락틱 | 1학기 | 야간 | |
| | | 건강과 한의학 | 1학기 | 주간 | |
| | | 건강을 위한 의학강좌 | 1학기 | 주간 | |
| 전문교육과정 | 불교 | 불교전문교육 | 4학기 | 주간 | |
| | | 참선연구 | 2학기 | 주간 | |
| | | 불교영어 | 2학기 | 야간 | |
| | | 한문해석법 | 2학기 | 주간 | |
| | | 기초하문 | 2학기 | 주간 | |
| | | 고승시문선독 | 2학기 | 주간 | |
| 통신교육과정 | 교 양 | 가십잡학 | 1학기 | PC통신 강의 | |
| 박물관교육과정 | 박물관 | 불교박물관대학 | 2학기 | 주간 | |
| 특별교육과정 | 예술치료 | 표현예술치료 | 4학기 | 주간 | |
| 학점은행제교육과정 | 교 양 |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16개 교과과목 운영 | 각 1학기 | 주간/야간 | 학점인정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중 운영교과에 대한 문의는 본 원 교학과로 문의요망

지원자격
일반성인으로 자격제한없음(단, 학점은행제 및 일부 교육과정은 제외)

원서교부 및 접수
2000년 8월 1일(화)~8월 25일(금) 사회교육원 교학과(90주년 학술관 1층)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TEL:02) 2260-3728~9 / FAX:02) 2260-3730
홈페이지 : http://dgucc.dongguk.ac.kr/~so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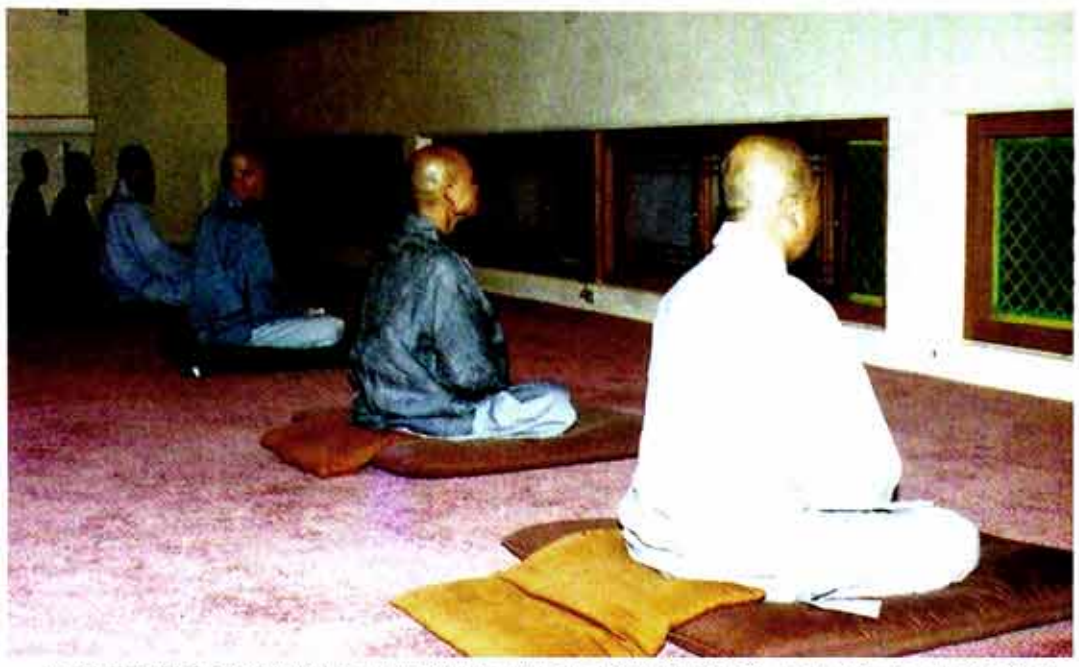
불교단체
사무직원 급구

종무행정직 사무장 및
전산사무직, 편집기자
(고등학교졸업이상 남여40세 이하)
※ 경력자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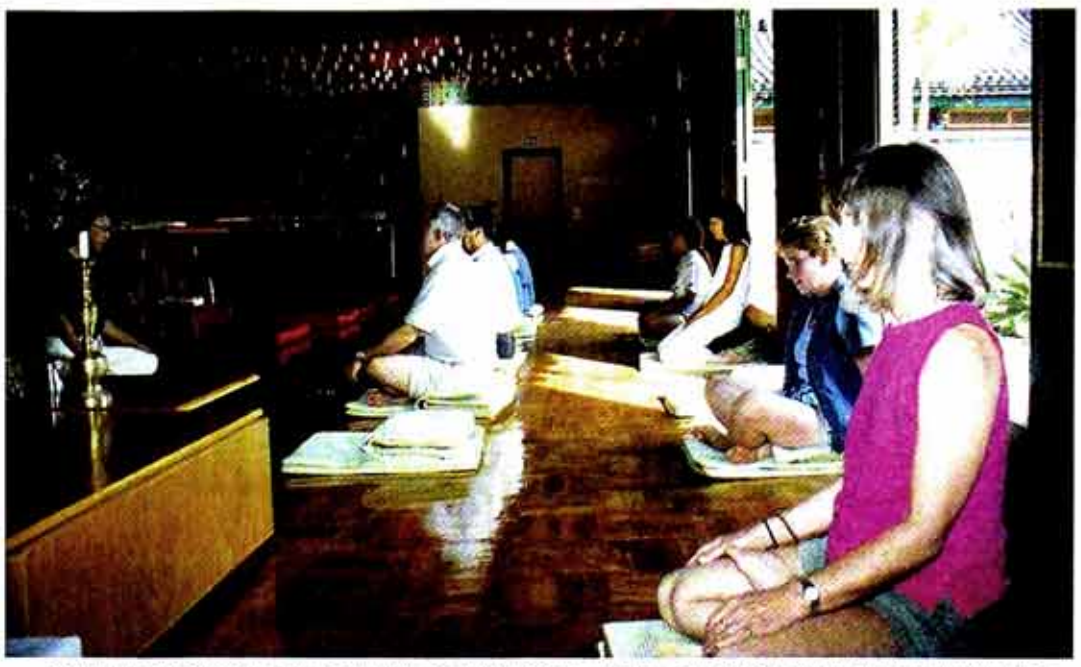
■ 인 원 : 0명
(서류접수 = 이력서, 사진첨부)
■ 근 무 지 : 서울지역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북대구 우체국 사서함 22호
붓다사랑
■ 연 락 처 : 053)954-4047
■ 접수마감 : 2000년 8월 25일
■ 당일 소인 유효

# 시방세계

반야불교사
불사의 모든일 정성껏 하겠습니다.
031)905-6368 / 011)9934-3512



◇해외 한국사찰 중 유일하게 7명의 수행납자가 입재한 하와이 무량사 태평선원 결제 모습. 말없는 길을 가는 선방스님들의 용맹정진 수행모습은 현지 불자들에게 참선 열풍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백인의 외국인들이 참나를 찾는 무량사 참선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진한다. 현재 30여명의 백인계 일본계 등 외국인 불자들이 수행중인 무량사 외국인 참선프로그램은 현지에서도 소리없이 퍼져나가 매주 2~3명의 사람들이 새로 찾아온다.

## 지금 하와이 무량사 시민선방에선

# 교포도 미국인도 '참선삼매 빠지다'

### 여래선-관조-포행 매일 2시간씩 진행

12일 오전 4시 50분. 새벽 2시부터 입선에 들어간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 태평선원 하안거에 입재한 7명의 스님들이 대웅전으로 들어온다.

이어 죽비 3성이 울리고 15명의 재가불자들이 선방스님들과 함께 참선삼매에 들어간다.

참선은 말없는 길이다. 입재한 사부대중은 1시간 동안 미동도 않고 참선에 들었다. 오전 6시가 되자 와이키키해변으로부터 다가오는 아침햇살이 삼포시 법당으로 들어오면 죽비 3성에 따라 아침 참선프로그램이 그렇게 조용히 끝난다.

아침 참선프로그램은 한국의 외국사찰 중 유일하게 하안거 결제에 들어간 태평선원 스님들이 선방을 나가지 않는 원칙을 어기고 특별히 불자들에게 회향하는 프로그램이다.

입승 철산스님(前 내소사 주지)은 "선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해준다. 그래서 말없이 마음을 곡調기 위해 가는 길이다"며 "하루 12시간 정진하는 프로그램중 특별히 외국에 나와있는 사찰임을 감안하여 대중들의 합의에 따라 하루 1~2시간씩 포교차원에서 불자들을 위한 참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태평선원에 입재한 스님들은 승납이 41년 한분, 31년 두분, 29년 두분, 27년 한분, 12년 한분으로 20~30년간 선방에서 정진해온 연륜있는 스님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스님들의 모습에서 묻어나오는 선향은 자연스럽게 불자들에게 수행의 좌표가 된다.

매일 참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거사(前 외국어대 교수)는 "선방스님들이 참선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수행정진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며 "참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면 하룻내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진다"고 말했다.

선방스님들이 아침공양 후 울력을 마친 뒤 참선삼매에 들어가고 몇명의 불자들도 법당에서 자유스럽게 참선에 들어간다.

오후 3시가 되자 백인의 눈푸른 젊은 외국인들이 하나 둘 법당으로 들어온다. 이들 외국인은 백인계와 일본계 30여명이 참여하는 무량사 외국인 참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불자들이다. 4시부터 정식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지만 오자마자 법당에 앉아 참선에 든다. 그만큼 참선을 통해 무언가를 찾을려는 강한 열의가 느껴진다.

외국인 참선프로그램 지도는 24년간 참선해온 그레고이 파이(한국인 2세, 하와이 주정부 공공위원회 위원)씨가 맡고 있다. 참선프로그램이 시작단계에 있는 만큼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래선으로 진행된다.

오후 4시 정각이 되자 13명의 외국인이 법당에 정좌한 가운데 참선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먼저 입선한 뒤 마음을 청정히 하여 본래의 나를 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선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능숙한 진행으로 나를 둘러싼 고통을 보고 느끼셔 그 근원인 집착을 놓아버리는 훈련에 열중이다.

마음의 안정을 얻은 다음 곧바로 승결을 이용하여 정신을 한군데 집중함으로써 관조하는 참선에 들어간다. 내가 갖고 있는 육체와 생각을 전부 마음으로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다는 것도 없어지고 내자신도 없고 영혼한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

참선 1시간후 1시간은 포행으로 진행된다. 두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시선을 내려깐 뒤 천천히 한발 한발 움직인다.

2시간의 참선프로그램이 끝나고 간략한 질의와 응답시간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수행의 정도를 스스로 체크해보는 시간인 만큼 응답을 마친 외국인들의 얼굴에는 맑고 환한 웃음이 드리워져 있다.

이날 신혼여행 중 무량사에 관광왔다가 처음 참선프로그램에 참석한 영국인 크리스티나씨(30세)는 "평소 한국불교 사찰과 불교의 선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곳에서 참선 프로그램에 참석해보니 너무 좋다"며 "영국에 돌아가면 한국대사관에 연락하여 한국사찰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참선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수행도량으로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는 무량사는 하와이가 동서 만남의 장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불교 선풍을 휘날리는 도량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차근 차근 사업을 진행중이다.

무량사는 올해 말까지 시민선방을 개원해 교민불자와 외국인 불자를 위한 참선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외국인 참선프로그램에 수행안거를 마련해 태평선원의 안거와 때를 맞춰 1년에 두 번씩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와이=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6일 참석법회에는 20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무량사 회주 혜성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나 아닌 모든 사람을 보살이라 생각하고 받들어야 발전적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며 "원을 세우고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으므로 항상 기도 정진하라"고 법문했다.



### "한국禪으로 현지인 포교"

#### 무량사 주지 도현스님

"한국 전통 선으로 외국인포교에 앞장서겠습니다."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스님은 "인류의 관심이 이미 선으로 귀일되고 있는 추세다"며 "교민포교에 치중해온 그 동안의 신도포교 방향을 일부 수정중이다"고 밝혔다.

스님은 "해외 한국사찰들이 그 동안 현지에서 완전하게 자리잡지 못한 것은 현지인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었다"며 "올해 말 시민선방이 완공 되는대로 현지 미국인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스님의 선을 통한 포교의지는 98년 무량사에 태평선원을 개원하여 한국불교의 선풍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 4안거를 성만한 태평선원은 올해 해외 한국사찰 선원 중에서 유일하게 하안거에 입재했다. 스님은 태평선원의 정기를 밑거름 삼아 한국불교의 선풍이 발현될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 맞는 참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 "참선은 인류구원 메시지"

#### 참선지도 그레고이 파이

현대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메시지가 참선임을 확신한다는 그레고이 파이(55세, 하와이 주정부 공공위원회 위원). 2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49재를 무량사에서 모신 것이 인연이 돼 1년 6개월간 무량사에서 외국인 참선프로그램과 영어교리강좌를 진행하며 한국 선과 위빠싸나 선의 연관관계를 연구중인 한국인 2세 불자다.

그는 "위기의 현대인들이 참선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며 "한국선이 위빠싸나처럼 외국인들에게 호응을 얻기위해서는 체계적인 수행법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선이 화두선으로 불교의 교리는 뒤로한 채 화두에 대한 집중이 강력한 정신적 훈련이지만 위빠싸나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 그때 그 생각을 관조하고, 수행하며 불교의 근본을 설명해주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침대가 과학이라면 돌침대 는 자연입니다
자매품 BIO 황토 요람침대
▶ 전자파 자체 제거기능(특허 제0157651호)설치
▶ 리빙스톤은 가격, 품질, A/S 에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겠습니까?
자매품 원적외선 BIO돌침대
■ 봄(가을)에 불을 안 넣으면 방 바닥이 차고…
정말 돌침대가 필요할때!!
■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옥단 902
10t 싱글보료
돌침대의 효능…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초장파 의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가격이 싸다고, 광고가 요란하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열장치가 "열선장치"인지 "특수카본 필름장치"인지 초장파는 장치되어 있는지 …
돌판은 원석인지, 그리고 수입석은 아닌지 철분은 많지 않은지 … 입소문 제품이 제일 믿을수 있습니다.
침대의 名家 세계인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氣 리빙스톤® (옥스톤)
Living Stone Bed
☎ 02)424-9427/2203-7821

## 다시 푸는 경서

### 달마 관심론(觀心論) ⑪

又持齋者 當須會意 不達其理
우지재자 당수회의 부달기리
徒施虛功 齋者齊也 所謂勤治身心
도시허공 재자제야 소위근치신심
不令散亂 持者護也 所謂於諸
불령산란 지자획야 소위어제
戒行 如法護持 必須禁六情 制三毒
계행 여법호지 필수금육정 제삼독
勤修覺察 洒淨身心 了如是義
근수각찰 청정신심 요여시의
可名爲齋 又持齋者 食有五種
가명위재 우지재자 식유오종
一者法喜食 所謂依如來正法
일자법희식 소위의여래정법
歡喜奉行 二者禪悅食
환희봉행 이자선열식
所謂內外澄寂 身心悅樂
소위내외징적 신심열락
三者念食 所謂常念諸佛
삼자염식 소위상념제불
心口相應 四者願食
심구상응 사자원식
所謂行住坐臥 常行善願
소위행주좌와 상행선원
五者解脫食 所謂心常洒淨
오자해탈식 소위심상청정
不染世塵 持五淨食者 名爲齋食
불염세진 지오정식자 명위재자
若復有人 不食如是五種淨食
약부유인 불식여시오종정식
自言持齋 無有是處
자언지재 무유시처
會如是義 乃名依法 夫禮者敬也
회여시의 내명의법 부예자경야
拜者伏也 所謂恭敬眞性
배자복야 소위공경진성
屈伏無明 名爲禮拜
굴복무명 명위예배

(願食)인데,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늘 바른 원을 행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해탈식(解脫食)인데, 마음이 항상 청정해서 세상 번뇌에 물들지 않음을 말한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깨끗함을 보호하고 먹는 것을 재식이라 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다섯 종류의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재계(齋戒)를 지키며 보호한다 한다면 전혀 옳지 않은 말이다.

又言斷食者 斷無明惡業之食
우언단식자 단무명악업지식
世有迷愚 不悟斯理 身心放逸
세유미우 불오사리 신심방일
造諸惡業 貪恣欲情 不生慙愧
조제악업 탐자욕정 불생참괴
唯斷外食 自爲持齋 何異癡兒
유단외식 자위지재 하이치아
見爛壞死屍 稱名有命 必無是處
견란괴사시 칭명유명 필무시처
又禮拜者 常如法也 必須理體內明
우예배자 상여법야 필수리체내명
事相外變 理不可捨 事有行藏
사상외변 이불가사 사유행장

### 모든 계행 법답게 지켜 보호하고

### 반드시 삼독끊어 몸과 마음 청정

또 지재(持齋)라 하는 것도 그 뜻을 잘 알아야 한다. 이치를 모르면 공력만 허비한다. 재(齋)란 가지런하게 한다는 뜻이다. 즉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닦아서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지(持)는 보호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모든 계행을 법답게 지켜 보호하되 반드시 육정(六情)을 금하고 삼독을 끊으며, 부지런히 깨닫고 살피는 수행을 하여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뜻을 알아야 재계(齋戒)를 지킨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재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에는 다섯 종류의 식사가 있다. 첫째는 법희식(法喜食)인데, 여래의 바른 법을 믿고 기쁘게 받들어 행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선열식(禪悅食)인데, 안과 밖이 맑고 고요하여 몸과 마음이 늘 즐거움을 말한다. 셋째는 염식(念食)인데, 늘 부처님을 생각하되 마음과 입이 한결같음을 말한다. 넷째는 원식(願食)인데,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늘 바른 원을 행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해탈식(解脫食)인데, 마음이 항상 청정해서 세상 번뇌에 물들지 않음을 말한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깨끗함을 보호하고 먹는 것을 재식이라 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다섯 종류의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재계(齋戒)를 지키며 보호한다 한다면 전혀 옳지 않은 말이다.

또 단식(斷食)이란 무명과 악업의 음식을 끊는 것을 말한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이치를 모르고 몸과 마음을 멋대로 행동하여 악업을 짓고 정욕에 이끌려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서 단지 입으로 먹는 음식만을 끊고는 재계를 지키고 보호한다 하니, 이는 철없는 아이가 썩은 시신을 보고 산 사람이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전혀 옳지 않다. 또 예배라 하는 것은 법답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 안으로 밝은 것이 이치의 본질이고, 밖에서 변하는 것이 일의 모습이다. 이치는 버릴 수가 없으나 일이란 나가서 행할 때도 있고 물러나 숨는 때도 있다. 이런 뜻을 이해한다면 법에 의지한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예(禮)라는 것은 공경하는 뜻이며, 배(拜)라는 것은 굴복한다는 뜻이니, 진성(眞性)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다.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 '큰 스님과의 대화' 여름특집 해외고승편Ⅳ

### 마하 고사난다〈캄보디아 종정〉

# '모든 생명 이롭게' 사명으로 여기면 보리심 익어요



비로소 공사를 설계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약 력**

- 1929년 캄보디아 타케오 生
- 1943년 티케오 인근 사원에서 출가
- 53년 인도 나란다대 수학 이후 일본, 태국, 미얀마 등지에서 명상 공부
- 80년 UN 산하 기구 '평화 계획' 설립 이후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의 날' 제정
- 88년 캄보디아 최고(最高) 종정에 추대 이후 로마, 미국, 티베트, 영국, 호주 등에서 순회법회
- 92년 세계 인권상 수상
- 98년 나와노 평화상 수상

인류 역사는 '갈등과 전쟁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분쟁이 계속돼 왔다. 지난 세기에 수천 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1·2차 대전이 대표적인 예이지만, 지금도 세계 30여 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평화를 희구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내전으로 170여 만명의 사람들이 죽어간 캄보디아. 캄보디아 내전에 맞서 비폭력 평화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국민들에게 재건의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캄보디아 종정 마하 고사난다 스님. 스님에게 왜 이 세상은 시끄럽고 갈등투성이며 전쟁이 끊이지 않는지, 그것을 뿌리 채 잘라내고 온전한 조화와 균형 그리고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는 없는지 가르침을 청했다. 스님의 저서 〈한 걸음 한 걸음(Step by Step : Meditation on wisdom and compassion)〉과 '과연 누구 적인가(Who is the Enemy)' '평화는 우리 모두의 목표(Peace is our common goal)' 등의 주제 법문 중에서 중요 부분을 뽑아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 스님은 캄보디아 전쟁중에도 계속해 비폭력 운동을 전개해 오셨고, 내전이 끝난 후에는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어 재건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몰두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같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보리심(Bodhictta)이죠. 그 마음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윤회하는 생명 모두를 연민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을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내고 모두가 바른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려는 마음에서 보리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보리심은 모든 생명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바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신념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럴 능력이 없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면 자신이 완전히 자유로워짐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자비심과 능력이 생깁니다.

가끔씩 충동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와 비슷한 감정들은 진정한 보리심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동기를 갖고는 보살의 수행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참된 보리심은 서서히 익는 법입니다. 오랜 단련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현재의 마음이 참된 보리심으로 바뀝니다. 사흘을 꼬박 굶는다면 오로지 밥 생각만 일념으로 나겠지요. 그러한 일심으로 보리심이 굳고 한결같은 사람을 보살이라 부릅니다.

보살의 덕(德)은 마치 허공처럼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보살의 사소한 덕행조차도 일반적인 커다란 선행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즉 어떤 행위의 동기가 자신, 혹은 어느 특정한 무리를 위한 게 아니고 뭇 생명 모두를 목적으로 할 때, 그 행위의 결실 역시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하려는 자비심은 깨달음을 얻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며, 모든 수준 높은 수행의 뿌리입니다. 아무리 오래 경전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보리심을 지닌 보살의 단 일분간 명상한 성과에 미치지 못합니다. 모든 생명들을 구제함을 스스로의 사명으로 여기고 어떤 어려움도 겪어내겠다는 각오를 굳건히 하면, 마음은 더없이 고요해집니다. 자비와 사랑의 성스러운 물이 마음의 모든 굴곡을 덮고 잔잔하게 고이는 까닭이죠.

스스로의 이해 관계에 따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등으로 차별하는 것은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정은 끊임없는 명상을 통하여 계발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는 마음의 고요를 방해하는 세속적 요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리심은 순식간에 얻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빌딩을 짓는 일과 흡사합니다. 수십층의 건물이 단번에 지어질 수 없지요. 우선 땅을 편편하게 다듬어야 하고, 여러 가지 건축자재를 확보한 다음 1층부터 올라가야 비로소 공사를 설계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 전쟁을 끝내고 지금 활발하게 재건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국민들에게 국난을 극복하고자 간절하게 해주신 스님의 말씀 하나 하나는 소중하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기아, 환경, 전쟁 등의 오늘날의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요.**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어떻게 해야만 이 국난을 잘 극복할 것인가를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수밖에 다른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몸과 말과 마음,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과 말과 몸이 한결 같으면 충돌과 대립이 없어져서 어느 정도 평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조절하는 사람을 가리켜 진정한 '수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세에 자신이 태어나는 가족을 선택하는 문제가 전생에 지은 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대입시켜 보세요.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현재의 환경과 행위가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가족간의 관계, 국가간의 관계가 이어지고 확장돼 세계가 되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세상을 잘 돌아가게 하는데는 주변사람과의 관계도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주변으로부터 환영받으며 탐욕이 없고 이해심이 깊으며 조정자로서의 평등함과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평판을 얻게 되지요. 관대함, 자애로운 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착한 행위, 모든 일에 있어 공정함 등, 이러한 것들은 마치 수레가 바퀴를 축으로 해서 바르게 나아가듯이 실제로 세상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몸과 마음 그리고 말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상태'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요.**

▲인생이란 서로 상반되는 것들 사이를 끊임없이 왕래하는 변화무쌍한 것으로, 여기에는 '생기고' '멸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잃고' '얻고'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일일이 행복과 슬픔,


## 28분 안에 선승과 같은 명상상태 돌입!

— "초월적 경험의 보편화" 신과학 뉴로테크놀로지 명상법 —



"도심 속 포교당에서 체험을 위주로 하는 명상을 지도한지 벌써 2년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 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믿고있지만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체계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구상하던 중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분의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어 메가플러스를 구입하여 늘 사용한 결과, 지금은 불면증은 사라진지 오래고, **리듬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명상생활과 함께 다이어트까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스님께서 명상을 지도하시는 만큼 명상기기로써 또 시스템의 한 방법으로써 사용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적극 권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 달쯤 그냥 지났는데 우연히 모 월간지를 보고서 메가플러스가 어떤 명상시스템인지 알게되어 구입하게 되었다. 매일 거르지 않고 하루 한두 시간씩 수행해본 결과 지금은 5분이내에 **깊은 릴렉세이션과 명상상태**에 도달하며 학생들이 주로 한다는 9번에서는 **뚜렷하게 집중력이 향상됨**을 느꼈다. 내친김에 오라진동쿠션과 백색광안경을 추가로 구입하여 사용해본 결과(11번 지구에너지 명상, 17번 내적 즐거움, 19번 에너자이저) 역동적인 진동의 느낌과 함께 현란하기까지 하면서 환상적인 빛과 소리의 연속된 리듬은 **빠른 시간 내에 사념을 통제하고 빛과 소리에 쉽게 집중시킴으로써** 깊은 릴렉세이션과 명상상태를 유도하며 **쌓였던 피로감마저 말끔히 씻어 주었다.** 메가플러스 안내책자에는 명상이 무엇인지 체계있는 이론과 기법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처음 명상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전문 수행인, 직장인, 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메가플러스 명상프로그램은 현대사회를 사는 모든이들에게 공통되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자. 급변하는 21세기에는 명상은 누구에게나 필요로하는 수행이면서 당위인 것이다. 메가플러스의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으로 심신의 조화를 창조하고 보다 여유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이다.

<온담명상체험교실 종익 합장 · (031)742-9859>

**메가플러스**



메가플러스는 릴렉세이션, 학습, 수면, 그리고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창의력과 시각화 등 20개 프로그램을 내장, 다양한 명상체험 가능 (기본사양 녹색광안경/옵션 청색, 보라색, 순백색광안경)

〈미국 마이크로펄사 제품 Made in USA〉

**오라진동쿠션**



오라쿠션은 메가플러스와 함께 작동되며 이를 체감진동으로 변형시켜, 특히 육체수준의 명상, 기공과 차크라, 유체이탈, 무시간상태을 보다 강력하게 증강시킴

〈미국 오라시스템사 제품 /중국 OEM〉

**사용효과**

**재충전효과** : 짧은 시간 내에 신체이완과 깊은 휴식으로 생체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피로회복, 스트레스해소, 정신안정, 불면증해소, 집중력 증강의 99% 효과를 보장한다.

**명상효과** : 알파/세타파 중간지점(여명의 지대)에서 빛의 코뱁(응시테크닉/갠즈펠드)과 소리판법으로 크게 나누어 수행할 수 있으며, 메가플러스의 바이놀 비트와 핑핑, 페이즈 기능은 전 차크라의 개방(에테르체 수준), 무시간/진공상태 경험을 보다 쉽게 유도해준다.

마인드테크 제품/구입문의 (02)888-2142

※ 전화주시면 「뇌파연구와 깨달음」 소책자를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진귀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괘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렝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3437-8282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현대불교신문사
지사 · 지국 안내

| | |
|---|---|
| 부산지사 | 051) 634-5114 |
| 광주지사 | 062) 375-9986 |
| 대구지사 | 053) 983-9222 |
| 충청지사 | 042) 527-0559 |
| 울산지사 | 051) 752-0851 |
| 강릉지사 | 033) 643-5599 |
| 제주지사 | 016) 695-6885 |
| 진주지사 | 016) 585-2120 |
| 안산지국 | 031) 494-8859 |
| 영주지국 | 054) 674-1199 |
| 목포지국 | 061) 279-3788 |
| 밀양지국 | 055) 353-1196 |
| 고성지국 | 055) 672-0078 |
| 일본지사 | 031) 713-5111 |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환희와 절망, 실망과 만족, 희망과 공포 등으로 반응하는 마음의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파도는 우리를 위로 높이 올렸다가는 아래로 내동댕이쳐 버립니다. 어쩌다가 조금 안정이 되는가 하면 어느새 새로운 파도에 휘말려 들게 됩니다. 이 파도의 위에 우리는 과연 발판을 굳힐 수 있겠습니까? '평안의 섬' 위에 세우는 길 말고 달리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평안은 무관심한 둔감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또렷한 정신에 입각한 평안이어야만 해요.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을 믿기 이전에 마음이 믿을 만한 대상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게 마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신심이 확립되어 집니다. 수시로 변하는 마음속에서 불교라는 수행을 통해 올바르게 변화하도록 인도하고 기도하여서 마음이 순수해질 때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대한 신심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마하 고사난다스님이 주최해 1993년 4월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 인근 지역에서 열린 평화 행진 모습. 이날 스님은 "우리가 시작한 평화 행진은 캄보디아에 '평화의 다리'를 만들 것"이라고 격려했다.

## 명상 통하면 고요한 마음 가능

## '생각의 변덕' 팔정도로 다스려

두 번째가 바른 마음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바른 마음을 일으키도록 계발시키는 것, 이미 일어나 있는 나쁜 마음을 버리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마음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몸이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방황하고 있으면 깨어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알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때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면 부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갖추어지면 사물의 실상을 여실히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라는 게 있죠. 원인과 결과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들 다섯 가지를 계속 실천한다면 주변에 암초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갖가지 위기들을 잘 넘길 수 있고, 또한 벅찬 시련을 이기고, 소진된 힘을 스스로 다시 채우는 '참다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행진' 전에 대중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물자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종교 때문에, 이념 때문에, 민족 문제로 인해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누구나 평화를 희구하지만 살육과 폭력의 전쟁을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다 완전한 갈등 해소, 평화 정착은 이루어질 수 없는지요?

▲부처님이 가르친 중생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석가족과 꼴리야족 간의 물싸움 일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종족의 농민들이 서로 자기네들 쪽으로 물을 끌어가겠다고 충돌한 것이, 급기야 두 종족의 지도자들이 전쟁을 해서라도 농민을 보호해야겠다고 결심한 탓에 전쟁 일보직전까지 가게된다는, 자타카(부처님 전생담)에 나옵니다. 이 때 부처님은 "그대들이여, 강물이 더 소중한가, 그대들의 몸이 더 소중한가! 사소한 강물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왜 이같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려는 것이냐? 만약 여래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 그대의 피가 이 강물을 가득 채우는, 실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행을 부르게 되지 않았겠느냐? 다시 손에 칼과 활을 잡지 말아라. 그대들이 시작하려는 싸움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원인이니,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고요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하느니라"고 타일렀습니다. 당연히 두 종족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부끄럽게 여기고, 강물을 사이좋게 서로 나눠쓰고 농작물을 잘 관리해 큰 가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지전이 빈번한 오늘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전이나 전쟁을 겪었고, 또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던 경험이 있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인들이 겪었던 고통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위정자들이 나라를 보살피는 일을 등한시하고 논쟁과 싸움만을 일삼은 데서 비롯된 내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때에 맞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즉, 이익 얻고 선행을 베풀고 선업을 쌓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를 추구하고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지속하며 가족간에,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세계 평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생활에서 항상 유념해야 할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인지요.

▲정신이 얼마만큼 평온하고, 혼란스러운가 하는 정도는 자신이 마음에 스스로 일으켜 놓은 생각에 따라 좌우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생각의 변덕'을 팔정도로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팔정도란 올바른 이해·생각·말·행위·생계·노력·마음챙김·집중 등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에는 부처님의 중도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불자라면 적어도 산만해지려는 생각을 거두고, 마음이 변덕을 떨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먹은 음식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달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남의 마음을 수련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수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작용은 인과현상의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 맛있는 음식의 냄새에 민감해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일에 의욕을 잃게 됩니다.

자아라는 굴레를 벗어나 실재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보게 하여 주는 성스러운 팔정도야말로 괴로움을 여의고 해탈로 이끄는 길입니다. 자아라는 굴레를 벗어나 실재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해탈지혜로써 보게 하여 주는 종교, 곧 성스러운 팔정도의 불교이기 때문에 팔정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늘 마음과 몸을 청정히 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無常)하기에 오로지 부처님법을 믿고 따라 자기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며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 허주스님의 스님이야기

### ■종범 스님

아직도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세 어른이 있는데 그 중 한 분이 종범(宗梵)스님이다. 스님은 일찍이 이십대 중반에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講主)를 역임하였고, 조계종 중앙 상임포교사로 전국 곳곳을 누비며 법음을 전하는 일에 젊은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한 때는 한국의 부루나 존자라는 별칭이 주어지기도 했다. 지금은 중앙승가대학에 오래도록 몸담고 계시면서 후학양성에 물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스승의 사표(師表)로 남아 있다. 상세히 다 기억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후학들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언행일치의 삶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통도사 강주 소임을 보실 때 "난 앞으로 20년간은 포교만 할거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고 학문을 게을리 하신 것도 아니다. 언행일치의 삶이 어디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인가.

몇 년 전 주변 스님들과 함께 스님을 찾아뵈었는데 그때 걱정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일반 신도들에게 비쳐지는 스님들의 위상이 수행자로 인식되기보다는

### 뿌리깊은 나무같은 스승

### 언행일치의 삶 '모범'

기능인, 종교적인 직업인으로 보여지고 있어. 도시 사찰에서 의식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원 같은 수행공간에서는 수행자인데 도시에 오면 기능인이야. 일본 불교가 그렇잖아. 그래서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마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승가 대중 모두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한다. 한국불교가 수행불교냐 의식불교냐 아니면 통불교냐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말이다.

입산을 해서 일정 기간의 습의과정이 지나면 은사스님을 정해야 한다. 비로소 평생 사제지간의 인연을 맺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 것이다. 그런데 법력이 우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상황 논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상좌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좌를 거느린 스님이 있는 반면 한 상좌도 제대로 교육시킬 여유가 없어 평생 상좌 인연이 없는 스님들도 많다. 상좌 복이 많아서 부러움의 대상(?)인 스님들도 있고 상좌로 인해서 곤혹스러운 경우를 당하는 스님들도 있다. 그런데 사제지간의 연이 법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맺어지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어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제의 인연은 법의 전수과정에서 맺어진 관계였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미소로 전법이 이루어 졌는가 하면 스승 앞에서 육체가 지닌 모든 가치를 집어던지므로써 법을 구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현실은 법이 우선하기 보다는 다른 목적에서 너무도 쉽게 건당을 하고, 그러다 보니 묘한 상황논리에 의해서 거룩하게 이어지던 건당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

스님은 상좌가 대여섯은 족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곁은 늘 쓸쓸하다. 맑은 물에는 원래 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인지 몰라도 스님은 필요에 의해서 상좌를 곁에 두려고 하지는 않는다. 모두 공부 굉계로 스님 곁을 떠났는지는 몰라도, 나 역시 스님 상좌들과 똑같은 처지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게 우습지만, 맑고 찬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바보 취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봐야할까.

행자 교육을 할 때 계단(戒壇)의 스님들이 은사스님께 참한 상좌를 두었다고 하자 스님께서 "요즘은 상좌가 아니라 상전입니다. 시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전 모시듯 하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셨다. 함께 웃고 말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중노릇이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중노릇 아닌가 한다. 적당히 눈치껏 살면 가장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제대로 수행을 할라치면 가장 어려운 길이 절집 생활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옷이 먹물 옷이요, 가장 무거운 옷 또한 먹물 옷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내면적으로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단 한가지 이유, 공부와 수행



그림·문병성

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스님께서 6년 전 이런 제의를 해오셨다. "너 이제 나랑 함께 살지 않을래? 지금 경전공부든 수행이든 어느 한 가지에 전념하지 않고 이 생활이 지속된다면 너 40대에 많이 힘든다. 봉은사에 살만큼 살았으니 나하고 경전이나 보면서 같이 살자. "여섯 해가 지난 지금 그때 스님의 애정 어린 말씀이 너무도 고맙고 눈물겹다.

한 보름전 스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다. 생전에 스님 법문을 들었던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 유언으로 종범스님을 꼭 모셔서 영가법문을 청하라는 뜻을 받들어 상주들이 간곡히 부탁을 해왔다. 그래서 스님께서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하셨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스님 얼굴을 떠올렸다니, 그리고 유언이 스님의 영가법문을 듣고 이 세상 인연을 끊겠다는 것이 스님의 법력이 아닌가.

그 흔한 자가용도 스님은 없다. 웬만하면 장만하셨을 법도 한데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 영가법문을 마치고 일주문 밖까지 모시고 가는 길에 가을 학림의 강의 요청을 했더니 "나 이제는 못하겠다. 다 잊어버렸다."고 하신다. 멋진 거절이다. 뒷모습에서 세월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렸다. 스님을 생각하면 우뚝 솟은 봉우리가 아니라 폭풍우와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뿌리깊은 나무가 연상된다. 비바람이 멎고 떨어져 흩어진 낙과들을 보며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에게는 커다란 그늘이다.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인진쑥 엑기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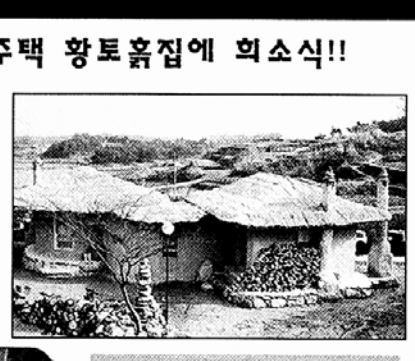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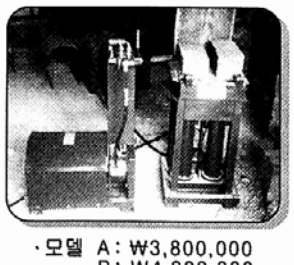

야생참 인진쑥 자연산(茵陳蒿)는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덤이 속에서도 파란잎과 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합니다. 구생복지원 암행스님은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 보사부에서 정식 허가(정선 제1-3호)를 받아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지신있게 권해드리오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함께성불하십시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일반적인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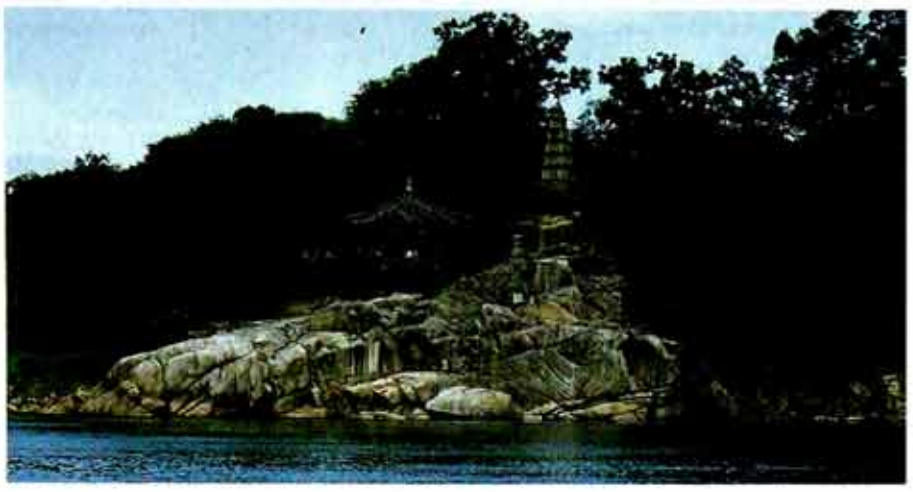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암과 불치병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황버섯, 기간지천식·홍역기침에 특효라는 가래엿, 관절·골다공증·골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요.
순수익이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멸증 입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물좋은 곳에서 황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주 문 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 터 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습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앤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신륵사 전탑은 강을 타고 오고가는 배들에서 잘 보일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한 표시 탑이었다.

# "한강 오가는 배들의 등대"

## 신륵사 전탑

가람의 장면들 32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경기도 여주의 신륵사는 위치부터 묘한 곳에 자리잡았다. 한강의 중류 -이를 여강이라 부르고, '여주'라는 고을 이름의 근원이 되었다 - 절벽 위 땅에 가람의 터를 잡은 강변 사찰인 것이다. 교과서적인 풍수설을 따르자면, 큰 강변이나 바닷가는 중요한 건축이 들어설 땅이 되지 못한다. 땅에 비해 물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기가 너무 강해서, 음양의 조화가 흐트러질 우려가 높으며, 건물의 앞을 막아줄 적절한 안산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신륵사의 위치는 누각이나 짓고 경치를 즐기며 노는 곳이지, 많은 대중들이 기거하면서 살 곳은 되지 못한다. 신성한 가람이 자리잡을 곳은 아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변에는 수많은 사찰들이 세워졌고, 신륵사를 비롯한 몇몇 가람들이 아직 남아있거나 터를 전하고 있다. 예컨대, 남한강변의 충주 중앙탑이 있는 절터와 법천사 터, 그리고 신륵사, 북한강변의 흥법사 터와 수종사 등이다.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린 절들까지 합하면 대단한 숫자의 강변 가람들이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 절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 절들은 대개 강이 맴돌아 굽이치는 지점이나, 강에서 잘 보이도록 강변 높은 곳에 위치했다는 점이다.

신륵사를 비롯한 한강변의 많은 가람들이 존재했던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한강이 조선조까지 국가적 운송로의 대동맥이었다는 점이다. 즉, 이 절들은 한강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지켰던 관리소의 역할이나, 오가는 배들이 정박하고 쉬어가는 휴게소의 역할도 했었다. 한강변에 남겨진 큰 절들이나 절터들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추적해 보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들 사이의 거리가 30분~1시간 간격으로 떨어져 있듯이, 한강을 오르내리는 배들의 속도를 감안하여 대략 반나절 내지 한나절 거리에 절들이 위치하고 있다.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강변 가람들에는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고 안내할 상징물들이 필요했다. 수종사와 같이 산 중턱 높은 곳에 위치하여 가람 자체가 상징물이 되기도 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높은 탑을 강변에 세우는 것이었다. 신륵사에는 탑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극락보전 앞 마당 가운데 세워진 섬세한 대리석탑이고, 다른 하나는 강변 동대 절벽 위에 세워진 희귀한 모양의 벽돌탑이다. 특히 이 벽돌탑 때문에 신륵사는 속칭 '벽절(甓寺)'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다.

### 국제활동 나옹스님 영향

### 중국 서안풍 벽돌탑 세워

왜 가람의 구성과는 관계없이 동떨어진 강변에 벽탑이 서있는 것일까? 그런데, 비단 신륵사 뿐 아니라, 충주 중앙탑 절터 역시, 바로 강변에 높이 터를 돋우고 7층의 중앙탑을 세웠다. 원주 흥법사지의 석탑도 강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세워졌다. 이 탑들의 공통점은 강을 타고 오가는 배들에서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잘 보일 만큼의 높이로 세워졌다는 점이다. 신륵사 벽돌탑은 이와같은 목적으로 세워진 표시탑, 다시 말하면, 강변의 등대였던 셈이다. 물론 밤보다는 낮에 역할했던 등대였다.

그 형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적인 벽돌탑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현존 벽돌탑(전탑)들은 주로 안동을 위시한 경북 북부지역에 분포하는데, 일반적으로, 탑신의 지붕부분이 11층 정도의 벽돌부로 이루어져 비교적 강하게 돌출되어 있다. 그러나 신륵사 벽탑은 지붕부가 5층 정도의 약한 돌출띠로 만들어져, 한국 벽돌탑이라기 보다는 중국 서안에 있는 대안탑과 같이 중국풍에 가깝다. 탑 층수도 6층으로 짝수층이어서 원형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비형식적이다.

신륵사는 고려말에 중흥된 적이 있었는데, 당대 최고의 스님이었던 나옹(懶翁) 화상이 이곳에서 열반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나옹은 중국에 유학하여 지공(指空)과 평산(平山)에게 법을 전해받아, 인도와 중국의 조사 선맥을 한몸에 모은 국제적인 선사였고, 고려 공민왕의 고문으로 활동했던 큰 스님이었다. 양주 회암사에 주석하면서 크게 불법을 일으키니 그의 제자 가운데 한명이 바로 조선 건국에 깊게 관여한 무학(無學)이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그 그림자도 깊은 법, 부패한 당시 불교계와 정계의 무리들은 나옹을 탄핵했고, 급기야 회암사에서 추방되어 밀양 영원사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당시 경기지방에서 영남으로 가는 일반적인 길은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남한강 상류인 충주에서 새재를 넘거나, 단양에서 죽령을 넘는 것이었다. 나옹 일행 역시 한강을 배로 올라갔는데, 이미 심신이 노쇠해진 나옹의 건강 때문에 여주 강변의 신륵사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그만 그 짧은 휴식에도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나옹은 그만 신륵사에서 열반하게 된다. 화장을 하고 나니 550과나 되는 사리가 수습되었다. 나머지 유골을 양주 회암사로 운구하여 가려는데, 극심한 가뭄으로 수량이 적어 배를 띄울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갑자기 강에 물이 부는 이적이 나타나 무사히 배를 띄울 수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나옹 일행이 올 때나 갈 때, 모두 한강의 뱃길을 이용할 정도로, 신륵사는 수운 교통로 상 중요한 지점이었다. 여기에 세워진 등대용 탑 (벽탑)이 중국풍을 띄고 있는 것도 나옹 일행의 국제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환경 지킴이 나선 스님들

불교 NGO 붓다 붓자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해방이후 '개발 제일주의' 정책아래 우리나라의 산천이 많이 훼손됐지만, 자연이 이만큼이나 유지되어 온 것은 사찰의 역할이 컸다. 과거에는 사찰에 산감(山監)이란 소임을 둘 정도로 산천을 소중히 여겼다.

이처럼 '심 청정, 국토 청정(心淸淨國土淸淨)'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스님들이 최근 환경운동과 자연보존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스님들이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잇달아 환경관련 표창을 받는 등 시민들의 호응도 얻고 있다.

대자연보전환경협회 회장 성타스님(봉국사 주지)과 조계종 문화부장 혜자스님이 지난 6월과 7월 '환경의 날 국민포장'과 '전국자연보호중앙회 환경보호대상'을 각각 수상한 것도 오랜 기간의 환경운동 결과 얻어진 성과였다.

성타스님은 93년 同 협회를 설립한 이래 녹색에너지 가족운동, 녹색에너지 교통운동 등 생활환경운동을 이끌고 있으며, 혜자스님은 사찰을 통한 환경의 소중함과 자연보전 계승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타스님 녹색에너지 생활화 운동
수경스님 지리산댐 반대운동 주도
진옥스님 섬진강 생태계 보호 앞장
장곡스님 계룡산 보전운동 이끌어




요즘 불교계의 최대 환경이슈인 지리산 살리기 운동과 관련해서는 지리산의 근본도량인 실상사 스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은 지난해 8월 지리산 주변 80여 종교·시민·환경단체와 함께 '지리산을 사랑하는 열린연대'를 구성, 지역생명·환경운동에 앞장서면서 유전자조작식품 반대운동도 벌이고 있다. 특히 실상사 수경스님은 수좌출신으로서 지리산살리기념백지화범불교연대 상임대표를 맡아 불교계와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지리산댐 반대운동을 의욕적으로 이끌고 있다.

환경·시민단체와 연대해 활발한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는 스님들도 늘고 있다.

불교 환경사상 정립과 교육에 매진해 온 불교환경교육원장 법륜스님은 최근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공동의장을 맡아 '시민환경 선언문'을 정부의 간섭을 뿌리치고 기초하는 등 시민·환경운동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으며,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은 여수여천환경운동연합 및 전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맡아 지리산·섬진강 생태계 보호 및 영광·여수지역 반핵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 공주 갑사 주지 장곡스님은 '계룡산 보전 시민모임' 공동의장을 맡아 계룡산자연사박물관·야영장·국도 건설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통영 용화사 주지 선곡스님은 불교·시민·산악인단체들로 구성된 '비룡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모임'을 이끌면서 미륵성지를 수호하고 있다.

그간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비구니 스님들도 이제 환경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초 고성산불 지역에 풀씨 심기 활동을 펼친 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장 성덕스님은 매년 수천 그루의 '나무 심고 가꾸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수해지역 오물처리 등 환경정화 활동도 수시로 펼치고 있다. 공주 동학사 주지 일연스님은 계룡산 환경 훼손이 심각해지자, 국도 호선대책특별위원회 공동대표로 나섰다.

이같은 스님들의 적극적인 환경운동은 불자는 물론 시민들의 '자연 사랑'의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전통사찰의 스님들은 당국의 문화재 보수비 지원과 민원 허가 건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환경운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칭)'조계종 환경위원회' 김용구 간사는 "조만간 환경위원회가 종법기구로 구성되면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스님들의 환경운동이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라면서 "환경운동은 몇몇 스님들만이 관심을 갖고 활동할 것이 아니라 모든 스님, 모든 불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갈월사 영탑(靈搭)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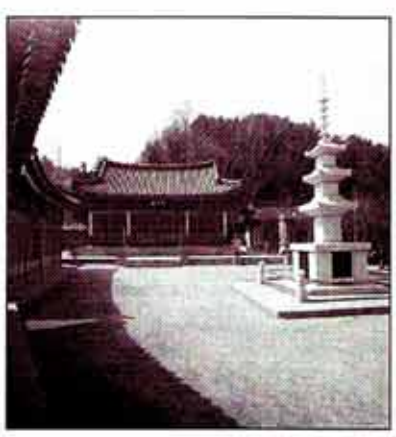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 남 이익되게 실천할 수 있어야 道

인사 드릴 기회가 없어 인사가 늦었습니다. 서울법회 때 너무들 애를 쓰셔서 정말이지 감사한 마음 말로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이하 여러분 모두 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신력이 이렇게 여기 몸을 끌고 오셨습니까? 하하하…. 이 몸뚱이라는 것은 사실은 로봇트 같아서, 제가 겪어 봐도 그래요. 서독에서 캐나다로 오니까 캐나다인지 서독인지 처음에 갔을 때는 멍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 이거 로봇트는 로봇트로구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또 서울에 와서 드러누웠다 일어나니 방문이 어딘지…, 허허허…, 그게 멍해지더군요. 그래서요, 이 정신력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송장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예요. 여러분도 자동차를 볼 때 인간이 부리는 로봇트로 생각하지 진짜 '나'라고 생각을 안하죠? 자동차 속의 운전수가 진짜 '나'지, 안 그렇습니까?

## 한마음으로 지구 보존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저 스님은 지원을 저렇게 여러 군데다가 내고 돌아다니는지, 또 그저 말끝마다 왜 저렇게 주인공, 마음을 찾으라고 간곡히 저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까닭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함께 한마음으로 지구를 보존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 지원을 각계각처에 손닿는 데는 다 이렇게 내는 것은 그 지역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 모든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문을 열어서 한마음으로 귀정짓게 하고, 또 산 사람도 역시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지원을 내기만 해도, 신도들이 없다 하더라도 벌써 그것은 우주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한 실천이 도(道)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맹세코, 실천하지 못한다면 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이 물컵이 쓰러질 것이다, 물이 다 쏟아지면 죽는다, 이렇게 예언하지만 그걸 안 쓰러지게 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소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지원에서나 여기 본원에서나 멀고 가까움이 없이, 전세계의 모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주고, 그렇게 해서 모두 한마음으로 이어져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하면서,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꼭…, 일거수일투족 당신이 하고, 뛰기도 당신이 뛴다고 항상 말해 왔습니다. 이 언덕 저 언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 육신과 정신이 어디 따로따로 놉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을 빨리빨리 넘어서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언덕은 물질계이고 저 언덕은 정신계인데, 만약에 정신계에 도달하게 되면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저 언덕을 넘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인공을 그렇게 찾다 보면 거기에 모든 것이 통신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계로만 들어간다면 통신이 되질 않아서 한마음이 될 수가 없으니까 공덕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 몸 한 개체도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전부 따라 준다면 이게 공덕이 되고, 개개인으로 논다면 이건 공덕이 될 수가 없죠. 한 회사가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한 구성체지만 제가끔 논다면 구성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마음을 굳혀서 일체가 다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일체 제불과 더불어 같이 이 지구의 모습을 지속되게 하는 도량이 있어야 된단 얘깁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운기라고 할까, 그런 따뜻한 공기(氣)가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공기막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저 스님이 저러는지 그것쯤은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터지면 만년설이나, 남극, 북극 모두가 여름이나 겨울이나 녹지 않는 얼음이 녹게 됩니다. 모두가 달라지고, 그렇게 그게 터지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땅덩어리가 산산조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미처럼 어디 물 없는 데로 기어오를까요? 어떡할까요? 그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종교를 믿고 절이나 하고 이러고 다니는 노타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불어 같이 둘이 아닌 내 생명, 내 모습, 모두가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천지개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것은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전자에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물에 죽고, 불에 죽고, 종교 싸움에 죽고 이렇게 해서 모두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이번에 독일에 가서 보니까 삼백 삼사십 년 전에 종교 싸움에서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둥 살둥 모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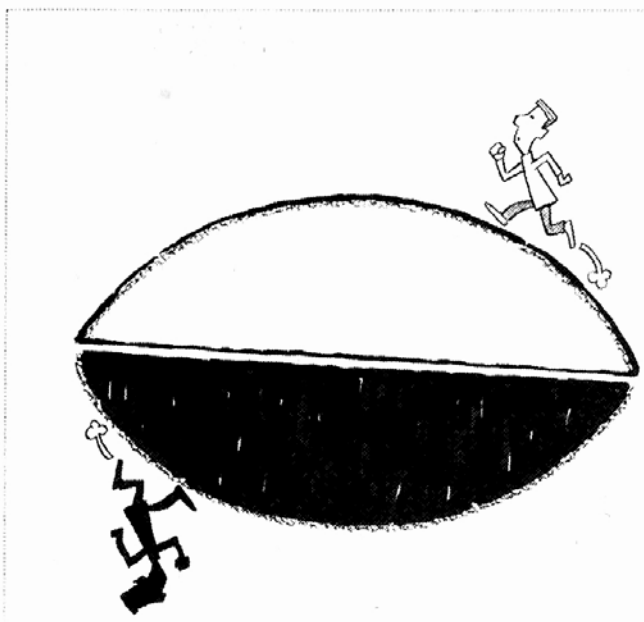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물질·정신계 둘 아닌 도리 알아야 통신

## 마음공부하면 갇힌 영령 풀어줄 수 있어

뛰어다니면서 죽은 사람, 산 사람, 갇혀 있는 사람…, 직접 나는 대화를 하면서 문을 다 틔우고, 수녀나 또는 신부 모두, 고문을 당하고 갇힌 그 장소를, 문을 다 틔워 놨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기 이전에 한번 이런 말을 해봅시다. 조상들을 천도시키는데 어떠한 관계로 스님께서는 우주떡 하나 해 놓고 합니까, 이러겠죠?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면서 극난하게 살던 그 관습이 남아서, 죽어도 그 관습을 떼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식을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그 먹는 착, 살려고 하는 관습이 그냥 누더기처럼 붙어서 자식들한테나 친척한테나 접근해서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매고 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유전이 돼서 또 지금 산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해 끼침이 됩니다.

"왜 그러면 스님은 그렇게 천도를 합니까? 남들은 위패를 써서 붙이고 하는데…," 이러는 분도 있겠죠. 부처님 법에도 '백일만 앉을 자릴 해 놓고, 즉 말하자면 설법을 해서 설득을 해서 구원을 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백일이 뭡니까? 그냥 위패를 붙여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처님 법으로서 어긋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나가고 이렇게 되니 그 영령들은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 산 사람으로 인해서 또 그 진퇴에 걸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백일만 되면은, 백일 안돼도 돌아가시면 바로 위패를 해 놨다가 딱 살라 버리고 다시금 위패를 해서 또 모셔 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딨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 보살행도 권리 있어야

그래서 나는 때에 따라서 여러분 조상님들을 다, 가난한 사람은 사십구(四十九)일이 돼도 백일로 채워서 그냥 천가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게 산 사람으로 치면 교육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모두 앉혀 놓고, 이렇게 서로 앉을 자리에 앉혀 놓고, 듣게끔 하고 보게끔 하는 겁니다. 영가님들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가난한 집의 부모들은 천차만별로 직책을 줘서 내보냅니다. 머리 깎고 스님만 되는 게 선지식이 아니거든요. 다시금 이쪽으로 태어나서 선지식이 되게끔 일컬어서 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그 자손들을 위해서 보살의 심부름꾼으로, 심부름꾼이라고 해야죠. 직책을 갖게 해 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손들이 그 대에, 그 차원의 종자는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보살행은 남을 조금이라도 해롭게 해서도 아니 되지마는 이익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도가 아니요, 그것은 심부름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주천지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 주지 않는 바람에 그 권리를 주지 않죠. 보살의 행도 권리가 있어야만이 행을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상들도 모두 문을 열고 귀가 뜨이고 눈을 뜨게 하고,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하면 거기에 통신이 되고 그래서 그 영령들이 다 깨어나게 하고….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서독에 갔는데 말입니다. 난데없이 수녀 한 분이 들어왔어요. 나는 무식해서 역사도 뭐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에 따라서 알게 되면 딱 알고, 하게 되면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누구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삼백 사오십 년 이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수녀인 것은 아는데 왜 나한테 왔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 싸움으로 인해서 독일 사람들이 삼분의 일, 말하자면 반이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때 자기들은 수녀로서 성당을 하나 조그맣게 해 놓고 일판이 세 개가 있으면서 천막을 크게 세워서 죽어가는 사람 치료를 했다 합니다. 치료를 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여러 뭇사람들한테 봉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묻혔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고 지금 나뿐이 아니라 그 일판의 사람들이 전부 고문 당하면서 모두 갇혀 있고 갇혀 있으면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 오셨으니 다 이 문을 열어 주고 좀 해 주실 순 없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부처님 법이나 가톨릭 법이나 사람은 둘이 아니야. 모두가 둘이 아닐진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쭈욱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퍼뜩 알아듣고 부처님 모셔 놓은 데 가서 절을 삼배를 올리고 그 수녀는 옷을 벗어서 담 너머로 다 괭개쳤습니다.

## 광대무변한 마음도리

그러면 그러한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마는 내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또 군인들 죽은 데 뭐, 어디? (대중 속에서 '공동묘지, 군묘지'라고 말을 함) 응, 군묘지! 군묘지를 처음에 시험을 해서 실천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딴 군묘지를 또 택해서 해보고 이렇게 해서 모두 운집을 시킨 것은, 바로 내가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사람 하나하나 건지는 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도 몸 하나를 건져야 그 몸 속에 들은 중생들이 다 살 수 있는 것이지, 몸 하나 건지지 못하면 속에 들은 생명들은 다 죽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공부를 해야만 오고 가면서도 모든 영령들의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은 영령들은 다 압니다. 누가 자기를 이익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온다 그래서 발로 걸어서 찾아온다 하면은 그건 아니 되죠. 빛보다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중하고

☞ 16면으로 계속

## 법공양 페이지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통민속·문화대학 설립에 즈음하여
## (독지가나 투자 하실분을 모십니다.)

미래에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연구, 개발, 보존해서 세계의 문화속에 우리고유의 전통민속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 세계속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하여 국가관, 민족관이 살아있는 한국전통 민속문화 대학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1. 사업내용**
- 학교 전통민속, 문화대학 설립 및 전통서당(학당) 설립

**2. 교육학과**
- 국악 및 전통악기, 민속한의학, 한문, 서예, 전통무예, 전통춤, 전통의복등 전통문화 관련내용

**3. 예상 소요경비**
- 300억원

**4. 학교부지 (위치)**
- 학교위치 선정은 국악의 발상지인 남원, 운봉, 구례, 곡성등으로 학교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추후 독지가나 투자자 분들과 협의해 최종 학교부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설립에 뜻이 있으신 독지가 분이나 학교설립에 투자 하실분을 모십니다」**

◆가 칭: 한국 전통민속·문화대학 및 전통서당 (학당) 설립추진 준비위원회
◆설립추진준비위원장 : 이 학 수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30번지
TEL : 063)634-7283 H·P : 019)634-7283
FAX: 063)634-1237

※ 뜻있는 독지가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농 협 513148-52-061376
■우체국 400077-02-010610
예금주 : 이 학 수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현대불교 제 283호
서기 2000년 8월 23일 수요일




# 모두 내몸 아님 없으니 나누지 말라

☞ 15면에서 계속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묘하니까 여러분이 단 한마음에…, 한마음도 체가 없는 겁니다. 한마음에서 검부락지 하나를 일으켜 세운다 하더라도 지구를 들 수 있는 그런 태세라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관계상 여러분에게 간곡히 이날까지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내가 이름을, 지금 지어 놓은 이름도 무식해서 모르고 내가 지으려니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운기(氣)가 압축되면 공기막이 터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 아니 되니까 그것을 높이 하면은 얼음이 녹지 않고…, 또 지금 오염이 된다는 사실, 이 중생들이 오염이 되게 하면은 가차없이 모두가 살림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을 버려서 오염이 되나 했더니, 이번에 알프스 산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땅을 파고 쇳덩어리를 박고 한 이런 것부터 벌써 오염이에요. 이 모두가 오염이에요.

## 자기 무시하지 말도록

그건 왜 오염이 되느냐. 의사가 완전히 배워 가지고 수술을 할 때에 그 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살의 각을 뜹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도 모르고 세포고, 동맥이고 뭐고 막 끊고 쇠를 박으니 이게 오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 오염을 막는다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끊어진 세포를 잇고…, 하여튼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체가 없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그 오염을 전체 깨끗하게 막아 준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극이고 북극이고, 만년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북극에서 남극으로 통로가 돼 있다면은 남극 바로 옆에, 아래 옆에 또 통로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 분비물이 다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비었죠. 지구가 비었다고 볼 수 있죠. 사람도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듯이,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비었는지 차있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보면 그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달도 비고, 해도 양극이 크게 구멍이 나서 연결이 되니까 양쪽으로 들이고 내고 하는 그 소통이 아주 정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팽창되지도 않고 너무 타버리지도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이렇게 소통이 잘되고 이러는 것도, 수명이 길게 되고 짧게 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우리 마음이 은하계에 결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이런 얘길 했다면 '저 스님 왜 저래.' 이럴까 봐… 십 년 전에도 내가 한마디 웃으면서 한 얘기가 있죠. "야, 지구도 비었어. 달도 비었어. 모두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차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야"라고요. 화성에도 사람이 살다가…, 생명이 없으면 공기가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대기권이 없어지고요. 그것은 모두가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체가 좀 살아나고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생명이 자라게 하려면 자라게 하고 또 생명이 없어지게 하려면 없어지게 하고, 불이 생기게 하려면 생기게 하고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권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은 부처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도 모르면서 그냥 죽을 수는 없죠. 죽는 게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새로 살림을 하자면 너무나 처참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항상 둘이 아니라고 하죠? 내 부모, 네 부모가 따로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하면서 형성돼 올라왔고 진화돼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 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이름은 벌써 우주에다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짓말 같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데 글자 쓰는 것만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상하다고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상하다고 하는 소리 난 뭐 백 번도 더 들었으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외국으로 돌면서도 간곡히, 삼백 몇십 년 전만이 아니라 불에 타 죽고 하던 시대에 있었던 영가들도 그렇게 좋아서, 물에서나 어디서나 다 좋아서…, 폼페이인가 하는 거기도 세 지역이 물로 이렇게 같이 돌아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렇게 우리 스님들이 한 바퀴 도는데 전부 선처를 빌더랍니다. 그래서 다 해 주고 왔다고 합디다. 우리 스님에게도 직접 그렇게 부탁을 해서, 어떤 때는 한잠도 못 자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 해 주고 끝내고 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죠. "그렇게 밤까지 샐 게 뭐 있니? 마음인데, 허허허…, 이 종지의 물도 (법상 위의 컵을 가리키시며) 바다로, 바닷물로 만들 수 있다. 마음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한계가 없다. 그리고 과일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갖다 놔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를 알고나 가야죠.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동시에 내 집을 길이 길이 보존하게 함으로써 그 차원이 정말 높아져서 세세생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 사실도 또 덧붙여 아셔야 됩니다.



그림 · 최주현

# 마음은 체없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죠

# 지구·달·태양 수명도 마음에 달려있어

그래서 어느 스님이 이렇게 물어요. "스님은 왜 우주떡 하나를 해 놓고 그렇게 천도를 하십니까?" 이러길래 "아, 평생에 살면서 한평생만 아니라 수없이 그 억겁을 내려오면서 먹고 벌고 파고 그냥 입고 싸우고 죽고 이러면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을 면제해 주려면 우주에다 집어넣어서 너 마음대로 먹고 너 마음대로 해라고 한다면 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空)한 줄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너지만 충당할 줄 알면 그뿐이지 뭘 그렇게 그럽니까?"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들이 이렇게 그냥 부처님 한 분 모셔 놓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나는 뼈저린 아픔으로 부처님 한 분 한 분 모셔 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부처님 한 몸이 여러분의 몸도 될 수 있고 내 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정신계로 들어가라고 하니, 공에 빠져 물질계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이 아니라면 여러분 자체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정신이 빠져도 육신은 송장이 되니 무효고, 또 정신계만 있으면 보이지 않아서 무효고, 그러면 어떡해야 옳을까요? 정상체로 만들려면 정신계와 물질계가 혼합이 돼서 정상으로 사셔야 정상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정신계와 물질계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부처의 몸과 우리의 몸이 따로 있는 걸로 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 부처와 중생 같이 있어

'부처님의 몸도 네 몸과 같이 생각하라. 부처님의 마음도 네 마음같이 생각하라. 또 부처님의 법도 너의 생활의 법과 같이 생각하라. 아래로 내려가서는 네 아픔이 전체의 아픔인 줄 알고 살아라. 모두가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으니 나누지 말라.' 이렇게 모두 말씀해 놓으셨지만 내가 무식한 게 여러분한테 다행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유식했으면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직선적으로 그냥 무식한 대로 그냥 이렇게 내질러서 말을 하지 않고 아주 지식적이고 학술적으로 잘 만들어서 착 내놓죠, 하하하…. 그런데 나는 워낙 촌에서 호미자루만 들고 밭매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무댓방 내가 아는 대로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상당히 쉽단 말입니다, 알아듣기가. 안 그렇습니까?

**대중**: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니까 이익이죠, 허허허…. (대중 박수)

지금 이 우주에 관한 것도 말 못할 문제가 너무도 많아서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만이 아니라 말을 해서 그 마음을 먹고 있으면 또 마(魔)가 들까 염려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귀신이든 사람이든 어떤 영가든 둘 아니게 다루는 멋있는 법이죠,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정말 성한 사람인가.' 이럴까 봐 난 더이상 그 말을 못합니다. 나중에 또 모르죠. 여러분이 그것을 집어넣고도 소화가 될 수 있다면 모르죠. 그러니 그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니 하면 안되리만큼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에 관한 건도 천차만별 차원의 종자가 얼마만큼 커서 아주 그냥 깎고 깎아 여기 하나도 붙지 않는, 하늘을 닿게 할 수 있는 배나무가, 누런 배가 다섯 개가 열려있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보세요, 그 배가 무얼 먹고 사나, 무슨 생명을 뜯어먹고 삽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꼿꼿하게 올라가서 우주를 삼킬 수 있는 큰 배들이 열렸을 때,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가.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그 나무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런 나무로서 화(化)해서 등장을 하신다면 이 우주를 한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한 검부락지로 들어도 아마 잘 보존해서 들릴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그렇게 일을 하면 우리가 무(無)의 수행자일 뿐만 아니라 무의 과학자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나 유(有)의 과학자는 그렇게 들 수가 없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물컵이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보고선 저 물컵이 다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물컵을 들어서 옮겨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이라도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이고, 또 보이는 데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모두 무(無)에 또 입력이 된다고 제가 말씀했죠.

그러니 우리가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잠이 드나 일을 하나, 모든 것을 그 놈이 한다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 까닭입니다. 여러분이 좋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건질 수 있고, 하나하나 오는 사람만 건지는 게 아니라 모두를 다 건질 수 있고, 진화시키고 창조해서…, 그것도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이런 말 없이 그냥 묵묵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일체가 다 미친 짓을 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모두가 급하니까요. 점차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급하게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싱긋이 웃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한 말이 내 말입니다. (대중 박수)

아유, 저 캐나다에 갔더니요, 비디오 찍는 사람, 뭐라 그러죠? 그거. (대중 속에서 '프로덕션'이라고 말을 함) 하하하…, 이렇게 무식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익이에요, 하하하…. (대중 웃음) 아이, 아주 그냥 쫓아다니면서, 저수지에 가도 쫓아오고 뭐 어딜 가도 쫓아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착하고 한편으론 조신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자상하다고나 할까요? 쫓아다니는 게, 하하하…, 그런 걸 당하고 내가 먼저 왔습니다. 안 왔죠, 아직? 오늘 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서…, 거기 참, 그 얘길 안 해 드렸구나. 독일에서도 한 이백 명이 왔구요, 그 대사나 공사, 이런 분들도 그렇고, 거기는 불교라는 이름도 모르고 불교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스님네들끼리 나가면은 구경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독일말 하는 스님더러 그랬어요. "저 사람네들 구경하고도 구경값을 안 내고가니 무슨 연고냐고 물어라." 이랬거든요, 하하하…. (대중 웃음) 그래서야, 독일 사람한테 그런 얘길하니까 그냥 아주 우스워서 죽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독일 사람도 반 이상이 오고요. 그래서 동시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스님은 또 거기 말을 잘하구요. 거기 또 한 사람이 동시통역을 잘해서요. 그렇게 해서 모두 잘 치뤘습니다. 지원도 아주 좋구요. 들어가면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가 하늘하고 뚫리구요. 유리로 막아서 집안에 연못이 돼 있고 나무가 그 안에 있고 그러면서 바람이 불면 안에서 나무가 흔들리고 그래서 좋습디다. 하여튼 절터도 넓직해서 좋고.

## 소소한 것 다 버리도록

또 캐나다에 가니까요 한인회관이라나, 내 이렇게 무식하다니까요. 이렇게 무식해두요, 거짓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낫죠, 살기가. 그래, 한인회관을 샀는데 무척 넓어요. 법당도 무척 넓고 부처님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청정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주차장이요, 아마 빌딩 하나 세울 정도로 넓어요. 그래서 좋구요, 거기다 천막을 치구요. 그랬는데 그냥 한 천사백 명 정도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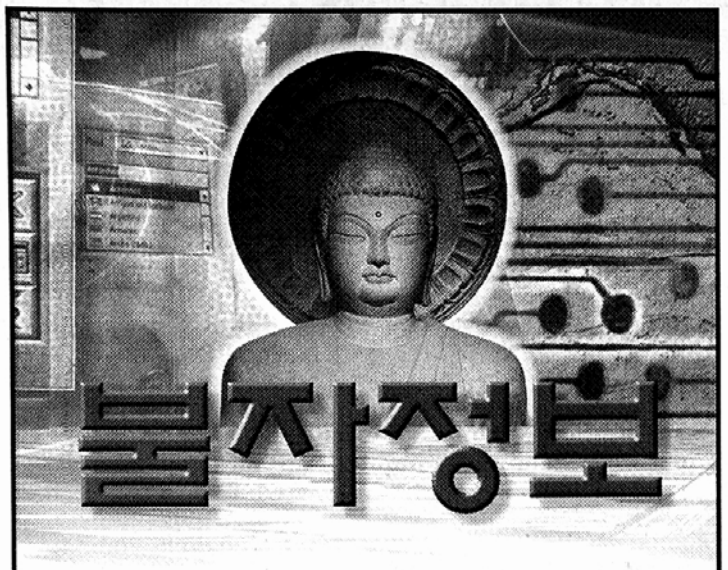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날더러 물기를요, 그 어느 종교의 뭘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머리를 칭칭 동여맨 외국 사람인데요,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네요. 그래서 네 놈이 했다 그랬죠, (대중 웃음) 네 놈이. 불이라는 놈하고, 물이라는 놈하고, 흙이란 놈하고, 바람이란 놈하고 그렇게 넷이서 창조를 했다구요. 그 내가 무식하길래 그 사람도 알아들었지 만약에 내가 유식했더라면 그 사람 못 알아들어요. (대중 웃음) 하하하…. 아, 정말이에요. 그게 외국말로 이 부처님 법을 잘 아는 분들이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무식하게 그냥 물이다 이러고, 하하, 얘길 하니까 아주 잘 알아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손을 반짝 들고 좋아서 그냥 그러더군요. (대중 웃음)

그러니 때로는 무식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도둑질을 해도 크게 못하고 조그맣게 하고 그런다는데 이건 도둑질이 아닌 도둑질을 하려면 여러분도 나를 따라서 다 도둑놈이 돼 가지고, 이 세상을 다 홈빡 한 손가락 안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소소한 거는 다 버리세요. 다 버려서 그 안에 놓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지 딴 데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버려도 그 자리에 있는 거지. 허허허…. 그러니까 우리 외국에 갔던 얘기 다 해버리면 요다음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걸로써 끝냅니다.

※위 법문은 1996년 11월 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강좌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신입생 3600명 모집 (53기)
- 9월 28일까지 (주간, 야간반)
◆7층 7보탑 낙성식
- 9월 20일 (1인 원불 접수중)
◆행자 모집 (행자원 2기)
- 선착순 10명
- 노동아닌 교육위주
- 신사고, 개혁불교의 산실(남 · 여)
◆통신과정, 인터넷 과정 모집중
(www.TVbuddha.co.kr)
053)474-8228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주지 우학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저자

**견성체험지도** 책 · 테프 판매!!
1.생물 = 생명(?+업) + 육체(원소)
(1).?; 자유자율성, 不生不滅, 능동, 無形, 무념, 무주처, 무게부피無
(2).업(기록물): 경향(습관)성, 有生不滅, 有形, 유념, 유주처, 무게부피無
(3).육체(물질, 무생물): 법칙성, 부자유, 수동타율, 生滅, 有形, 무게부피有
2.견성 ; 볼래야볼 수없는 ?을 ? 이보는경지
3.깨달음 ; ?이 나다라는 확신이 서는 경지
4.성불 ; 자신의 의지로 맑고 청정한 본연의 ?의 상태를 유지하는 대원경지
**박민수 참선 교육원** 02)2601-9486
http://min soo zen.pe.kr 017)609-9068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새천년 새인연 팔공산 약사정사**
**(천도도량)신비한 맥반석약수**
뇌졸증, 중풍초기, 당뇨병
유방암, 위장병, 피부병, 계골물이졸졸
불사평생 함께하실
(60~75세 노보살님, 노처사님 구함)
기도하며 살아갈 방있음
(사법고시 성취자 환영)
053)985-6630
011)9554-6900

**전통범패 불교의식 모집**
◈기초반, 중급반
◈강의 내용 : 예불, 아침쇳송, 저녁쇳송, 상단축원, 중단작법 태공, 도량석, 도량게, 복청게, 천수바라 태징 쩍는법, 북치는 법, 관음의식, 현자게 개인지도 가능
031)865-4893
011)661-9119

구인구직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정릉)
02)917-336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917-3363

**기도하며 공양주 하실 보살님을 구합니다**
조용한 산속 암자
경북 상주 관음사
054)532-0614

**보살님을 모십니다.**
(공양주 매점 보살)
061)434-0837
011)9611-8242

**(50대 비구스님)**
1. 조용한 암자 관리하여 드립니다.
2. 3년간 기도 부전스님 구하는 절은 연락바람.
011)9328-6661

**인연되는 절을 찾습니다**
(비구스님)
부전스님을 구하시는 절이나 스님이 필요하신 절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011)9545-1903

**보이산차**
벽돌전차, 육보차
**칠지병차 소타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도매가 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니다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불교용품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932-7252
011)545-7252
김 창 본 처 사

기타

**철학 교육 전문**
사주 · 신수 · 택일 · 작명
· 직업및 취미로 개업을 원하는 분
· 남여 누구나 초보에서 감정까지
· 정통철학을 스님 직접 책임지도
(상담확인후 선택바람)
053)944-1127
**인 각 사**

**대체의학 체험교실 회원모집**
(성인병 예방과 치유)
비만 · 당뇨 · 관절염 · 만성피로
위염 · 간염 · 고혈압 · 정력쇠퇴
· 2000년 9~12월(월 · 금 오후2시)
· 장소:연화사(시흥대로 한양아파트 앞)
02)809-4542/011)232-8275

**(제주도) 중문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찰부지, 토굴부지, 별장지, 콘도부지, 연수원부지, 요양원부지, 과수원 기타 사실분, 파실분 환영
· 급매물 중문관광단지 입구 대지 340평 지하 1층 자상2층 가든 및 민박 최고 요지
064)738-7497~8
011)697-7496

**다도 교실**
차에 관한 기본 교육
· 차마시는 법 · 행다법
· 명상법(단전호흡법, 관법)
· 도자기 근실(찻잔만들기)
· 1박 2일 숙식제공
· 지리산 다도학동(지리산쌍계사부근)
055)883-9321
http//:internet.hitel.net/~19321

**쎤라이더 식품**
(CSUNRIDER)
음양오행 재생철학
(모방 할 수 없는 우수한 제품)
230여종의 초본 식품 복합처방
성인병 예방, 당뇨, 고혈, 저혈, 콜레스테롤 혈액순환 불량, 수족 냉증 등
※본업외 싸이드 비지네스 일하고 싶은분 안내해 드립니다.
019)229-8711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사찰안내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시내
◆ 대지 : 300평, 임법당30평
◆ 산세수려하고 석간수가 나옴
042)624-5712
011)209-3622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시 북구소재
◆평수 : 2층 40평(시설양호) 법당방2개, 삼존불탱화
◆가액 : 전세500만원 (월25만원) 시설 1500만원 (절충가)
051)337-0648
016)554-2308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남해소재
◆평수 : 1200평 법당10평, 요사채2동 용왕당 , 주차완비
◆가액 : 8500만원
055)862-6199
017)856-3617

**사찰(급) 안내**
◆위치 : 강원도 태백산 도량
◆평수 : 약830평
◆특징 : 법당20평(목조), 요사채3동 각30평씩, 방6개, 산신각, 종각, 3층탑 5층탑, 미륵불, 지장전, 납골당불사주
읍내 소재지 기차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스님이 몸이 안좋은 관계로
◆가액 : 답사후 결정
02)2618-0767/011)753-0768

**최신시설도심포교당 안내**
◆위치 : 지하철 잠실역, 강변역에서 20분거리
◆구리시장 한복판 현대 일급자재 인테리어,완벽한 포교당, 불교 학교시민선방
◆ 4층 다목적 교육공간50평, 5층, 법당등 50평,옥상 휴게공간, 각층 냉난방 남녀 편의 공간완비, 후원시설 일급 공양주 생활 도구 등 충족
◆ 가액 : 1억
TEL 031)557-2266~2267
FAX 031)557-2268 (금당스님)

**포교원 안내**
◆위치 : 대구광역시내
◆평수 : 2층 48평, 법당30평, 스님방1, 신도방1, 샤워장, 조리장, 옥상사용가능,시설완벽
◆가액 : 보증금 시설비포함 2900만원, 월35만원
011)790-7162

**사 찰 (급) 안 내**
◆위치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대지 : 435평 종교대지 등기필
◆건물 : 법당31평, 목조(삼포,오포,금단청필) 요사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명부전9평 단청필, 주지실 · 사무실12평, 창고 약4평 주차장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 가능
◆가액 : 8억 건물완공4년, 총공사비 12억,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특징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도량으로 창건주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에 양도합니다.
055)294-4889 / 02)351-4447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특별시 소재(지하철 근접)
◆대지 : 55평 ◆법당 : 35평(2층)
◆요사 : 40평(1층)
전통사찰기와 및 단청완료
도심포교 사찰로 최적지
법당 내부시설은 최고임
◆가액 : 3억 5천(융지있음)
◆위치 : 용인시내 소재
◆대지 : 500평 ◆법당 : 15평
◆요사 : 20평
뒤는 산이며 마을 끝에 위치함
용인 도심에서 7km 떨어짐
◆가격 : 4천만원
한국불사 02)561-7791 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암자 양도,양수하실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위치 : 부산근교
◇법당, 요사, 참선방, 주차장
◇부지 : 8,000평
◇가액 : 6억 5천 (답사후 절충가능)
청송기획 (주인)011)9314-0780 (서울)0502)900-5775

**사찰부지 안내**
◇위치 : 경북 영천
◇부지 : 690평 (대지82평, 준농 608평)
◇가액 : 1억 4천만원
◇특징 : 영천시내에(5분) 인접하고 산세수려하고, 웅장한 바위가 있고 강이 내려다 보이는 천혜의 기도 도량터임
(서울)02) 998-1994
011)713-5634

**토굴터 및 별장 안내**
◆위치 : 충남 홍성읍
◆대지 : 800평, 건축면적45평
◆특징 : 백월산 산세수려, 정원완비, 집앞까지 도로포장완비
◆가격 : 3억 5천 (답사후 절충가능)
041)633-387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강원 경계지역 서울에서 1시간 40분 거리
◆ 부지 : 2만 7천평
◆ 건물 : 대웅전, 무량수전 지장전, 산신각, 용왕각, 선방 요사3동(전체 단청완료)
◆ 산세가 수려하며 맑은 계곡물이 흐름
◆ 가격 : 답사후 절충
(중간소개배제/직접당사자임)
017)373-5998

**사찰 안내**
◆ 위치 : 청주시 근교
◆ 연역 : 60년 전통 불교 사찰
◆ 법당20평, 요사채40평, 기타건물3동, 대지 6700평 부지 임야2필지 납골당 건립가능
◆ 가격 : 5억
043)260-6766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남 온양시 신인동
◆ 법당, 목조단청12평, 요사채13평 (수세식 화장실 2개), 산신각4평 약수有
◆ 가격 : 4천 8백만원 (절충가능)
017)705-6531

**사찰 안내**
◆ 위치 : 남원 전주간 국도 2분거리
◆ 대지 : 120평, 법당30평 방7개, 삼존불(108불조성)
◆ 가액 : 6천만원
063)634-8607
017)622-1491

**사찰 안내**
◆위치: 지리산 청학동입구
◆건물: 임법당1동, 요사채1동 (방4개)
◆특징:주방, 욕실, 화장실 별도, 현대식 시설, 통나무집, 방2칸 주변경관이 좋고 주차장있음.
※하동화개 지리산 햇차 판매
포교원(전세) : 부산 동래 안락동 전세2천만원 월30만원 권리금2500만원
011)842-4549

**토굴 안내**
◆위치 : 강원도 삼척시
◆평수 : 40평
◆가격 : 700만원
033)573-7190
016)793-3337

**사찰 안내**
◆위치: 지리산 청학동입구
◆건물: 임법당1동, 요사채1동 (방4개)
◆특징:주방, 욕실, 화장실 별도, 현대식 시설, 통나무집, 방2칸 주변경관이 좋고 주차장있음.
※하동화개 지리산 햇차 판매
011)842-4549

**포교당 안내**
◆위치 :신대방3거리 전철역 (7호선)옆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방 3개, 부엌, 화장실
◆가액 : 보증금 5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1천만원 또는 보증금 3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741-2087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부지 : 5800평중 대지600평 전 5,200평(준농림)
◆법당22평, 산신각4평, 요사채30평 (2동), 공양실 12평
◆특징 : 주변산세, 경관 뛰어나며 기도도량임. 납골당 최적지
◆가격 : 답사후 가격 결정
054)954-0391/011)501-2219

**사찰 · 요양원 · 수양원 · 콘도 · 별장**
◆ 소공원 하실 분, 국립공원 입구
◆ 남 덕유산 맑은 물 계곡이 휘감아 흐르는 연화봉으로
◆ 둘러싼 가운데 3,000 여평의 땅이 있읍니다.
◆ 진입로 포장 · 계곡 교량공사 중이니 귀하가 하신다면 5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비를 절감하는 이익을 보시게 됩니다.
◆ 가격 : 답사후 절충 ①2,590㎡, ②1,625㎡, ③5,024㎡ 필지별 분할 매입 가능
055)944-7049/016)750-7049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통영시내
◆평수 : 2,000평
◆건물 : 법당1개, 요사채2개
◆특징 : 시내속에 산사, 바다보임
◆가격 : 권리금1천만원 (월 20만원)
055)646-2766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청양
◆부지 : 300평, 법당2층 30평, 요사채 80평
◆특징 : 포교당 적합, 읍내소재지 터미널에서 5분정도
◆가격 : 3억 5천만원
041)943-8454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명시 새마을시장 3층
◆ 평수 : 35평, 10년되었음
◆ 가격 : 5천만원
02)2618-0767
02)687-5544
02)683-8444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소재
◆ 부지 : 약15,000평, 법당30평 요사채 약60평(방15개)
◆ 가액 : 4억
◆ 특징 : 기도 정진할 도량으로 이주 좋으며 석관수가 유명하여 대구 인근에는 널리 알려진 고찰임
※ 전국의 사찰, 절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인연됩시다
02)326-1060
053)964-2060
018-334-9021
**동진불사**

**사찰(급) 안내**
◆위치 :서울시 은평구
◆대지 : 60평
◆건물 : 법당10평, 요사채10평, 방2개
◆특징 : 울창한 수목과 편리한 교통을 갖춘 위치며, 골속에 미륵부처가 자연으로 있어 기도생활에 큰 도움이 됨. 무속인 양도 가능
◆가액 : 1억 1천만원
02)354-3844

**포교당 안내**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중동역 (동신 APT 옆)
◆ 건 물 : 3층 24평 법당1, 방1, 상담실, 삼존불, 탱화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800만원
032)654-5859

**토굴 안내**
◆위치 : 경북 청도 강남
◆건물 : 15평 심야보일러 지하수 시설 최고급
◆가액 : 2800만원
054)372-5040
011)9589-4183

### 의료계 파업… 대화없는 의-약-정-민

# "한발씩 양보 생명 살리자"

'마음이 맞으면 삶은 도토리 한 알을 가지고도 허기를 면할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 신의와 배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삶의 재산이다. 하지만 이것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한들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계속되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간의 갈등을 보고 있노라면 신의와 배려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힘들다. 의료계는 구속자 석방 등의 협상 선결조건을 내세워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정부는 "줄 것은 다 줬다"며 관련자 처벌 등 강경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대한약사회마저 15일 범약계 대책회의를 갖고 의료계 폐업에 맞대응하겠다고 나섰고, 시민단체와 노동계 종교계가 참여한 범국민대책회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의료계 집단폐업 철회를 위한 시민규탄대회를 여는 등의 실력행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의-정간에 형성됐던 대립구도가 의-약-정-민 4중 대립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 모두 이유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정간의 대립이 자존심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고, 의료계의 요구는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의료계나 정부의 주장이 옳건 그르건 간에 이로 인해 상당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약분업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작됐다고 솔직히 인정했으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자세고, 의료계는 약사법 재개정과 구속자 석방 등의 요구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서로가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다보니 대화가 될 리 없다.

〈백유경〉에 이런 설화가 있다.

다섯 사람이 집안 일을 돌볼 사람을 샀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옷을 빨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도 차례로 자신의 옷을 빨아달라고 말했다. 입장이 난처해진 집안 일을 돌보러 온 사람은 "먼저 부탁한 사람 것부터 빨고 난 뒤 순서대로 옷을 빨아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은 벌컥 화를 냈다.

한 사람이 "나도 저 앞사람과 함께 너를 샀는데 어째서 저 사람의 옷은 먼저 빨아주고 내 옷은 늦게 빨려고 하느냐"하고는 곧 열 대의 곤장을 때렸다. 다른 사람도 화가 나서 모두 열 대씩 때리자 그 사람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는 큰 교훈이 담겨져 있다. 대화와 화합의 시작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를 내세우고 고집을 피울 때 대화는 이뤄질 수 없으며 화합될 수 없다. 물론 대화를 무원칙한 타협과 동일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우선시하라는 것이다.

대립과 투쟁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의료대란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정부의 무원칙과 한심한 정책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의료계에 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료계가 자신들만을 위한 '집착'에 연연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말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왕이 싸우고, 높은 지위에 있는 바라문과 바라문도 다투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끼리도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한 바라문의 질문에 부처님은 "왕과 왕이 싸우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탐욕에 매이고 집착 때문이며, 수행자와 수행자들이 싸우는 것은 자기 생각에 매이고 집착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방등경〉에 "참다운 뜻은 참다운 말을 많이 들음으로써 얻게 된다. 많이 듣는다는 것은 뜻을 잘 알라는 것이요, 말을 잘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가르침이 있다.

고집과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다보면 제각각의 입장에서 의약분업의 참뜻을 살리는 길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은 의료계가 먼저 폐업을 풀고 대화에 나서길 바라고 있으며, 정부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정말 그만 할 때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

'시내버스 바로세우기' '좋은 택시 만들기'

## 대중교통 고발사이트 인터넷 시민운동 활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인터넷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대중교통 고발사이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 운전기사가 시작한 '시내버스 바로세우기 운동(buslove.hihome.com)'은 버스회사의 불법을 운전기사들이 직접 고발하는 사이트로 인기가 높다.

'좋은택시만들기(www.goodtaxi.pe.kr)'와 '나쁜택시만들기(www.badtaxi.pe.kr)' 사이트는 택시의 불법운행 등을 고발하는 사이트. 이곳에서는 승차거부, 합승 뿐 아니라 핸드폰을 들고 운전하는 택시기사, 담배를 피우고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들에 대한 고발 등이 줄을 잇고 있다.

지하철 역세권에 대한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 '메트로인포(www.metroinfo.co.kr)'는 매주 지하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공개하고 있다. 또 '버스닥(www.busdaq.co.kr)'은 시민들이 칭찬이나 고발하고 싶은 버스를 인터넷에 올리면 게재된 글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주가를 산정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 폐기물 예치금 대폭 인상

환경부는 15일 빈병 등 각종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예치금을 최고 7.5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료 용기로 쓰이는 종이팩의 경우 250㎖ 이상 중대형 제품은 개당 40전에서 3원으로 7.5배 오르고, 화장품 및 살충제 용기와 형광등이 이번 폐기물 예치금 부과 품목으로 편입됐다.




**일본 정부 사죄하라**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태평양전쟁 희생자 범국민 위령제'에 참석한 유족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희생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다.

## 실업급여 가짜 수령 늘고 있다

실업급여와 채용장려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96년 50명에 불과했던 실업급여 부정 수령자가 지난해말에는 8천22명으로 160배나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2천4백40명이 8억2천8백만원을 불법으로 탔다. 기업체 채용장려금의 경우는 올 상반기에만 95건(36억여원)의 부정수령 사례가 적발돼 지난해 82건을 넘어섰다. 이는 당국에 적발된 건수이므로 실제 부정수령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진실로 내 것이 아니면 버리라"고 강조했다. 이 갈 속에는 재산과 권력, 명예와 사랑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포함된다. 괴롭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실업급여와 채용장려금 제도는 실업자의 생계보장과 재취업 등을 돕는다는 취지로 정부가 96년부터 도입한 것이다. 바로 그런 제도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구차하고 수치스러운 행위인가. 자기 자신마저 버리라는 쿠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자신을 내던지는 사람들의 삶이 주는 교훈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

## 인간배아 복제 英, 세계 첫 허용

영국이 의료를 목적으로 한 인간배아 복제를 세계 최초로 허용했다.

영국 정부는 16일 최근 제출된 '초기 단계 배아에서의 간세포 복제 허용 권고' 보고서를 승인하고 기존의 인간 배아복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과학자들이 초기 단계의 배아로부터 세포를 추출해 피부와 다른 조직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번식을 목적으로 한 복제는 계속 금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배아의 간세포를 이용해 백혈병, 파킨슨병, 치매 등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혁명'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복제가 허용될 경우 완전한 형태의 인간복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윤리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아 자체도 생명으로 여기는 불교 등 종교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불교는 과학의 발전이 어디까지나 인간과 자연이 지니고 있는 본래 가치에 바탕에 두어야 하며,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잃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아무리 의학발전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도덕적·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성을 수반한다면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 시론

#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 남으로 왔다. 오직 아들 하나만을 기다리며 절에서 긴긴 세월동안 기도를 하고 살아왔다는 신재순(89) 할머니와 김일성대학 수학박사가 되어 돌아온 아들 조주경(68)과의 만남.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 할머니의 아픈 아픈 시간들이 내 가슴으로 흘러들고 있었던 것이다. 애타는 그리움 슬픔, 피우고 또 피운 향불과 촛불과 수십만 번의 절과 쌓은 공덕과 보시를 섞어 피륙처럼 엮어온 시간.

### 50년 이산과 짧은 만남

서울의 한 무용연구소에 춤을 배우러 갔다가 실종되었던 소녀가 북의 한 대학교수로서 50년만에 홍길순 어머니와 언니 동생들을 만나러 오고 있었다.

"옥배야!" "어머니!" "언니!" "누님!"

어머니(88)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을 소리쳐 부르고 딸(62)은 오매불망 그리던 어머니를 부르며 울부짖었다.



한승원 〈소설가〉

55분이면 넉넉하게 날아올 수 있는 평양과 서울 사이의 공간을, 북한의 국기가 그려진 고려항공기는 50년의 피맺힌 그리움과 슬픔의 시간을 넘어 서울 김포 공항으로 날아들어오고 있었다.

한반도의 역사는 잔인했다. 누가 우리 동포들을 저렇게 헤어져 살게 해놓았다가 50년만에 다시 만나게 해주고 있는가. 한반도 한복판에 현대의 눈물겨운 신화 한바탕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남과 북 이산가족 만남의 자리가 마련된 서울 코엑스 종합전시장과 평양 고려호텔에는 수백 개의 신문 방송의 특종감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용틀임하고 있었다.

나를 울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북에서 온 임재혁(66)이라는 남자와 남쪽에 사는 그의 아버지의 만남이었다. 임재혁은 청구중에 다니다가 의용군에 나갔고, 그의 아버지는 그가 죽은 줄 알고 사망신고를 했다. 50년만에 저승에서 돌아온 듯한 임재혁은 울부짖으면서 아버지를 불렀다. 한데 아버지는 치매로 말미암아 "내 아들아!"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반가운 표정 한 번 짓지 못했다. 아들은 슬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 비틀거리고 땅을 치면서 아버지에게 큰절을 하고 통곡을 했다. 하얗게 지워지고 없는 그 아버지의 기억파일이 한반도의 아픔을 모두 말해주고 있었다.

의용군에 징집되었다가 돌아온 이종필과 그의 어머니 조원호(100)의 만남을 보면서 나는 "아하! 그렇다"하고 탄성을 질렀다. 조원호는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고, 아들 딸 며느리 그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한데 죽었던 아들 종필이가 돌아왔다고 말하자, "우리 종필이가? 아이고 우리 종필이가?" 하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은 채 말을 한 것이었다. 이종필은 100살난 어머니를 부둥켜안은 채 "지금까지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하고 통곡을 했다.

1992년에 발표한 '아, 나의 어머니'라는 시로 이미 남쪽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북의 계관시인인 오영재(66)는 5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형과 동생들을 끌어안은 채 울부짖었다. 그는 그 동안 어떻게 견디어 왔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슬픈 앙금같은 말 한 마디를 뱉었다. "꿈길에 수만번 오가면 바위도 모래가 된다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오는 길이 이렇게 모래밭길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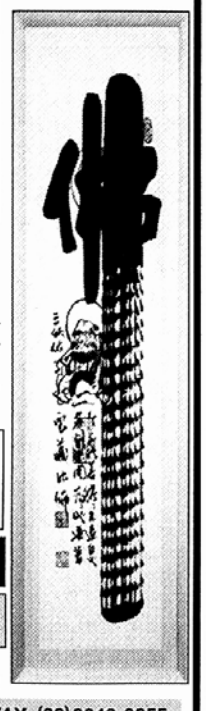
### 희망 있으니 슬퍼 말자

그가 쓴 시 한 대목이 떠오른다. '늙지 마시라, 어머니여… 세월아 게 섰거라. 통일되어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너 기어이 가야 한다면/어머니 앞으로 흐르는 세월을/나에게 다오/내 어머니 묶까지/한 해에 두 살씩 먹으리.'

우리 슬퍼만 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자. 남과 북의 만남과 화합은 이제 시작이다. 바야흐로 통일의 물꼬가 트였다. 경의선 경원선이 이어지면 우리 물품이 값싼 운송료를 물고 그 선을 타고 대륙으로 팔려갈 것이고, 우리들이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 기차를 타고 오가며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 남의 기술과 북의 노동력이 만나 양쪽이 다 잘 살게 될 것이고, 머지 않아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장에는 한 팀이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토가 될 것이고, 이 우주의 한 복판이 될 것이다.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cmhouse.net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바로보인 환단고기 1
대원 문재현 역저
시공이 나뉘기 이전인 태초의 모습과 우주 탄생의 비밀을 최초로 밝히다 !
『환단고기』는 세계를 다스린 웅장한 고대사의 주인이었던 우리의 고대 역사가 담겨있는 역사책이다. 또한 역사책이라고는 하나 태초로부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책이다.
이를 통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광활한 민족사를 찾고 황폐해진 인류 정신을 다시 꽃피우고자 하는 것이 『환단고기』를 오늘에 맞게끔 되살려 『바로보인 환단고기』로 펴내는 뜻이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4권 중 1권은 민족정신의 정수이자 우주의 영원한 역사인 『환단고기』의 삼신일체사상을 총정리하여 출간하였다. 이어서 2, 3권에 환국에서 단군조선에 이르는 고대 역사와 북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의 역사를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대순으로 정리하여 출간할 예정이며, 4권에서는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글을 실어 출간할 예정이다.
특히 2, 3권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여러 역사 문헌을 근거하여 『환단고기』의 기록을 부인할 수 없게끔 최선을 다하였다.
『환단고기』가 전하는 선조의 지혜에 가만히 귀기울여 보라.
정신과 물질이 나뉘기 전 우주의 모습과 인류 정신의 시조였던 조상의 진면목에서 태초로부터 고대가 오늘에 살아 숨쉬는 당신의 실존을 확인할 것이다.
☞ 바로보인의 책들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우운관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벽암록 영원한 현실
바로보인 천부경 세월을 묵채로 세상을 묵상아
○ http://www.zenparadise.com ☎ 597-2460

보덕현호 시집
사랑과 時 바람의




바람은 언제나
당신을 휩싸고 돕니다.
머언 하늘을 나르는 나비도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당신이 떨고 있으면
바람은 당신을 감싸 녹여 줍니다.
당신이 밉다고 떨치려 해도
바람은 언제나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속에도 입가에도
떨리는 손끝 흔들리는 옷자락에도
바람은 살며시 숨어 있지요
우리가 늘 만날수 있듯이
바람은 항상
우리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것을
감싸고 달래주면서
바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흘러가며
허공에 나래를 폅니다.

A5신 144쪽 값 4,500원
※ 구입안내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명상시집
· 정화의 빛 - 값 4,500원
· 고향의 숨결 - 값 4,500원
· 달마를 보라 - 값 5,400원
· 해 탈 - 값 5,000원
· 마음의 창 - 값 7,200원
도서출판 정화사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우)339-830
Tel: 041) 867-4000
Fax: 041) 867-4001

남여 불교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3개월)
불교학교리(반야심경, 불교성전)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불교예절(교양 상식 계행 언행) 사미율리 초발심자경의 해설
· 신도5계 득도수계 입실건당 보살계 비구비구니계 해설 및 수계
· 법당 불상 탱화 연단 및 불기구 배치법
· 불공 기도 축원법 (삼보통청 관음지장신중 산신칠성 독성 발원)
· 불교교리 및 불교 역사 중요골자 발취 강의 납골개설 사업 운영등
◆모집인원 : 27명(선착순) ①교리반 9명 ②사물반 9명 ③포교반 9명
◆원서접수 : 현재 접수중
◆개강일시 : 매월 1일 11일 21일 개강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서방정토극락세계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 승니, 재가, 불교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월 회 비 : 백미한가마(숙식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6-27(나드리프라자 4층)
한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전화 032) 543-2693~5

# 교계복지관 가정문제 상담 '인기'

*'부부 · 자녀 문제, 고부간의 갈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 줍니다.'*

*경제 위기로 실직한 가정의 '가 정불화 상담 프로그램'을 주로 운 영해 온 교계 복지관들이 남편의 구타문제, 성폭력, 자녀교육 문제, 가정 법률문제 등까지 범위를 넓 혀 상담활동을 펴고 있어 불자들 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현상 은 남편의 구타 및 외도로 인한 부부문제, 고부간의 갈등 등이 경 제 한파 이후 다시 심각한 사회문 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복지관 상담사들의 공통된 의견이 다.*

### 과천복지관 남편폭력 · 갈등 전문가가 지도
### 제천복지관 이혼등 법률문제 무료 상담
### 자양복지관 자녀교육 · 부모역할 토론 · 특강

실제로 지난달 20일 여성의 전 화 연합회가 전국 19개 지부의 상 담건수 4만4천174건의 내용을 분 석한 결과 남편의 구타로 인한 부 부문제 상담이 전체의 23.1%(1만 206건)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정폭력(18.1%, 7천974건) △가 족 법률문제(15.5%, 6천859건) △고부갈등(3.3%, 1천457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청소년 자녀문제 등도 7.5%(3천289건)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교계 상담프로그램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의 '가정상담실'이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상담실은 남편 폭력문제, 부부간의 성격으로 인한 갈등 등을 전문 상담사가 상근하며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받고 있다. 필요시에는 가정 폭력으로 피해자들이 얻은 무력증, 우울감, 공포감 등 심리적 증상과 신체적 피해 정도를 전문가에게 의뢰 분석해 준다.

97년부터 상담실을 운영해 온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법률 전문가가 이혼문제, 성폭력 문제 등 가정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 남편의 외도로 별거 중이던 청정심보살(50)은 전화와 방문상담을 통해 남편을 용서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되찾은 사례도 있다.

대구 여성의 전화 부설 대구가정폭력치료센터도 가정내 폭력에 시달리는 개인은 물론 가족집단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 추방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10시~오후5시까지이며 전문상담원이 고정배치돼 전화 또는 대면상담으로 이용자를 맞이한다. 특히 센터측은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훈련, 스트레스 관리, 인간관계 훈련 교육과 폭력방지를 위한 인성교육도 병행하고 있어 방문 상담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복지관도 있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5월부터 '부모교육 특강' 프로그램을 개설, 한국가족복지연구소 이동순 연구원의 지도로 자녀교육 문제를 토론 형식으로 교육 하고 있다. 23일부터는 부모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7회에 걸쳐 특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성신여대부설 기관인 심리건강연구소에서는 인터넷사이트(www.sungshin.ac.kr)를 통해 부부간의 대화 및 가정문제를 주제로 한 강좌를 매주 2시간씩 소개하고 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의 서향미 상담사는 "가정폭력의 주된 피해자인 주부들은 대부분 두통을 비롯해 수면장애와 소화불량 증세는 물론 타박상 골절상 등의 정신적 · 신체적 장애를 모두 받고 있는 게 보통이다"며 "하지만 3~4개월 동안 꾸준히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해 심한 정신질환 증세까지 보였던 주부가 회복된 적도 있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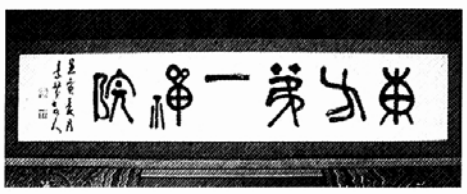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가정문제 상담기관

| 기관 | 전화번호 |
|---|---|
| 행복의 전화 | (02)3611-7942 |
| 과천종합사회복지관 | (02)507-6319 |
| 자양종합사회복지관 | (02)458-7501 |
| 구로종합사회복지관 | (02)852-0525 |
| 옥수종합사회복지관 | (02)2282-1100 |
| 청담종합사회복지관 | (02)806-1377 |
| 서울시 가정상담소 | (02)322-1366 |
| 제천사회복지관 | (043)644-2983 |
| 대구 여성의 전화 | (053)475-8082 |
| 맑고 향기롭게 광주 | (062)266-0410 |

## 사찰 편액을 찾아서

### ⑰ 소전의 수덕사 · 불국사 편액



◇수덕사 일주문 편액



◇불국사 관음전 편액

소전 손재형(素筌 孫在馨·1903~1981)은 전라남도 진도 출생으로 1925년 양정고등보통학교 졸업했다. 그는 1924년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예서로 처음 입선했고, 특히 제10회 때에는 특선을 수상했다. 또 1932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분리된 제1회 '조선서도전(朝鮮書道展)'에서는 다시 특선을 했고, 제2회 때에는 심사위원이 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소전은 고향인 진도에 진도중학교를 설립했으며 예술원 회원, 민의원 의원,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예술원 부회장, 국회의원 등을 지내기도 했다.

소전은 김돈희(金敦熙)로부터 글씨를 배워 글씨와 문인화에 모두 능했는데, 특히 회화성이 강한 전서를 잘 썼으며 한글 전서를 창안하는 등 현대 한국 서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서예가였다. 소전은 당시 서단을 대표하는 서예가였던 만큼 명승고적에 많은 글씨를 남겼는데, 사찰에 걸려있는 편액으로는 남양주 봉선사 〈칠성각〉, 예산 수덕사 〈덕숭산수덕사〉, 〈동방제일선원〉, 경주 불국사 〈관음전〉 편액 등이 대표적이다.

예산 수덕사 일주문 뒤쪽에 걸려 있는 〈동방제일선원〉 편액에는 '임인장월 소전산인(壬寅長月 素筌散人)'이라는 관지와 2과의 도서가 있다. 이것은 소전이 1962년 절에 들려 일주문 앞에 걸려 있는 산문사액과 함께 쓴 것으로 보인다. 세로 9개의 쪽판을 연결한 이 편액은 변죽을 청색으로 액판을 흰색으로 칠했는데 조선 시대의 편액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편액

### 동방제일선원 회화성 강한 전서 대표작
### 관 음 전 둥글고 부드럽게 쓴 행서

의 글씨는 그가 즐겨 썼던 회화성이 강한 전서로 금문(金文)의 결구를 차용하여 쓴 것이다.

경주 불국사 〈관음전〉 편액에는 액판 좌측에 액판의 크기에 비해 다소 커 보이는 '소전 손재형(素筌 孫在馨)'이라는 관지와 2과의 도서가 있다. 이 편액은 대대적으로 불국사를 복원할 즈음인 1973년에 관음전을 새로 건립하면서 소전의 글씨를 받아 건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당해(唐楷)의 뼈대 위에 전서의 획법(劃法)을 담은 소전 특유의 원운(圓潤)한 행서이다.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 건강백과

### 더위 먹었을 때

수은주가 3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때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더위를 먹기 쉽다. 더위를 먹는 것은 더위로 발생하는 강한 열에 대해 우리 인체가 체온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두통, 설사, 현기증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더위로 인해 입맛이 없다고 해서 찬 음식이나 청량음료만을 계속 먹으면 체력이 급격히 저하돼 두통과 설사 등의 증세가 더욱 심해진다.

▲오이 달인 즙-체내의 열을 가라앉힌다.

오이는 체내에 쌓인 열을 식혀주는 작용이 있으므로, 더위를 먹어 지쳤을 때 안성맞춤인 채소다. 오이는 생으로 먹어도 효과가 있지만 이뇨작용이 강해지기 때문에, 달여 즙을 내서 먹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만들려면 30g 정도의 오이를 익혀 껍질을 벗긴 후 여기에다 세컵 정도의 물을 부어 물의 양이 반이 되도록 달인다. 이것을 하루에 3회로 나눠 식사 전 공복시에 마시면 해열에 효과적이다.

**수박 · 오이 해열작용**
**매실 장아찌밥 강장효과**

▲수박-열을 식히고 이뇨작용을 한다.

수박은 열을 식혀주고 더위를 잊게 해주며 이뇨작용 또한 뛰어나다. 여름에 더위를 먹었을때는 수박을 먹거나 갈아서 쥬스로 만들어 먹는다. 특히 입 안의 갈증이 심해서 물이 먹고 싶어 질 때 먹으면 효과가 크다.

▲매실 장아찌밥-여름을 타서 피로를 느낄 때 좋다.

유난히 여름을 타서 더위를 잘 먹고 스테미너가 부족해서 쉽게 피로를 느낄 때 매실장아찌밥을 지어본다. 밥을 지을때 매실장아찌를 얇게 썰어 쌀에 섞어서 밥을 짓는다. 1인당 한끼니분으로 매실장아찌 세 개를 넣으면 된다. 특히 더위를 탈 때에는 갈증을 일으키지 않고 강장효과를 내는 매실밥을 먹으면 효과가 좋다.

▲동아-더위 예방에 좋다.

동아는 박과의 일년생 재배 식물로 호박과 비슷해 더위 먹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좋은 채소이다.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는 15일 고성 통일전망대 관음보살상 앞에서 '남북통일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 "통일 오게 하소서" 108배 정진

### 대불청 광복 55돌 법회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경기지구는 14 · 15일 양일간 양양 낙산사와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의한 '8 · 15 55주년 기념 통일 기원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1백50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낙산사 의상대 해맞이, 통일염주 만들기, 해수 관음상 앞에서의 통일 정근, 전국청년불자 100만배 제2차 입제식 등의 순으로 치루어 졌다. 특히 이날 참가자 전원은 30도를 넘는 무더위와 콘크리이트 바닥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발원하는 108배 참회정진을 마쳐 통일전망대 관람객들에게 여법한 불심을 자랑하기도 했다. 또 조계사와 보현사 등 남북한 사찰에서 동시에 봉행된 이날 통일기원법회에서는 남북한 불교도들이 합의한 '공동 발원문'도 낭독됐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동부전선 최북단 군법당인 운학사 월명 주지법사에게 통일염주 2백개가 전달됐다.

전안호회장은 "남북 이산가족 상호방문 등을 통해 통일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어느때보다도 간절하다"며 "청년불자들이 100만배 2차 입제를 통해 통일 발원의 의지를 굳건히 하자"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 청소년 자원봉사 대축제

#### 9~12월 대구…수기등 공모

대구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9월부터 12월까지 '2000 대구 청소년 자원봉사 대축제'를 연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봉사활동 경험을 토대로 한 소감문과 포스터, 표어 들을 공모해 수상 전시한다. 또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봉사활동 소감을 담은 글과 사진, 포스터, 표어 등을 보내면 된다. 참가대상은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 중고생과 봉사활동 담당교사,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자 등이며 접수마감은 9월 30일까지다. 시상은 12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053)623-4083

### 서불청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불교청년회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소쩍새마을, 둥지 청소년의 집, 탑골공원 등에서 봉사할 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봉사자들은 소쩍새 마을과 대부도 둥지청소년의 집에서 한달에 한 번씩 시설 청소와 점심공양 해주기 등을 하게 된다. (02)730-9108

### 외국인과 함께 참선캠프

인천 청소년교화연합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신원사 국제선원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청소년 출가체험 참선캠프'를 열었다. 2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외국인 스님들의 지도로 좌선과 명상, 집중력 강화훈련, 선무도, 묵언 정진, 다도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 청소년 단신

### 샛강 살리기 봉사활동

서울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9월 9일 오후 2시 중랑천에서 '맑은 샛강 살리기' 자원봉사 활동을 편다. 3백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할 이번 행사에서는 오물수거작업, 강둑 환경정리, 잡초제거 등을 하게된다. 참가신청은 31일까지. (02)849-0404

### 광주~서울 통일순례

대학생불교연합회는 11일부터 5박6일간 광주에서 서울까지 '통일순례' 행사를 가졌다. 이번 순례는 광주불교회관을 출발해 광주 망월동 묘역, 나눔의 집 등을 거쳐 조계사에서 회향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인터뷰

##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천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액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차신왕가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엄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오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의료법인 효성 양방 · 한방병원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이사장 비서실) ☎ (052) 254-2600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세사미놀」성분을 대량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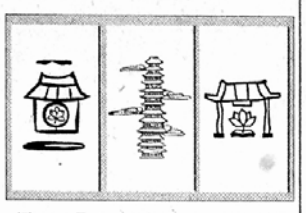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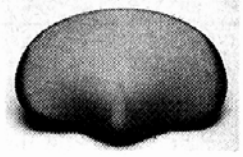
불치병(병명을 못찾는 분), 기관지 천식, 위장병, 정신 질환, 간질, 중출, 고혈압, 당뇨 치료문의
무료진맥 · 완치!!

##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 참선명상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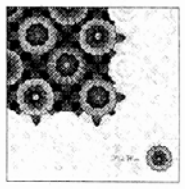


일 반 ₩30,000
숲기반 ₩35,000
황토반 ₩35,000

- 실용신안1998-025009
- 특정등록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규격: 39×43cm

##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 신세대 불자들의 신행수첩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
- 예불, 헌공, 법회, 의례, 찬불가까지
- 신행생활과 성지참배기를 요약기록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임의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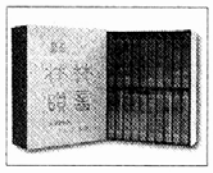
가격
일반형(인조피혁)
₩25,000

##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최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테잎



■ 가격: 6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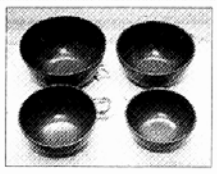
## 신상품 및 추천상품

### 발마사지 헬스기구



디양한 기능의 첨단고급 재료로 제작
가격: ₩39,000

###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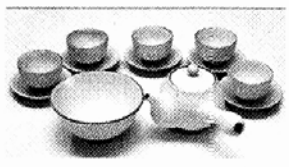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 죠온열 건강벨트



원하는 온도조정(36.5℃에서 70℃까지) 가능
가격: ₩105,000

### 고산다기



가격: ₩120,000

### 보원향 선물셋트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꽂이



가격: ₩60,000

### 오동나무 목침



■크기
가로 30cm
폭 13.5cm
높이 9.5cm

■가격
개 괴 형 ₩20,000원
무개괴형 :₩15,0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신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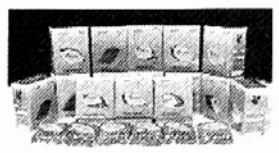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 감잎차



가격 ₩35,000원
(6g× 50개)

##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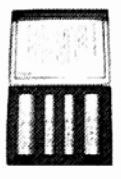
## 황토 냉온 찜질팩



용도
- 냉온 찜질용
- 노인성 통증완화에 찜질
- 야간 근무자나 추운곳에서 근무시 보온용
- 건강과 미용에 좋다

가격 : ₩28,000

## 석씨향방 오분향,생기향세트



규격 4개 1세트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업기지효능이 있음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 할 때
- 제사를 지낼 때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 하고 싶을때
- 공포를 느낄 때
- 조상의 명복을 빌때

가격 : ₩60,000

## 대나무 숯 염색천



■크기 : 44인치 X 5.5야드 ■가격 : 60,000원
■색상 : 진회색/회색

##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 순금도금 온 히란야메달



- 용도 및 효능 : 남녀공용 프로저팀 배당
- 재질 : 천연자수정 大부착 은메달순금도금, 루비 세팅
- 효능 : 정화작용에너지가 방생, 가슴(차크라)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

지름 : 4.5cm 가격 :₩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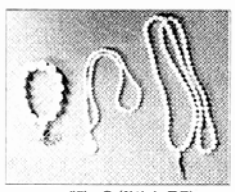
##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 장군죽염분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루형태로 만든 제품

용량 : 200g
가격 :₩36,000

## 삼보죽염 낱개 1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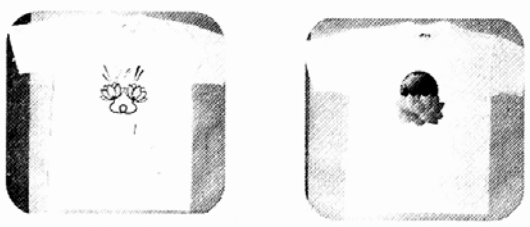



창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상품죽염 !!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200g 가격 :₩36,000

## 여름용 연꽃 순면티셔츠



▶ 자비소리 ▶ 자비연꽃

자비 법음이 온누리에 울러퍼져 희망찬 미래를 영원합니다.

■ 재질 : 순면 100%(20수) ■ 색상 : 순백색
■ 칼라 : 9도칼라 나염인쇄 ■ 크기 : XXL, XL, L
■ 20장이상 구매시 10%로 할인
■ 100장이상 구매시 20%로 할인 단체명 인쇄
가격 : 6,000원

##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 다 구 (茶具)

다구라 함은 차를 맛있고 향기롭게 마시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요한 그릇 및도구이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 **다관 (茶罐 :차주전자)**
물과 일차를 넣어 우려내는 도자기 주전자. 보통 주전자와 같이 손잡이가 위에 둥글게 붙은 것과 물 따르는 주둥이의 반대편에 붙은 것이 있다. 주구의 안쪽은 거름망이 있어서 차의 찌꺼기가 주둥이를 타고 나오지 않게 한다. 주로 도자기로 만들어졌으며, 금,은으로 만든 것도 있다.

■ **다완 (茶碗 :찻잔)**
찻잔(다완)은 다관에서 우려난 차를 따라 마시는 작은 잔을 말하며, 시대와 모양에 따라 여러 이름이 전한다. 구는 원통형의 통잔, 완은 사발형의 가루차용, 종은 작은 반구형의 일차용을 이른 것 같다. 찻잔은 약간 두툼하여 쉬 뜨겁거나 쉬 식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일 찻물의 색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잔의 안쪽은 백색이 좋다. 일찻잔은 보통 5개(5인기)와 3개(3인기)로 손잡이가 없다.

■ **차시 (차숟가락)**
마른 차 잎을 다관에 일정량 떠넣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 주로 대나무나 먹장나무로 만들어 사용하며, 차측, 차살피라고도 한다.

■ **차탁 (차반, 잔 받침)**
찻잔의 물호름을 받쳐주는 받침. 찻잔 받침은 원형, 타원형, 사각형, 매모양 등으로 주로 도자기나 나무재료이다.

■ **숙우 (熟盂 : 물식힘사발)**
다관에 물을 붓기 전에 끓인 물을 적당량 부어 알맞은 온도로 식히는 사발이다. 물을 붓기 좋도록 귀가 있어 귀사발또는 물식힘 사발이라고도 한다.

■ **다포 (茶佈 : 찻상포)**
찻상 바닥의 깔개 혹은 찻상 위에 덮는 것으로 삼베나 무명을 사용하여 물기가 흡수되어 정갈해 보인다.

■ **차통**
차통은 차의 변질을 막고 차를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주석, 양철 등으로 만든 것에서부터 나무, 대나무로 만든 것도 있다. 모양은 통형, 기둥형, 단지형이 많다.

■ **다선 (차솔)**
대나무 껍질을 잘게 쪼개어 만든 것으로 찻사발에 가루차와 끓인 물을 붓고 휘저어서 융합 시키는 기구이다. 차선은 보통 80본,10본, 120본의 세 종류가 있으며 차의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보통 차선(80본)으로 100회 정도젓는다.

■ **찻상**
다구들을 올려서 행다를 하는 목재로 만든 상. 사각, 육각, 팔각, 원형,서랍형등이 있다.

■ **개인다기**
편리함을 위해 고안된 잔과 거름망, 잔 뚜껑으로 구성된 다기.
탕관 (湯罐 : 물 끓이는 솥) 물 끓이는 그릇으로, 신라 때에는 돌 솥도 있었다. 지금은 의식 다례가 아니면 화로나 탕관은 사용하지 않고, 주로 주전자나 전기포트를 사용한다.
희수기 개수그릇이라고도 불리우며 처음에 다관과 잔을 데운 물을 버리거나 차를 우려낸 다음 숙우나 찻잔에 남은 찌꺼기를 버리는데 이용한다.

■ **여행기**
여행을 위해 부피를 줄인 작은 개인용, 다인용 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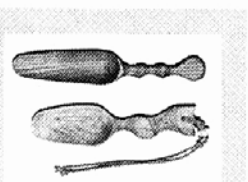
끝으로 다기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다기는 진열용이 아니다. 다른 도자기 제품처럼 예술성과 골동품적 가치만을 따질 수 없는 생활 자기임으로 유명도에가의 고가품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둘째, 실용적이어야 한다. 매일 사용하려면 편리한 기능과 도자기 제품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아름다워야 하고 쉬 싫증을 느끼지 않을 만한 것이 좋다.



찻 상
재질 : 소나무 원목
가격 :₩54,0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차 시
제품에 따라 모양이 다름
가격 :₩15,000

## 불 성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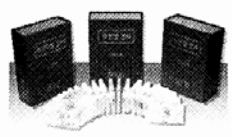
가격 : 우전 ₩90,000 / 세작 ₩50,000
중작 ₩30,000 / 대작 ₩20,000

## 날개 CD



가격: ₩10,000

##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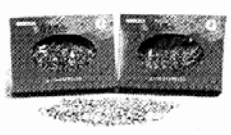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 |
|---|---|
| · 고추장 | 12,000원 |
| · 무우 장아찌 | 12,000원 |
| · 된장 | 8,000원 |
| · 마늘쫑 장아 | 12,000원 |
| · 쌈장 | 8,000원 |
| · 된장 콩잎 | 12,000원 |
| · 더덕 장아찌 | 30,000원 |
| · 된장 깻잎 | 12,000원 |
| · 오이 장아찌 | 12,000원 |
| · 산초 장아찌 | 30,000원 |
| · 감 장아찌 | 12,000원 |
| · 울외 장아찌 | 12,000원 |
| · 나나스키 | 12,000원 |
| · 간장(1.8L) | 9,000원 |

## 홍화란?

국화과에 속하는 일년생 화초로써 옛날부터 잇꽃이라 불렸으며 잎이나 꽃받침에 가시가 붙어있고 씨의 크기는 해바라기와 흡사하여 홍화꽃잎은 예로부터 옷감염료, 연지, 화장품으로 이용되었으며 한방에서는 통경제나 어혈을 풀어주는 파혈제 등으로 사용되었다.

### 홍화씨



■ 원료 -볶은 홍화씨 100%
■ 용법-볶은 홍화씨를 물2리터에 20g정도 넣고 충분히 끓인 후 냉장고에 보관후 수시로 드시면 좋습니다.
■ 용량500g (1봉지)
■ 가격:25,000원

### 홍화정



■ 원료 - 홍화씨 80%, 하수오 뿌리, 마뿌리 산수유 열매, 황기, 두충껍질, 찹쌀 등의 약재를 넣어 드시기 편하게 정(환)으로 만든 제품
■ 용법 - 1일 3회 매회 3g(T스푼 1숟갈)정도를 생강차를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 용량 : 200g 3통 / 250g 2병
■ 가격 :120,000원 / 77,000원

### 홍화분말



■ 원료 - 홍화씨 100%를 미세하게 갈아서 만든 제품
■ 용법 -1일 3회 매회 3g (T스푼 1숟갈)정도를 생강차를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 용량: 200g 3통 / 250g 2병
■ 가격:90,000원 / 65,000원

### 홍화엑기스



■ 원료 -홍화씨 80%, 대추, 하수오뿌리, 마뿌리, 산수유, 황기뿌리, 두충껍질 등의 약재를 4~5시간 고농축 엑기스로 드시기 편하게 만든 제품
■ 용법 - 1일 2회 식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 용량: 80ml 60포/ 80ml 48포
■ 가격:128,000원 / 98,000원

## 베지푸드

콩에는 포화지방이 적고 아미노산이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들어 있으며, 풍부한 비타민(비타민A,B,E,K)과 균형 잡힌 무기질(칼륨, 철, 인,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아이소플라본(제이스타인, 다이드제인)과 같은 식물성화합물로써 건강증진에 특효입니다.

### 콩살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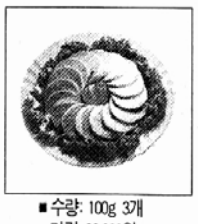


■ 설명 - 콩단백과 유청단백에 전연향료를 첨가하여 담백한 햄맛을 낸 제품

ISO9002 인증획득
무방부제, NO 콜레스테롤

■ 수량: 100g 2개
■ 가격:28,000원

### 콩살들이



■ 설명 - 콩단백과 유청단백에 전연향료를 첨가하여 담백한 햄맛을 낸 제품

ISO9002 인증획득
무방부제, NO 콜레스테롤

■ 수량: 100g 3개
■ 가격:36,000원

### 콩비엔나



■ 설명 - 콩단백과 소맥단백으로 햄맛을 낸 제품, 도시락 반찬 및 간식용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 수량: 500g 4봉지
■ 가격:32,000원

### 버섯말이



■ 설명 - 고급 표고버섯에 유청단백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맛을 살려, 국, 볶음, 찌개용으로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 수량: 150g 8봉지
■ 가격:32,000원

이렇게 들었다 — 새 삶의 출발

8월15일 제55주년 광복절을 맞아 3만6백47명에 달하는 공안·선거·경제사범과 IMF 생계형 사범이 특별사면 및 복권, 가석방됐다. 이들은 모두 새 삶을 위한 출발점에 섰다. 또한 여름 휴가와 방학을 끝내고 일상에 복귀하는 직장인, 주부, 학생들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시작이 좋을 때 값진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와 발심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다.

## 뜻 이루려면 참고 정진하라

▨ 초발심을 발한 보살이 보리심을 내면, 무한한 과거로부터 활동해 온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으며, 무한한 미래를 향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믿을 수가 있으며,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지혜를 알 수가 있다. 〈화엄경〉

▨ 자기 몸에 진여(眞如)의 존재가 있음을 스스로 믿어, 발심 수행한다. 〈기신론〉

▨ 보살이 생존 중 처음으로 발심할 때, 오로지 보리를 구해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의 일념공덕이 깊고 넓어서 끝이 없을 것이니, 여래가 설하사 한 겁(劫)을 다 소비하신대도 능히 다하시지 못하리라. 〈화엄경〉

▨ 보리심을 처음 일으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대집비유왕경〉

▨ 만약 사람들이 큰 광명이 되어 온 암흑을 없애고자 원한다면, 모름지기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출생보리심경〉

▨ 첫 발심할 때 정각을 얻는다. 이 때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지혜의 몸을 갖춰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뜨기 때문이다. 〈화엄경〉

▨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 미래를 원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꿈은 여기 현재의 일에서 가져야 할 것이니 이루고자 하는 뜻에 확고부동하여 흔들림없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야 하리.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땀흘려 노력하라. 〈중아함경〉

▨ "선남자야,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함이요, 둘째는 성내는 마음을 끊음이요,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름이요, 넷째는 연민의 정을 일으킴이요, 다섯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이니라" 〈우바새계경〉

▨ 활을 쏘아 과녁을 잘 맞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힐 수 있다. 도를 빨리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불반니항경〉

▨ 모든 중생들이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한가지이나 땀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으리라. 사업을 이룸에는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함을 배워야 한다. 〈별역잡아함경〉

▨ 높은 관직을 탐내는 사람은 고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것을 위한 행위를 하게 마련이다. 무릇 욕구의 선악을 막론하고, 그 마음에 먼저 목표를 세운 다음에야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보리를 구하는 사람도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행을 구하는 것이다. 〈발보리심론〉

▨ 보살들은 발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기에 빨리 열반을 얻는다. 〈기신론〉

▨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파사익왕에게 말씀하셨다. "먼저는 괴로우나 뒤에는 즐거운 것이 넷이 있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괴로운 일이나 뒤에는 즐겁고, 쓴 약을 먹는 것도 처음에는 괴로우나 뒤에는 즐거우며, 가업을 잇는 것과 혼인하는 것은 처음에는 괴로우나 뒤에는 역시 즐거운 일이오." 〈증일아함경〉

▨ 만약 사람들이 큰 광명이 되어 온 암흑을 없애고자 원한다면, 모름지기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출생보리심경〉

▨ 이 몸의 머문자리 보고저 하면 새벽녘이 가장 좋은 때가 되리라. 〈법구경〉

▨ 보살은 온갖 여래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발심하며, 온갖 중생을 건지기 위해 발심한다. 〈화엄경〉

▨ 사사(四事·음식 의복 의구 탕약)로써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을 공양한다 해도 발심하여 불과(佛果·깨달음)를 향해 나아감만 못하다. 〈열반경〉

# 신행 캘린더

## 울산 최초 불교간병인 교육

### 정토사 9월5일~11월2일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9월5일부터 11월2일까지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불자 간병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불자 간병인들의 모임인 '정토간병회'를 설립하기 위해 개설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불교교리를 바탕으로 불자 간병인으로서의 소양함양에 기초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인간의 이해 및 직업인의 자세 △환자의 심리 및 정신 간호 △환자상태 관찰 △환자의 신체 간호 및 개인위생 △환자의 체위 및 욕창 찜질법 △소독 및 감염관리 △영양 및 배설 간호 △투약 보조 및 운동 △응급상황 대처 등에 대한 강의와 현장 실습이 있을 예정이다.

정토사는 간병인 교육을 정례화해 배출되는 간병인들을 기수별로 조직화한 뒤 불자간병인들의 모임인 '정토간병회'를 창립할 계획이다. (052)258-9944

## '행복한 가정 만들기'

### 여불련 상담원 교육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28일부터 10월26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전10시와 오후1시 동산반야회 강당에서 가정문제 전문 상담원 교육을 실시한다.

1부 '여성학', 2부 '상담과 이론', 3부 '가정폭력 상담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상담원 교육에서는 불교에서 본 가정문제, 불교가정과 여성, 여성관련 법률 검토, 여성주의 상담이해, 부부의 폭력과 부부간의 의사소통, 상담사례를 통한 역할 연습,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방안 등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비디오 상영이 있을 예정이다. (02)738-5586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 8월 23일 (수)

■ 하계 다도교실=부산차인연합회는 25일까지 오후3~5시 부산역 새마당예식장 2층에서 생활차, 건강차, 예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계 다도교실을 연다. (051)806-0012

### 8월 24일 (목)

■ 능인선원 법주사·공림사 순례=능인선원은 법주사와 공림사 순례법회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 6시. (02)577-5800

■ 오세암, 봉정암 참배=진여회는 2박3일(24~26일)의 일정으로 설악산 오세암과 봉정암 참배 및 철야정진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출발은 오전6시30분 조계사 앞. (02)821-3242

■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법인 설립 발단불사=7월 2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오후 3시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에서 법인설립 발단(출범)불사를 봉행한다. (02)913-0751

### 8월 25일 (금)

■ 평화통일 기원 종교인합창제=남북평화통일 기원 제1회 광주종교인합창제가 오후 6시30분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린다. 광주종교인평화회의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한마음선원 합창단을 비롯 원불교 원음 합창단, 기독교 연합 합창단, 천도교 중창단, 불교어린이합창단 등의 공연이 펼쳐지며, 마지막 순서로 '평화의 노래' 대합창이 이어진다. (062)375-7600

■ 조계종-천주교 종무원 체육대회=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과 천주교 중앙협의회 직원들이 뚝섬 체육공원에서 종교간의 연대와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연다. (02)732-9342

### 8월 26일 (토)

■ 대구 신도회·신도단체 교육=포교원은 27일까지 동화사에서 대구지역 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 재교육을 실시한다. (02)720-7060

### 8월 27일 (일)

■ 동산불교대학 졸업식=동산불교대학은 오후2시 동산교육회관(안국동 로터리 웅전갤러리 2층)에서 제13기 졸업식을 갖는다. (02)732-1206

■ 마곡사·갑사 문화답사=조계사는 오전7시 일주문 앞에서 모여 공주 마곡사, 갑사 일대 문화답사를 떠난다. (02)720-1390

■ 대구불교방송 상원사 순례=대구불교방송은 경진년 5대 보궁 순례기도법회 중 마지막으로 강원도 상원사에서 태경스님(대전사 주지)과 함께 성지순례법회를 봉행한다. (053)427-5114

■ 군법당 위문법회=군불교진흥회는 화성 공군 10 전투비행단을 방문, 위문법회를 봉행한다. 용산역 광장에서 8시에 출발한다. (02)749-5135

### 8월 28일 (월)

■ 호스피스 교육=개금사회복지관 병설 부산진구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범어사 부산포교원 주최로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051)866-0454

### 8월 29일 (화)

■ 새시대불교포럼 8월 포럼=새시대불교포럼은 오후 6시30분 종단협 회의실에서 8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형중 박사가 '휴정선시 연구', 최기표 박사가 '천태 점차지관의 수행체계 연구'를 각각 발표한다. (02)725-4282

### 법회안내

**'믿음과 실천' 법문**



종범 중앙승가대학교수 스님은 27일 '확실한 믿음, 바른 실천'을 주제로 8주간 진행된 삼보여름불교대학 회향법회에서 설법한다. (02)913-2859

**조계사 일요법회 설법**



도법 실상사 주지 스님은 27일 조계사 일요법회에서 법문한다. (02)732-2183

**'능엄경의 세계' 강설**

일귀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스님은 26일 오전10시 광주불교교육원에서 '능엄경의 세계'를 주제로 법문한다. (062)228-9098

**부처님의 건강법 소개**

경훈 무안 약사사 주지는 25일 광주불교교육원에서 '부처님의 건강법'을 중심으로 설법한다. (062)228-9098

**'불교의 미래' 강의**



김상현 동국대 교수는 26일 오후3시30분 한국불교연구원 서울 구도법당에서 '불교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02)3411-6167

## 게시판

### 알림

▲금강산 기행=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창립 8주년을 맞다 오는 10월3~6일 '2천년 정진도량 금강산 기행' 행사를 갖는다. 이번 기행에서는 '인터넷과 불교(효림 부의장 스님)'에 대한 강의와 '2천년 한반도와 통일'이라는 주제의 선상보고가 있을 계획이다. (02)725-4277

▲여성학 강의=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9월2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이화여대 변혜정 교수를 초청, '주부의 성, 제대로 알자'를 주제로 한 여성학 강의를 갖는다. (02)85-0161

▲무료급식=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26일까지 지역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가정의 아동 43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02)989-4215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비 지원=덕유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저소득 가정 중에서 관리비를 미납한 세대들을 대상으로 관리비를 지원한다. (032)325-2161

▲아동 놀이치료=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정서, 행동, 발달상의 어려움을 가진 만3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치료를 실시한다. 시간은 상담절차를 거쳐 결정. (02)852-0525

▲소쩍새마을 신문 이름 공모=승가원은 소쩍새마을 신문의 새 이름을 공모한다. 현재 등록·발간되고 있는 신문 또는 잡지의 제호나 타 기관의 매체 제호와 차별화 되어야 하고, 글자 수는 10자 이내에 한한다. 31일 마감. 접수는 E-mail:1buddha@cholian.net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0-1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홍보부로 하면 된다. (02)928-0750

▲한국문화체험 원고 공모=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한국에서 체류중인 외국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과 관련된 내용의 글을 모집한다. 9월30일 마감. (02)732-4885

### 모집

▲교리강좌 수강생=동산반야회는 3개월 과정의 직장인을 위한 불교교리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9월6일 오후7시이며, 매주 수요일 동산법당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02)732-1206

▲신입생=정토불교대학은 9월 7일 개강하는 정토불교대학 제8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야간부는 9월8일 개강. (052)258-9944

▲불교예술문화원 수강생=한국불교예술문화원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이운장 법사의 지도로 진행되는 반야심경 사경, 달마대사 선화, 서예, 한문, 사군자 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통신도 가능. (02)2242-0331

▲경전연구반 수강생=능인선원은 1년 과정의 경전연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매주 수 오전10시와 매주 목요일 오후7시 두차례에 걸쳐 있으며, 〈유마경〉〈아함경〉〈법화경〉 등에 대해 공부한다. (02)577-5800(교270)

▲따주기 수강생=대구 반월당 보현사 평생교육대학은 제7기 성훈따주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053)254-6966

▲자원봉사자=서울불교청년회는 매월 둘째주 소쩍새마을, 둥지청소년의 집, 탑골공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730-9108

▲발관리서비스 자원봉사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위탁 독거노인들에게 발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글방 동아리 회원=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55세 이상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글방 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 (02)985-0161

▲실직자 자격증 교육반=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직자 및 실직자 세대를 대상으로 9월5일부터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031)716-4215

▲컴퓨터교실 수강생=낙동복지관은 한글 97·윈도우 98,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컴퓨터 교실의 수강생과 지도강사를 모집한다. (051)271-0560

▲호스피스·간병봉사자=불교복지보건대학은 제5기 불심호스피스와 간병봉사자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호스피스와 간병에 대한 이론교육과 병원 실습을 통해 각종 의료기관·복지관 등에서 전문적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다. (051)462-5670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연간의 명운(命運)을 좌우하는 지리학(地理學)을 현실 생활에 합리화 시켜 생활해 나가면 내일의 안정과 희망의 행복으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나갈 것이다.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흩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용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화제의 신간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 전국 서점 판매중

실전 사주학길라잡이

일주일이면 나도 사주를 볼 수 있다.

지식의 유무·어떠한 직종이 나의 적성이며, 어느 길로 가야 적합하며 언제 운이 열리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주 명리학이다.



김윤중 저 신국판 값 15,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 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梓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법루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법루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혈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T.921-8434 F.929-3470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입상 및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제11회 특선 작품)

■사진설명■
·행운의 달마비전도 3/1전지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 반메훔 3/1전지
·해탈연화도 3/1 전지 ※구입방법※
·불사동참금 일금 55만원 (온라인 참조)

집안의 길흉화복과 소원성취를 관리하고 수명·건강 재산을 관리하며 모든 영가들을 해탈시키는 연화도를 구입하시어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비법의 동양철학과 풍수지리의 비장법인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비전으로 이어온 보물의 「감여보감」과 「일시보감」에 감추어진 명당비법 직강 - 장풍법, 황천법, 팔효법, 산상제법 12생띠들이 들어가야할 명당비법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직강 최첨단기 강의법, 명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법입니다.



진인육경신 도통으로 영과 혼을 담아그린 달마상은 언제보아도 눈과 몸이 보는이를 따라 다니는 신줄괴물한 비법은 새태양의 운기로써 흉한일을 당하려면 조용했던 집안이 시끄러운 곳과 흉한터, 수맥차단 초상상문, 사업장, 이사 개입 노력해도 안되는 도통과 학업, 진학, 고시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달마도상을 집에 소장하시고 순금골드 99.9 달마지상 지니시여 건강, 부귀영화, 수명장수 말문이 터지지 않는 분 및 각종 경쟁에서 승리하시고 삼재소멸하소서.

용맹정진 이천년 대운맞이 제59회 眞人道通 庚申大法會
새인류 진인도통에 동참하시여 사자성보아 도인되소서

후천미륵 달마법도의 경신년 경신법회 새천년의 천지 창조이래 태양의 순년의 빛 하늘의 음성 영혼의 심연을 하늘의 천문도법인 눈과 귀과 있어도 보고듣지 못하는 원방각에 감추어진 대비밀장인 해인도법을 최초로 만 천하에 공개하노라. 만법을 다 슬럴 수 있는 법을, 자성통으로

새천년부터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하늘 응조의 대비밀장임을 명심할지어다. 이 기도에 입문하는 자에게는 대인류의 스승이 되는 특별기도를 양력 8월 29일 8월 30일, 자시와 오시에 360세까지의 증상대운을 공개하오니 도통군자 사명자들에게 다시없는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도통군자 잣대를 얻어 중운 180세 하운 120세의 천안통 숙명통에 도전하여 지구촌 일그러진 법도와 효충사상과 도덕이 땅에 떨어진 법도와 종교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도통군자 연기법에 도전하시어 12식의 법장보살 즉 염라대왕을 제도할 수 있는 사명자 도인 되소서.하늘의 **근본법도를 알재 못하면서 제멋대로 지꺼리는 잡도에 끌리여 눈먼거북의 종행 동타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족하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법의 소식은 象·形·萬有 법의 잣대로 설계 법측, 법척 천공, 만유와 철학, 상수학, 물리학, 포상학, 원규학 각 5대 주문이 없는 것은 하늘의 권능으로 어떠한 도통도 불가하며 ,다만 잡신에 끌리여 억망진창을 왜 모르며 지각이 번동되었는데 하늘이 아무나 떠들어 대라고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있으면 명대로나 살것을 아는체 하다가 천벌 맞지말고 개과 천선하여 몸에 태산같은 중병과 욕심과 명예의 삼독을 벗고 먹지 않아도 살이 찌는 약병과 사람답게 사시는 진인육경신 도통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말문이 열리는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특히 이번 법회는 천문이 열리는 달이므로 몸에 병과, 천병, 잡신, 살이찌는병과 도통군자들과 수명이 늘어나고, 먹는것 자유자제하며 육신을 보호하는 만법을 사사 받을 수 있는 법회에 동참하시여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입 제 : 양력 8월 29일 밤 10시부터 8월 30일 亥時시까지
●회 비 : 일금 5만원 (1박 2일 간편한 복장)
●온라인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전 화 : 02) 821-6622/야 923-3110/ 016)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7번출구, 7호선 신대방역 하차 버스 85,25,95,26,303,26,142,26-3 모자원고개 하차)

雄祖. 진인경신도통회장 天龍眞人 泰日法師
대한불교 약사선원장

# 계룡산 수행환경 멍든다

*갑사, 동학사 등 불교성지가 가득한 국립공원 계룡산이 멍들어 가고 있다.*

*충남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조성된 동학사 인근 온천지구가 15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자연사박물관과 국도개설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계룡산이 심각한 환경훼손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갑사 경내지를 강제수용, 제2야영장 설치를 강행하고 있어 사찰수행환경의 훼손이 우려된다.*

## 정부 갑사 경내지 야영장 설치 강행
## 동학사 인근에 자연사박물관 추진

공주 갑사(주지 장곡)는 경내지 강제 수용과 관련 지난 7월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토지수용 이의재결(97년 12월 3일) 처분취소 청구사건'에 패소,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갑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비록 토지수용의 과정이 전통사찰보존법 시행일 이전에 결정된 상황이어서 조계종총무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규제는 없다하더라도, 제2야영장은 갑사로부터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찰의 환경과 풍치를 크게 해칠 우려가 크고, 제1야영장의 예상 이용객 수등을 감안하면 또다른 야영장을 건립할 필요성이 없어 전사법의 목적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토지수용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갑사는 11일 공원관리공단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온천 개발, 자연사박물관 설립, 국도 1호선 건설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계룡산에 다시 대규모 야영장을 건설하는 것은 포철과 합작으로 철당간을 보수하고, 영규대사와 800여 스님들의 혼을 기리는 당간재와 영규재를 추진중인 민족문화의 보고 갑사의 주변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만일 야영장을 강행할 경우 공원입장료 납부 거부운동 등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족 종교·사상의 성지이기도 한 계룡산은 전국 5대 명산중 하나로 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전된 수려한 경관으로 연간 100만명이 찾는 국립공원.

그러나 15년전 계룡산 장군봉 아래에 온천공이 발견되자 충남도는 동학사 온천지구개발 기반공사를 진행했으나, 15년이 지나도록 8만여평의 산중턱만 흉칙스럽게 파헤친 채 방치해 수려했던 자연경관을 망가뜨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충남도는 지난 2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승인을 거쳐 동학사 온천지구 바로 인근에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경관과 생태계 파괴, 식수 고갈로 인한 주민 생존권 위협 등을 들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국도 1호선인 두마-반포노선 개설문제도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미 90여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으나, 계룡산을 허물거나 경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어 기존 도로의 활용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주=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10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갑사 일주문 300m 근처의 짓다만 호텔 건축물. 일주문 50m 거리에는 야영장 건설이 예정되고 있다. 계룡산 곳곳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다.



◇하와이 무량사는 13일 이민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지장보살상 점안 및 명부전 확장불사 회향법회를 개최했다.

# 하와이 무량사 납골당 조성

## 해외 첫 1천기 규모…지장상도 봉안

해외사찰에 첫 납골당이 생긴다. 미국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는 13일 한국이민 1백주년을 맞이하여 이민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한국독립운동의 선영들을 추모하기 위한 지장보살상 점안 및 명부전 확장불사 회향법회를 개최했다.

무량사는 금년내 명부전에 1천기 규모의 납골시설을 안치키로 하고, 본격적인 불사 착공에 들입했다.

이에 앞서 무량사는 6일 명부전 주변 야외마당에 단을 마련하고 1차로 지장보살석상 500좌를 조성하여 봉안했다. 앞으로 1500불을 더 조성하여 모실 예정이다.

주지 도현스님은 "하와이는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잃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힘들게 일하며 독립자금을 모았던 이주민 1세들과 한국독립운동을 위해 힘쓰다 순국한 선영들의 영혼이 잠든 곳이다"며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현재 한인들의 사후 안식처가 되도록 납골당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량사는 '태평양 전쟁 참전전우회'와 함께 7월 30일 하와이 펀치볼 국립묘지에서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 참전 희생자를 위한 위령재를 봉행했다. 하와이=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부산 2명중 1명꼴 화장

### 전국 최고…작년 9천명 동참

타종교에 비해 불교 신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지역의 사망자 가운데 2명중 1명꼴로 화장(火葬)을 하는 등 부산의 화장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1만8,835명 가운데 9,433명이 화장을 해 화장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이는 전국 평균 31%보다 20%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부산시의 경우 화장비율이 95년 38.5%, 96년 41.6%, 97년 43.1%, 98년 49%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부산 다음으로 화장 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43%), 울산(39.8%), 인천(38.8%), 경기(36.2%) 등의 순이었다. 전남(10.1%), 충북(10.2%), 제주(11.1%), 전북(12%)은 아직 화장률이 낮다.

이처럼 부산의 화장 비율이 높은 것은 95년 장례식장과 화장장·납골당 등을 갖춘 최첨단 시설의 영락공원이 건립된데다 상대적으로 땅이 좁고 화장을 선호하는 불교신도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부산시는 17일부터 20일까지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부산무역전시관에서 '부산 장묘문화 및 납골묘 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5일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공동으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장묘문화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재경 기자

# 사형폐지 불교본부 잇달아 창립

### 내달 부산·대구·광주·대전

'사형제 폐지 부산불교본부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지원)는 15일 준비모임을 갖고 9월초 창립하기로 했다.

이는 '사형제 폐지 불교운동본부'(공동위원장 진관·지원)가 서울 본부를 비롯 사형수 수감 교도소가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9월중 지부 창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사형제 폐지 부산불교본부'는 창립과 동시에 서울 본부와 연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타 종교와 연대한 세미나 개최, 지부 협력 사안 모색 등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준비위원장 지원스님은 "사형제 폐지는 부처님의 생명존중사상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불자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인 사형제 폐지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군법당 호국관음사 낙성
### 개신교 부대장도 후원

육군 제31보병사단 군법당인 호국관음사(주지법사 한영규)가 착공 2년여만인 30일 오후1시 불상 점안식과 낙성식을 거행한다.

총 공사비 2억5천여만원이 소요된 호국관음사는 80평의 법당과 40평의 요사채를 갖추고 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천운스님),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김두원), 건축주 김재영 대영건설 사장 등 지역 스님과 불자들의 도움으로 불사를 원만회향 하게돼 군포교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개신교인 부대장(사단장 최인수 소장)이 군법당 신축불사를 지원해 종교화합의 신선한 사례가 되고 있다. (016)356-5829

### 1~4일 무안 연꽃축제

전남 무안군은 일로읍 복용리 회산 연꽃방죽 일대에서 9월 1일부터 4일까지 '제4회 무안 연꽃대축제'를 연다. 종단협의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불교문화 예술제, 법요식(사리친견)도 거행된다. (061)450-5224

### 흥륜사 이차돈 추모재

경주 흥륜사(주지 혜해)와 이차돈·원효 양성사 봉찬회가 주최하고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이 주관하는 '이차돈 성사 추모대재'가 9일 2일(음력 8월5일) 오전 10시 불교공인을 위해 순교로써 신라땅에 불법의 뿌리를 내리게 한 순교성지 흥륜사에서 봉행된다. (054)774-1950 김재경 기자

## 종단소식

### 조계종

#### 직지사 구미시 항의방문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는 구미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철회를 위해 14일 구미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단(대표 범초스님·직지사 총무)은 이날 천년 불교문화유산 주변경관을 훼손시키는 조례 제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시의회는 재의 요청시 부결함으로써 조례를 철회할 것 △구미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것 △목표관철을 위해 구미 시민단체와 연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 금정불교대 학생 모집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금정불교대학(학장 성오)은 20일~12월17일까지 계속되는 교리반과 경전반 학생을 모집한다. 교리반은 매주 월·화요일, 경전반은 매주 수·목요일 주간과 야간반으로 진행된다. 입학식 20일 오후2시 범어사 보제루 설법전. (051)866-7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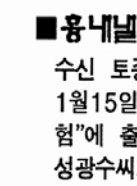
### 태고종

#### 백련사 일주문등 단청불사

서울 백련사(주지 월해)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일주문과 해탈루(법고각)의 단청불사를 마무리했다. 주지 월해스님은 "이번 단청불사를 통해 종단의 중심사찰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갖추게 됐으니 이를 계기로 종단의 수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천태종

#### 복지회보 '자비손' 창간



복지재단(대표이사 운덕스님)은 회보 〈자비손〉의 창간호〈사진〉를 발간했다. 창간호에는 대표이사 운덕스님의 발간사를 비롯, 중랑구 새싹어린이집 소개, 인터뷰, 건강길라잡이 등 복지관련 다양한 소식이 들어있다. 〈자비손〉은 4×6판 계간으로 발행된다.

### 진각종

#### 비로자나 청소년협 출범

7월 2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협회가 24일 오후 3시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에서 법인설립 발단(출범)불사를 봉행한다. 법인설립 발단불사는 1부 법요식과 2부 자성동이 풍물공연, 청소년관련 강연회 등으로 개최된다. (02)913-0753

#### 혜인정사 감사 선출



종의회(의장 휴명)는 17일 총인원 회의실에서 제322회 임시 종의회와 유지재단 이사회 합동회의를 갖고 8월6일자로 임기만료된 의현정사 후임 감사로 혜인정사〈부산 범석심인당주교·사진〉를 선출했다.

또 회성정사의 진각대학 교무처장 승진발령을 인준하고 경기도 안산, 서울 상계동 등 3곳의 종교부지와 건물을 매입 심인당을 신축하도록 승인 의결하고 시경심인당 인접 시유지 불하를 비롯 희락심인당 등 7개 심인당 인접부지와 건물매입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대승종

#### 종단스님 하계수련

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하계수련교육이 19~21일 괴산군 다보수련원에서 개최됐다. 종정 도암스님 총무원장 일오스님 교육원장 진관스님 등 60여 스님들이 동참한 이번 수련교육에는 '반야심경' '팔정도' '12인연법' 등의 강의와 울력 등으로 진행됐다.


아바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바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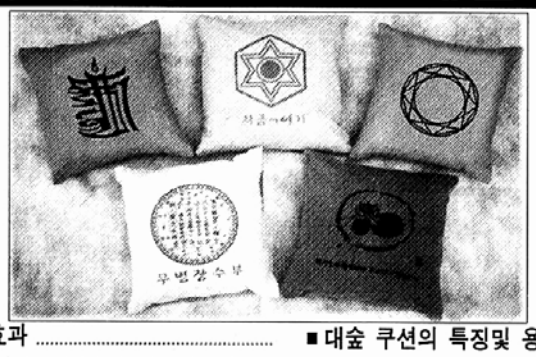
밝은길 아바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 아바타 코스는 7~9월이 걸리며 비용은 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지리산 청학동 대나무 숲으로 만든
차량용 공기정화 탈취제 대숲 쿠션



■ 대숲 대나무숲의 효과

지리산 대숲 대나무숲의 우수한 공기정화 작용과 음이온 및 원적외선 효과가 운전수의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대나무숲이 내뿜는 알파(a)파가 운전자의 각종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 합니다.

지리산 대숲 대나무숲의 탁월한 흡착작용이 차(車)안의 각종 냄새를 말끔히 제거하며 살균력을 지닌 죽초액을 첨가하므로 세균번식을 억제하는 항균력이 매우 우수하고 습도조절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며 유해 전자파의 공해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합니다.

■ 대숲 쿠션의 특징및 용도

· 100% 국산 대나무숲 사용 탁월한 효과, 효능 체험
· 자연 염색천을 사용
· 건강과 안전, 그리고 기(에너지)관련 부적 및 문양을 채택하여 사용자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신비함
· 대숲 쿠션은 실내 공기정화용 및 탈취용 제품으로써 일반 쿠션용도와는 다르게 비비거나 몸을 기대지 마세요.
· 실내용, 차량용, 신생아용, 명상용
· 자매품 : 대나무 숯 다수
자연염색 의류(100% 대나무 숯, 황토염색)

| 구 분 | 사 양 | 가 격 |
|---|---|---|
| 차량용 (공기정화탈취제) | 쿠션형태 | 27,000 |
| 실내용 (공기정화탈취제) | 피라밋형태 | 35,000 |
| 신발 (냄새제거제) | | 2,000 |

▶ 사찰 행사용 등으로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현재 불교방송에 협찬 광고 중입니다.
▶ 소중한 분들께 드리는 추석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000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출품 ※
(행사기간 9월 1일 ~ 11월 10일)

대숲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1056
■ TEL : 055)883-4380 FAX : 055)883-4380 H·P : 017)242-6976
■ Website : www. daesup.com, E-mail : daesup@hanmir.com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연꽃마을 부설 의원 이용 노인들 '한숨'

# "무료진료 · 처방 받았는데 이젠 약 사먹어야 한다니"

17일 오후 서울 마포에 소재한 연꽃마을 부설 마포경로의원.

중풍으로 4개월째 마포경로의원을 다닌다는 김용호 할아버지(67 · 서울 종로구 혜화동)는 처방전을 받아들고는 "할멈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간신히 먹고사는데 한달에 약값만 2만원이 넘게 든다"며 병원에서 다시 약을 받을 수 없느냐고 되물었다.

박안심 할머니(71 · 마포구 아현동)는 약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왜 약을 안주냐고 간호사에게 물었다가 설명을 들고는 "앞으로도 계속 약을 사먹어야 하느냐"며 약값을 걱정했다.

셋째 딸이 스님이라는 전부덕 할머니(83)는 "그동안 병원에 너무 신세를 많이 졌다"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약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인천 수원 안양 대전 청주 등 연꽃마을 부설 전국 13개 의원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만이 높다. 지난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무료진료는 전과 마찬가지지만 약은 개인부담으로 구입해야 한다. 이들 의원을 찾는 노인들은 거의 모두가 고령에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약값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약에 의존해 사는 노인들은 더욱 걱정이다.

노인들이 1주일분 약값으로 부담하는 돈은 적게는 1천원에서 많게는 1만원이 넘는다. 생활형편이 넉넉치 않은 노인으로서는 그저 답답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약이라도 약국마다 4배 이상 가격이 차이가 나 '바가지' 약값을 무는 경우까지 있다.

게다가 병원문을 나서 약국을 다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불만거리다. 그나마 처방전대로 약을 구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기저기 약국을 돌아다니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의약분업 시행은 이들 의원들을 운영해 온 연꽃마을에도 큰 고민을 안겼다. 당초 어려운 형편의 노인들을 돕자는 뜻에서 시작됐지만 약값을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3개 의원의 하루 평균 내원자가 3600여명에서 700여명이나 줄었다. 진료와 약처방을 무료로 받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오던 노인들이 발길을 끊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각 의원들이나 의원 운영주체인 연꽃마을 역시 어쩔 수 없는 처지다. 더욱이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진료비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장애인과 1종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약을 처방해도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있긴 하지만 약에 대한 보험청구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의원에서 약값을 지원할 수도 없는 처지다.

연꽃마을 김종필 주임은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질의를 해보았지만 현재로서는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별다른 대책은 없다"며 "교계에서 갖가지 후원을 통해 약값을 지원해주는 방법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서울 마포경로의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 약국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약값에 대한 부담으로 개운치 않은 표정이 역력하다.

# 150 사찰서 17000명 단기출가

## ■여름수련회 결산

### 효·위빠사나등 테마별 전문화 청소년 대안교육의 장 역할도

사찰의 '단기출가' 수련회가 대중적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전국 150여 사찰에서 수련회를 개설, 1만 7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수련회는 선무도, 효, 위빠사나, 심성훈련 등 특정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눈에 띄고, 이러한 수련회에 정원의 2배에서 6배에 이르는 참가자들이 몰리는 특징도 보였다.

또한 예년에는 몇몇 곳만이 수련회 경험 유무에 따라 프로그램을 달리했었으나 올해는 대부분의 조계종 교구본사가 참가자의 근기와 능력에 맞게 수련회 차수를 구분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 여름 수련회에서는 사찰수련회를 청소년들의 대안학교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보였다. 청소년 전문 수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화성 신흥사는 올해 특별한 그룹의 수련생들을 받았다. 수원 한일전산여고 학교장과 교사들이 인솔한 63명의 간부 학생 전원이 수련회에 참여한 것. 신흥사의 경우 학생들의 심신수련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문의와 방문이 꾸준히 늘고 있다. 경주 골굴사는 학교와 학부모들이 매일 수십명의 '문제아'들을 데리고 와 말기고 갈 만큼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대안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 했다.

골굴사는 7~8월 두달동안 6천여명에 달하는 수련생들이 몰려 주위를 놀라게 했다.

해남 대흥사는 벌써 내년 수련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말사에서도 수련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수련회 시작 3개월 전에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는 사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계종 직할 조계사, 고운사, 선운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련회를 개설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대흥사 수련원장 법인스님은 "휴가 · 방학 기간을 이용해 가족이 함께 수련할 수 있는 가족수련회 개설에 대한 요구가 높다"며 "교구 본 말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 가족이 동시에 각자의 근기와 연령에 맞는 수련회에 참여한 뒤 함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스님은 "수련생들이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공부하는 불자로 남을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전국 불교대학과 상설 수행도량, 불교NGO 및 봉사단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련생들을 사후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9월1일 내원정사에서 전국 본말사 포교국장단 회의를 열고 올 여름 수련회에 대한 평가회를 갖는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단기출가' 수련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사진은 천축사 시민선방에서 좌선수련을 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모습.

## 종교지도자 회담에 달라이라마 왜 빼나

### 티베트인들 UN에 항의

국제연합(UN)이 28부터 31일까지 여는 '종교 지도자들의 밀레니엄 세계 평화회담'에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UN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압력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되자, 티베트인권독립회의(Stream Of Free Tibet, http://tibet.or.kr)가 UN에 항의 편지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국제적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1000 여명이 넘는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됐다

티베트인권독립회의는 "티베트인들이 직면해 있는 민족 말살의 상황을 무시하고 있는 UN의 태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현재 티베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악한 인권 유린과 종교적 억압을 조사하기 위한 UN의 조사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법사연합회는 18일 '중국정부의 티베트 불교 말살 중지와 티베트인의 자유로운 불교활동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재경 기자

# 불자 장기기증신청 늘고있다

## '생명나눔 캠페인' 동참 작년보다 3배 증가

지난 2월 장기이식에 관한 법이 발효되면서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크게 감소한 반면 불교계의 장기기증신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가 올해부터 전개한 '전국민 1인 1장기기증운동' 캠페인 100회를 마치고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등록된 장기기증신청 건수는 3.818건으로, 지난 한해동안 등록된 2.992건에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뇌사시 장기기증이 올해 7월까지 1.332건으로 99년 996건과 비교할 때 같은 기간 동안 3배 이상 늘었으며, 98년 485건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했다. 또 각막기증도 1.308건으로 99년 991건, 98년 487건에 비교해 현저하게 늘어났으며, 시신기증 796건, 생전시 신장기증 144건, 생전시 골수기증 238건 등 다른 분야도 예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배 가량 늘어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뇌사자 장기기증 건수가 지난해 165건에서 올해 32건으로 줄었다고 밝혔었다.

생명나눔실천회 박완순 사무처장은 "뇌사자의 장기기증과 뇌사시 장기기증이 같을 수는 없지만 불교계의 장기기증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됐기 때문"이라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 신청이 뇌사시 장기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 조계종-천주교중앙협 체육대회

### 25일 뚝섬체육공원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과 천주교 중앙협의회 직원들이 종교간의 연대와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연다.

조계종 기획실은 14일 "두 단체간의 체육대회를 25일 뚝섬 체육공원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히고 "양쪽에서 80명씩 160여명이 참석하며, 스님들과 신부, 수녀들도 함께 경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천주교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김종수신부가 개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다. 총무원은 이번 체육대회에 격려금을 전달해 관심을 나타냈다.

정성운 기자

## 산청군 잇단 훼불 개신교인 범행 자백

경남 산청군내 사찰 3곳에서 불상을 훼손한 범인 3명이 산청경찰서로 자진출두해 범행을 자백했다. 산청경찰서는 14일 미리 검거된 교회 신자 양모씨 등 4명의 진술서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형사입건 했다.

이들 교회 신도 4명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청천암, 천문암, 지장암의 불상을 잇달아 훼손했다. 〈본지 282호 23면 기사 참조〉 김재경 기자

고침 282호 23면 마이산 탑사 기사와 관련 제목에서 전북도가 경북도로 잘못 표기됐기에 바로잡습니다.

## 뉴스 & 뉴스

### 아나율 장애아동 환경캠프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는 서울 구로구립 '아나율 장애아 어린이집'과 함께 17일부터 18일까지 산음자연휴양림 내 청소년 수련장에서 총 17명의 장애 아동들이 참가하는 '장애아동 환경캠프'를 진행했다.

환경교육센터에서 실시한 '숲 체험' 등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미취학 장애아동에게 오감을 통해 감각적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아이들의 감각적, 정서적, 학습적, 인지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김재경 기자

### 자원봉사팀장 전산교육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정대)은 22일부터 9월 5일까지 매주 화 · 목요일 5차례에 걸쳐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전산교육실에서 조계종 자원봉사팀장 40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자원봉사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인터넷과 등신을 통해 재단과 자원봉사자들간에 상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02)723-5101

한명우 기자

### 진각종 죽비캐릭터 '깨침이'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을 상징하는 죽비캐릭터의 공식명칭(기본형)으로 '깨침이'가 결정됐다.

진각종은 11일 통리원 회의실에서 신교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작품 1백여 건에 대해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깨침이'를 공식명칭으로 선정했다. 또 가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만다라 패밀리'를 선정하고 아들은 '각이', 딸은 '진이'로 죽비캐릭터 가족구성원의 이름을 최종 확정했다. 아빠와 엄마를 형상화한 명칭은 당선작이 나오지 않아 이날 선정되지 않았다.

죽비캐릭터 공식명칭으로 결정된 '깨침이'는 '누구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 만다라 세계를 만들어 가기를 서원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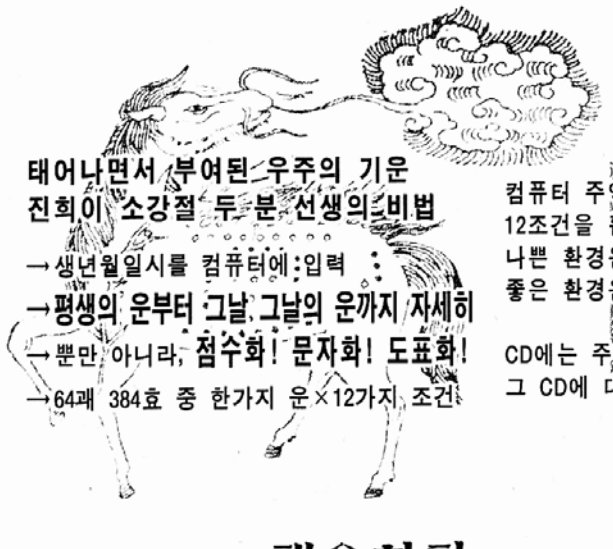
### 새시대불교포럼 8월 포럼

새시대불교포럼(대표 박승원 · 김연규)은 29일 오후 6시30분 서울 종단협 강당에서 8월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형중 박사가 '휴정 선시 연구', 최기표 박사가 '천태 점차지관(漸次止觀)의 수행체계 연구'를 각각 발표한다. 또 노귀남 실행위원장은 '2000년 7월 조-중 접경지역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02) 725-4282 김재경 기자


CD 하락이수
인생을 슬기롭게 삶을 복되게…

占이면 점! 運命이면 운명!
대유학당의 [씨디 하락이수]와 함께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3000년을 이어온 周易의 신비를 한 장의 CD에 담았습니다.
운명을 슬기롭게 개척하는 지혜의 보고 [CD河洛理數]



태어나면서 부여된 우주의 기운
진희이 소강절 두 분 선생의 비법
→생년월일시를 컴퓨터에 입력
→평생의 운부터 그날 그날의 운까지 자세히
→뿐만 아니라, 점수화! 문자화! 도표화!
→64괘 384효 중 한가지 운×12가지 조건

컴퓨터 주역점, 비법 중의 비법 참평비결,
12조건을 활용한 상대방과의 궁합, 적성!!
나쁜 환경은 개선하거나 피해나가고
좋은 환경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CD에는 주역의 예지력을 담고
그 CD에 대유학당의 명예를 걸었습니다.

주역의 명문! 대유학당 02)2232-8383, 2234-1786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주부신행담

# 되찾은 올바른 삶 (上)

## 할일 하고 먹을 것 다 먹으면서도 몸이 아파 힘들고 고통스러워 어리석은 마음에 무당을 찾았다

9년 전 그때는 한여름의 날씨를 채 벗어나지도 못한 9월초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마음도 몸도 춥기만 했던지…. 이곳저곳 마음이 내키는 대로 중심을 잃고 헤매다가 아무런 생각도 대책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

비교적 모든 것에 적응이 빠른 나에겐 이 도시는 낯설지도 않았고 그저 시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세월따라 바쁘게 움직이고 흘러 버리는구나 하는 무표정 그대로였다. 마음 속 깊은 곳의 알 수 없는 무거움은 어떤 여유로움도 가질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생각없이 빈둥거리다 찾은 곳이 수국사였다. 나는 평소에 독서를 즐기는 편이다. 수국사를 찾은 이유도 자용스님의 책을 누가 구입해 주어서 그것을 읽어보고 나서였다. 책은 여러 불자들의 경험담들을 모아 엮은 것이었는데 나도 혹시나 그들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절에 갔다.

그즈음 나는 굉장히 힘들 때였다. 건강했다는 기억은 없을만큼 항상 찌푸드한게 몸과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떤 꿈을 꾸고 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했고, 매일 밤마다 똑같은 꿈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오래 지속되다보니 모든 것이 귀찮고 차라리 산다는 게 힘들 지경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다가 인연이 닿은 곳이 수국사였다. 그곳에서 주지스님을 찾아 뵙고 이만저만해서 이러한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서 살다시피 했고 사춘기시절에는 절에서 생활도 해보았다. 명이 짧으므로 절밥을 먹어야 된다나? 이유야 어찌되었든 난 절과 인연이 많았다. 지금은 기억이 희미하지만 스님과 같이 길을 떠나 밀양의 어느 신도 댁에서 하루 쉬고 다음날 다시 길을 떠나 홍제사에 들러 주지스님을 뵙고 다시 도착한 그곳은 산 중턱에 있는 조그만 암자였다. 비로서 시작된 절에서의 생활. 그때는 무더운 여름날씨였으므로 견디기가 몹시도 힘겨웠다. 더위 때문이라기 보다는 모기의 극성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곳 주지스님은 세납이 당시 여든 하나라고 하셨는데 무척 자상하셨다. 산에서의 생활이 견디기 힘들거라면서 가끔 용돈을 주시면서 읍내에 나가 구경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으라고 하셨다. 그러면서도 공부에는 너무 마음을 놓고 있지 말라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난다.

그전에는 절에 가면 절만 하고 놀다가 오는 것이 전부였으므로 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랐다. 그래서인지 그때는 무조건 외우려고만 했던 것 같다. 나이도 어렸던 사춘기 소녀가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 해석본 책을 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암기를 위한 암기였어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외워둔 것이 십 년이 지난 지금 경전을 보지 않고도 독송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곳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끼기 마련인가.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나만은 모두 믿었어야 했는데 스님께 죄만 짓고 절을 뛰쳐 나왔다. 뚜렷하지 못했던 내 주관에 화가 나고 스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웠으나 다시 찾아 뵐 용기도 시간도 없었다.

그 이후 긴 방황 끝에 맺은 수국사와의 인연. 역시 깊이를 알 기엔 역부족이었기에 하라는 대로 해야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빈털털이였던 나는 동생에게 돈을 빌어 3일기도 접수를 했고 차비조차 없어서 걸어서 다녔다. 3일째인 마지막날 기도를 하는 중에 허탈한 생각에 누구에게라고 할 것도 없이 혼자말로 이런 때에 복권이라도 하나 당첨됐으면 좋으련만 하는 간절함이 들었다. 큰 것도 필요없었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었기 때문에 오십만원짜리 즉석복권이나 맞았으면 했다. 욕심이라는 것도 알았다. 기도의 목적도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건강하고 싶었고 매일밤의 반복되는 꿈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생각지도 않았던, 낮의 그 서원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오십만원짜리 즉석복권에 당첨됐다. 이런 일도 있긴 있구나 싶었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다. 급한대로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는 시주를 했다. 그렇게 해야만 홀가분 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욕심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를 얻고 나면 그 감사함도 잠깐이고 또다른 갈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왜일까?

다른사람들 눈에 내 모습은 조금 마르고 얼굴이 수척해 보일 뿐 여느 사람들과 똑같아 보였을 것이다. 정작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음식을 못 먹어서 기진맥진해 있던지 아니면 아파서 움직일 기력조차 없어서 누워 있기라도 한다면 동정이라도 받을 텐데. 해야할 일 다하며 먹을 것 다 먹으면서 아프다는데 누가 믿겠는가. 외병 정도로만 생각하는 주위 사람들이 야속하기만 했었다.



그림 · 이준석

내가 내 병에 집착한 나머지 어리석은 마음에 점집을 찾기 시작했다. 거기에서는 굿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내겐 엄청난 액수의 금액도 문제였지만 굿이라는 자체가 내겐 너무나 생소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네들의 그러한 사고방식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또다시 방황이 시작되었다. 경상도로 강원도로 여러 곳을 찾아 다녀보았지만 마치 짜고 대답하는 양 같은 말뿐이었다. 행여나 하던 기대도 점점 멀어져만 가고….

우연한 기회에 눈에 들어온 〈무녀벌곡〉이란 책을 읽어 보았다. 가슴이 뭉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속에는 그네들의 삶의 뒤안에 숨겨진 고통, 아픔, 사랑 등 애환이 담겨 있었다. 당시의 상황,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들. 지금의 그들의 생활이 물론 전적으로 옳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난 어느샌가 연민의 정을 느끼기에 이르렀고 그때까지 부정하려 했던 마음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기엔 너무 지치기도 했고 조금은 두렵기도 했으니까. 결국은 굿을 하기로 했다. 다른 건 어떻게 되든 일단 아픈 것이 사라진다는 거 그것이면 족했다.

그리고 시작된 나의 또다른 삶. 그건 벗어남이 아닌 또 다른 고달픔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왜 적응이 잘 안되었을까?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소신있게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함은 그들만의 행복이런가. 성격도 가지가지이다. 어느 때는 자상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내가 보았고 느꼈고 체험했기에 그런 모습들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웃고 씩씩해 보이지만, 정말 근심 걱정 없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속에서 눈물 흘리는 그 아픔을 내가 왜 모르겠는가.

그런 반면에 또한 욕심도 상당하다. 어느 누구를 만나봐도 오직 자신만이 최고이다.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던 것인가. 정말 욕심이 말할 수 없이 많고 말도 많았다. 〈계속〉

백련화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죽한향으로 인한 고통
천연향으로 싹 해결하십시오

일제향만 꼭 피우시겠습니까?

◀ ① 일각문 ▶

마음을 여는 문을 가르키는 이름으로 마음의 여백을 향기로 열어주는 심연의 향기로서 궁중이나 사원에서 널리 애용되어 온 순수 전통 천연향으로 특히 침향, 울릉도 자단향, 영능향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 향기가 매우 고귀하고 맑아 마음과 정신 육신을 능히 맑게하고 밖으로는 하늘까지 통하고 안으로는 인간의 마음 오장육부까지 그 향기가 전해지는 향

◀ ② 신금난 ▶

백단향 백리향과 금산향만의 특이한 3대째 내려오는 장인정신이 깃든 배합과 숙성기술로 탄생된 명향으로 일본에서 한중일 무역박람회에서 우리의 천연향기로 세계인을 놀라게 한 일명 피우는 우리의 향수! 피울때는 정신을 맑게하고 그 잔향은 몸에 베어 은은하게 흘러 나와 타인의 기분까지 좋게 하는 우리 선조의 이웃사랑정신을 알게 하는 향

최고급 선물세트



일본수출기념 향꽃이 무료증정

◆ 특별보급가격 42,000원

한국천연향의 자존심 지우는 우리의 향수

귀하신분께 귀하신 선물을…

◀ ③ 백 난 ▶

옛부터 소향의 가루향으로 많이 쓰이는 향재를 사용한 것으로 목향, 육계, 정향 난향등을 잘 조화를 이룬 제향기술로 사향의 정취를 느끼게 하며 그 향기가 미묘하고 아름다워 자연과 하나가 됨을 느끼게 하는 향

錦山香堂

천연향만을 고집하며 3대를 이어온 100년 전통의 금산향당

◆보급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68-1번지
◆일 터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496-2번지
◆http://www.ksbuy.co.kr
◆TEL : 051)518-3017~8
◆FAX : 051)518-3019
◆무료전화 : 080-776-7000

『우리 곁에 다녀간 부처』
성철 대선사 기념메달 보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참 뜻만 깨쳐도 우리는 이미
큰스님과 함께 삼법인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 소재 : 황동(순금도금 ) ■ 직경 : 80mm ■ 가격 : 5만원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후면

■ 판매 : 인터넷 불교 백화점 마하몰 ■ 제조 한국조폐공사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 보급

『달마대사와 경전의 핵심인 반야심경을 함께 모셨습니다.』

가정에는 품위있는 소장을" 고마운 분께는 마음의 선물을"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을 선택하십시오.

『달마조사는 우리에게 불립문자로 반야심경을 설파하였습니다. 흔히 달마조사의 그림 자체가 기(氣)가 많이 살아 있으며, 수맥차단 운기보호 등등을 운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 반야심경과 함께 있는 달마조사는 우리에게 선(禪)을 통한 자기 성찰의 기(氣)를 주고 있습니다.』

재질 및 특징

에폭시, 우레탄등 5종류의 특수재질을 혼합 나뭇결 모양을 100% 살린 목재경판 형태로 만들어져 수십년이 지나도 뒤틀리거나 깨지지 않고 가정에서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경판 표면의 그림과 문자를 특수 동분처리하여 소장 가치를 높였다.



▶ 스탠드형 경판 (고급 오동나무 케이스 포함)
· 원산지 : 한국
· 규 격 : 가로 49cm 세로 23cm, 두께 2.8cm 무게 1.8kg
· 가 격 : 97,000원



▶ 액자형 경판
· 원산지 : 한국
· 규 격 : 가로 69cm 세로 43cm, 두께 3cm 무게 4.5kg (액자포함 사양)
· 가 격 : 107,000원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